

## 제 12 차

# 2008 정기총회 자료집

일시 : 2008년 1월 18일(금) 오후4시-7시

장소 : 장충동 분도빌딩 5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제 12 차

# 2008 정기총회 자료집

일시 : 2008년 1월 18일(금) 오후4시-7시

장소 : 장충동 분도빌딩 5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목 차

■ 대표인사	5
■ 정기총회 순서(연)	7
■ 제11차 총회 회의록	9
■ 2007 감사, 회계보고	15
■ 2007 사업보고 및 평가	
1. 사업총평	21
2. 사업보고	26
1) 한반도평화센터	26
2) 갈등해결센터	44
3) 일상평화센터	69
4) 회원참여센터	70
5) 한국여성평화연구원	73
6) 정보사업	83
7) 연대사업	90
8) 기타	100
■ 2008 사업계획안	
1. 사업방향	105
2. 사업계획	108
1) 한반도평화센터	108
2) 갈등해결센터	110
3) 일상평화센터	116
4) 회원참여센터	117
5)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19
6) 10주년기념사업위원회	120
3. 월별사업계획표	121
■ 부록	123
정관 및 운영규정	126
조직구성도	133
성명서 모음	135
발간자료 목록	198
회원가입서	199



## 대 표 인 사

존경하는 평화여성회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년 한 해가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람으로 행복하고, 일에서 신명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스신 가운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제12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깊은 지애에도 뜨겁게 환영합니다.

해마다 봄은 가고, 여름, 가을로 계절 바뀌어 겨울을 맞이하지만,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 것처럼 느껴집니다.

돌이켜 보면 평화여성회가 태어나 곱돌마를 시작하고 많은 꿈을 키우며 자라 온 지난 시기, 평화여성회는 참으로 많은 실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잠깐 듯 쉽게 잡히지 않는 남북여성교류 성사를 위해 자리까지 털어가며 애면글면하던 전임대표들, 숨거나 덮거나 굴하지 않고 권쟁반대, 과병반대를 외치며 거리를 뛰어나니던 상근 활동가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밤을 낮 삼아 자료 되저가며 정책안 만들던 회원 활동가들, 몸으로 맘으로 지원하다 밤이라도 먹으라며 주머니 털어 귀여두시고, 내 한 자리라도 채워 주려 왔던 격려해주시던 청년니 활동가들, 이 모든 이들의 노력과 지원, 헌신이 바로 평화여성회를 오늘로 이끌이 낸 실천의 근간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작년 초, 오랜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우리를 힘들게 하던 북핵문제가 2·13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무언가 새로운 전방을 만들 수 있을 것도 같았고, 그에 걸맞게 남북교류도 일정한 전진을 하게 되었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상을 그리며 행복한 희망과 상상을 펼쳐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2007년은 평화여성회가 꿈꿔 왔던 평화세상을 펼치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도전은 평화여성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을 쫓아가느라 정작 우리 자신을 돌보는데 지나치게 소홀했고, 지난 10년간의 활동으로 쌓인 활동가 개개인의 어려움이 적절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고풍스러웠습니다..

평화여성회에 제기된 과제를 해결하는 부담은 일차적으로 상근활동가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오늘 이렇듯 총회를 성사시키기까지 이들이 노심초사하며 감당해 낸 노고에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열려를 표하지 않고 함께 하신 회원 여러분께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사죄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평화여성회가 해적가야 할 도전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들어 올 정부는 취임도 하기 전부터 여성운동과 평화통일운동에 걸림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제 담당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본단단체의 핵심 주체가 누구 인지를 착각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평등 이념과 정책을 두루 펼쳐가야 할 이때에,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본단을 벗어나 평화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이때에 시간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성운동의 성과를 이어가고 평화통일운동의 전진을 앞당기기 위해 평화여성회가 넘어야 할 산도 작지않은 않으리라 예견하되 합니다.

#### 그러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평화여성회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근본적으로 저항하고,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기로 다짐하면서 지난 시기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 온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법이 있다는 신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지금 비록 우리가 인력,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안락의 도전으로 험기워 하고 있다 해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여성들의 따뜻한 애정으로, 서로 끌어안고 나누는 뜨거운 포옹으로, 문제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냉철한 머리로 현안을 빛다드립니다. 잠깐 전 그날, 아무 것도 없이 오직 열의 하나만으로 출발했던 바로 그날처럼,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기간 이루었던 성과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는 우리의 과실삼아 새로운 내일을 열어 갑시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춥다한들 봄은 끝내 오고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무 것도 없는 듯 보이나 서로에 대한 애정과 운동에 대한 신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서로의 소망을 이루면 되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 평화여성회의 내일이 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소박하나 불리하게 되지 시작합니다.

2008년을 시작하는 오늘, 새로운 시작에 함께 하시는 모든 회원과이제는 진실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월 18일, 제12차 총회에서  
공동대표 김엘리, 조영희

## 정기총회 순서(안)

### 1 부 : 여는 마당 (오후 4:00 ~ )

진 행 : 상근활동가/김지선

### 2 부 : 본회의 (오후 5:00 ~ )

개회선언	_____	의장/조영희
대표인사	_____	공동대표
격려사	_____	지도위원/김숙임
서기입명	_____	의장/조영희
상수보고	_____	사무국장/김현희
회순제대	_____	의장/조영희
2007도 사업감사 보고	_____	감사/이정희
2007년도 사업보고와 승인	_____	사무국장/김현희
2007년도 회계감사 보고	_____	감사/한국영
2007년도 결산안 보고와 승인	_____	회계/안수경
임원선출	_____	인선위원장/여혜숙
선·구입원 교체서	_____	인선위원장/여혜숙
2008년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_____	사무국장/김현희
2008년도 예산안 보고와 승인	_____	회계/안수경
기타토의	_____	의장/
모범회원상 수여	_____	의장/
회의록 발음	_____	서기/
폐회선언	_____	의장/

### 3 부 : 석사와 덕담나누기 (오후 7:00 ~ )



## 제11차 정기총회 회의록

※ 서기 : 여혜숙

1. 일시 : 2007년 1월 19일(금) 오후 5시 ~ 7시

2. 장소 : 장충동 분도빌딩 5층

3. 주요의결내용 :

- 1) 김숙임 의장이 오후 5시 20분 재회선언을 하고 제11차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 2) 정현택 이사장이 격려사를 하다.
- 3) 김숙임 의장이 여혜숙 회원과 김선혜 회원을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 4) 김현희 사무국장이 정관 19조에 의거 현회 25명 회원이 참여를 보고하여, 총회가 성사되었음을 보고하다.
- 5) 김숙임 의장이 자료집 5쪽의 회순을 낭독하여 설명하고, 최안진경 회원이 동의하고, 황순영 회원이 제정하여 회순을 원안대로 하기로 하다.
- 6) 이경희 사업감사가 사정상 불참하여 김현희 사무국장이 자료집 11쪽의 2006년도 사업감사보고를 대독하여 보고하다.
- 7) 김현희 사무국장이 2006년도 사업보고를 활동 영상물로 요약 보고하고, 자료집 17쪽부터 20쪽까지의 사업총평을 낭독하고, 김선혜 회원이 동의하고, 김영진 회원이 세정한 후, 전체가 박수하여 승인하다.
- 8) 한국영 회계감사가 사정상 불참하여 김현희 사무국장이 자료집 13쪽의 2006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대독하여 보고하다.
- 9) 안수경 회계가 사정상 불참하여, 김현희 사무국장이 별지 자료대로 결산보고서와 기금내역에 대하여 요약보고 한 후, 황순영 회원이 작년보다 200만원 이월금이 총회간 것을 보니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된다는 발언을 하고, 심영희 공동대표가 이후정 평화상 통장의 권고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질의하여, 김현희 사무국장이 풀아가신 분의 만의라 상속인 9명의 동의를 얻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동의절차가 어렵고, 감사 또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손실처리 하도록 지적하였다고 설명하고, 김경수 공동대표가 3쪽의 사업비 전환기금에서 '가'자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문명녀 회원이 2쪽의 남북협력교류기금의 '를'을 '금'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문명녀 회원이 2006년도 제정 중 4) 남북협력교류기금을 운영비로 대역한 것에 대해 질의하여, 김현희 사무국장이 3년 전의 운영비가 부족해 대역한 것으로 2007년 예산에 이를 상환하기 위한 예산제화를 밝혔음을 설명하고, 장경화 회원이 이월금이 받

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김현희 사무국장과 김숙임 상임대표가 인건비가 예산보다 적게 지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음을 설명하고, 윤수경 회원이 예산에는 차입금항이 없으면서, 지출에는 차입금 반환항이 있는데, 이것이 만일 2005년에 차입한 것이라면, 이월금이 남아있으면서 차입금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므로 분명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제안하고, 김현희 사무국장이 2005년 차입금을 2006년에 상환하지 못하고 2007년에 상환하려고 하며, 특히 이월금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못한 것은 경상비 예산이 없어서, 반환하지 못하였다 답하자, 박수선 소장이 연말에 차입금을 상환하고, 다음해 연초에 다시 차입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김숙임 의장이 여러 개의 오자를 수정하고 차입금 조항에 대한 지적 사항을 1차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정리할 것을 수정 제안하여, 윤수경 회원이 동의하고, 문명녀 회원이 제청한 후, 모두 동의하여 2007년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다.

10) 김숙임 의장이, 공동대표 보궐선거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설명하고, 문명녀 인선위원장에게 인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문명녀 인선위원장이 문명녀, 박수선, 여희숙, 최안진경, 홍승희 회원 등과 함께 인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음을 보고한 후, 6시 28분 잠시 정회를 선언하다. 6시 34분 김숙임 의장의 회의 속개 선언 후, 문명녀 인선위원장이 임원선출안의 상정 배경에 대하여 김숙임 상임대표와 심영희 공동대표가 자기 건강 문제와 근무중인 학교의 사정으로 사임하게 되었으며, 공동대표의 궐석으로 인한 임원선출안은 07 총회준비위원회와 공동대표들이 논의하여 작성하여, 동 임원선출안에 대하여 경기이사회와 승인을 얻었음을 보고하고, 경관 3장 13조에 의거 잔여임기인 2008년 경기총회시까지 김정수 현 공동대표를 상임대표로, 김엘리 회원과 조영희 회원을 공동대표로, 또한 김엘리 회원은 여성평화연구위원장을 조영희 회원은 회원참여센터소장을 겸임하는 내용의 선출안을 총회자료 133쪽 대로 설명하고, 이의와 보완 의견을 들은 후,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경란 회원의 동의하고 모두 박수로 만장일치로 제청하여 임원선출안을 승인하다.

11) 김현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신규임원 교체식을 진행하다.

12) 오후 6시 58분 신임 김정수 상임대표를 의장으로 회의를 속개하여 김현희 사무국장이 2007년도 사업계획안을 자료집 115부터 130쪽까지의 내용을 별도의 영상자료로 요약 보고한 후, 장경화 회원이 일상평화센터의 윌레모임은 평화여성회 윌레평화마당에 참여하는 것의 오기이고, '윌레모임' 또한 '비정기적'의 오기이므로 수정할 것을 지적하고, 장경화 회원이 자료집 119쪽의 여성 6자회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정경란 한반도평화센터 소장이 배경을 설명하고, 이덕경 회원이 자료집 130쪽 윌레법사업계획표에 갈등해결센터의 칸이 두 개가 중복되어 있다고 지적하여, 김정수 의장이 오기를 삭제하기로 하고 박홍나미 회원이 동의하고, 이덕경 회원이 제청하여 전체가 동의하여 2007 사업제

확인을 승인하다.

13) 안수경 회장이 사정상 불참하여, 김현희 사무국장이 별지 2007년도 수입예산(안) 내역과 2007년도 지출예산안 내역을 보고하고, 심영희 회원이 년계대비율과 증감율이 있는데, 이중 년계 146.01%가 잘못 계산되었고 2007년도 지출예산안의 여성평화회의집 지분 지불금 합 내역 중에서 '여성지원회 감소 전세잔액'을 지우기로 했는데 수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관공비 내역은 상임(40)\*12+공동2인\*20\*12 등으로 통상적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할 것을 요청하고, 윤수경 회원이 수입지출예산안의 항목의 명칭을 통상회계법에 맞도록 적절하게 적시할 것을 요청하며, 김정수 의장이 각각의 지적을 받아 보완한 수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김지연 회원이 동의하고 김영진 회원이 제청한 후 전체가 동의하여 승인하다.

14) 김정수 의장이 정관상 총회 성수가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수'로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회원단체의 면도를 갖추기 위해 회원의 조항을 활동회원, 후원회원, 자요회원으로 체계화하여 사무처나 운영위원들이 회원과 만남이 활성화하기 위해 정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총회 참석 회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운영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정관개정안을 2008년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에 대한 안건을 총회준비위원회가 제안하였음을 설명하자, 박수선 김동해결센터 소장이 그 취지에는 동의하나 내년엔 안전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수'되도록 정관을 개정할 당시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검토한 후 평화여성회 회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회원의 활동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부의한 후 회원정비안을 마련하기로 개회하여 정경란 회원이 제청하고 모두 박수로 동의하여 회원정비안을 먼저 마련할 것에 동의하다.

15) 김정수회장이 갈등해결센터 청소년교육팀에 모범회원상을 수여하다.

16) 여혜숙 서기가 회의록을 보고하고 모두 박수로 동의하다.

17) 오후 8시 7분 김정수 의장이 폐회 선언하다.



# 2007년 감사보고





## 2007년 사업 감사 보고서

1.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2007년에 “여성들의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의 미래 쉼터나가지”라는 사업방향을 갖고 활동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인력과 재원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벌인 사무처와 각 센터에 박수를 보냅니다.

2. 본회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활동을 이끌고 남북여성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6.15, 8.15 행사 외에 남북여성이 서로를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일상화된 여성 관련 분야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표적인 여성 평화통일 단체로서 폭넓은 범위의 여성들에게 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의 기운을 확산시켜야하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보입니다.

3. 한반도평화센터 사업 가운데 2008년 여성 6자회담 성사를 위한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추진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로 동북아 평화 형성과정에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이 일에 들인 노력에 비해 장기 전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 여성단체들이 그 나라의 동북아 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에 비추어보면 참가국이 꼭 6개국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고, 회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공감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 갈등해결교육프로그램이 주제와 대상에 맞게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대화와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을 실제 청소년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회합을 통해 시도한 것은 본 회의 활동이 대량적 교육뿐만 아니라 현실의 분쟁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아가 바람직한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사법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갈등해결과 조정교육과 함께 직접 개입하는 활동을 실시하면 더 큰 성과를 내고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가해자의 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아리도 성차별, 성폭력 관련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에서 당사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국가안정 문제가 여전히 남녀간의 대립으로 비추어지는 등의 문

제도 여전한데,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의 갈등해결에도 힘을 기울여 여성의 권리보장과 이를 위한 양성의 협력을 높일 수 있다면 여성운동단체로서 본회의 성격에도 더 잘 맞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분쟁과 남북관계, 대외관계의 분쟁에 관련하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해결을 위해 대화하는 것을 시도하고 확산시키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5. 일상평화센터가 뚜렷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회원참여센터와 공동 사업을 찾아 회원들의 평화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모으는 일을 계획성 있게 시작하는 등으로 혁신방법을 찾거나, 조직정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정관에 총회 의결방법(총회 출석수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는 등)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관 17조는 총회 개회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자우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엄밀하게는 적법한 총회 개최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회원이 알려진 전자우편제외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원의 임기가 끝나 연임할 경우에도 역시 정관에 따른 산출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 점이 명확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08. 1. 14.  
감사 이 정 회

## 감 사 보 고 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귀하

2007년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계감사를 한 결과 회계장부(역셀문서), 수입, 지출 결의서, 영수증이 잘 구비되었고, 통장과도 일치하므로 이상이 없음을 보고하며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지적합니다.

1. 원 예산과 차이가 많아 나는 부분에 대하여 결산 전에 추경을 해야 합니다.
2. 미지급금 항목은 내용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3. 회계 계정에 센터별로 일괄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세분화해서 계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4. 부설 여성평화연구원 제정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본회와의 재정 구분 문제를 효율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1일 (금)

감사 한국업

(서명):





# 2007년 사업보고 및 평가

- I. 2007년 사업 총평
- II. 2007년 사업 보고



# 2007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업보고 및 평가

## I 2007년 사업 총평

2007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총회에서 전체 사업방향을 “여성들의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의 미래 펼쳐나가자!”로 잡았다. 평화여성회는 2007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여성평화운동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그 동안의 활동을 점검하면서 여성들이 평화의 힘으로서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펼쳐나가는 것을 일차적 우선과제로 삼은 것이다. 2007년은 2.13합의와 10.3합의 등 6차회담에서 진전이 있었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10.4 남북공동선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가 발전하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국내적 환경 개선에 발맞추어 평화여성회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평화여성회는 올해 전체 사업방향을 이루기 위해 주요사업으로 ‘평화여성회의 미래비전 구상하기’, ‘여성평화운동의 역량 강화하기’,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만들기에 힘쓰기’ 등으로 설정하였다.

### 1. 평화여성회의 미래비전 구상하기

평화여성회의 미래비전 구상을 위해 과거 10년부터 현재까지 전개하여온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첫째, 본회의 내실을 다지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 둘째, 평화여성회가 펼칠 운동의 성격과 방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셋째, 평화여성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일에 주력하기로 계획하였다.

#### 1) 본회의 내실을 다지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기

우선, 본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여성평화운동의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월 월례평화마당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회원들 간의 여성평화운동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평화사안과 관련한 정세이해, DMZ 평화기행, 영화보기 등 강의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참여가 기대하였던 것보다 많지 않아 이



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원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평화여성회의 조직 강화와 회원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2) 평화여성회가 펼칠 운동의 성격과 방향 모색 및 장기적 비전 구상

평화여성회가 가진 조직적, 인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사업이 배치되기 보다는 정세에 따른 현안대응이나 당장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평화운동의 전망을 모색하며 미래비전을 구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연대사업을 최소화하고 몇 가지 사업에 집중하는 등 평화여성회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내실을 다지는 일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7월20일 평화여성회 전망마련을 위한 운영위원회 MT를 개최하여 평화여성회 운동방향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어떻게 조화시켜가야 할지, 사업선정과 집중에 대하여 그리고 여성적 관점의 평화운동에 대해 여러 생각들을 나누었고 이는 평화여성회가 펼칠 운동의 성격과 방향에 관하여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공동대표의 변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논의가 지속되기가 어려웠다. 또한, 여러 바쁜 일정여건과 재정, 조직적 물적 기반에 비해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활동가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여 평화여성회의 미래 비전을 구상할 만한 여너지를 모아 논의를 지속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향후 조직의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여성평화운동의 성격과 비전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논의가 요구된다.

## 2. 여성평화운동의 역량 강화하기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운동의 역량강화를 위해 첫째,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성격을 모색하고 둘째, 각 센터들과 연구원의 사업을 통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고 강화하고 셋째, 여성지도력과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 1)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성격 모색하기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성격을 모색하기 위해 평화여성회 부설기관인 여성평화연구원은 '여성과 평화 다시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개세미나 '활력채담'을 진행하였다. 여성평화의 각 주제에 따라 여성평화정치학의 논의를 시도한 자리였으며 여성평화운동의 성격을 모색할 수 있었다. 또한, 활력채담을 통해 연구원의 활동체계와 방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내용생산을 통해 여성평화운동 역량강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마련이 되기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2) 각 센터들과 연구원의 사업을 통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고 강화하기

갈등해결센터의 경우 매년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움으로써 강사진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 학교, 사회기관, 공부방 등을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교육활동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올해는 학교 폭력문제해결과 예방을 위한 조정을 진행하여 참여활동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일상적 삶에서 출발하여 전쟁과 군사주의가 낳은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등 평화주의자의 삶과 가치, 운동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성찰하여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상평화센터와 회원참여센터가 고민하여 일상의 여성평화운동을 진행시켜 갈 필요가 있다.

그 외 한반도평화센터와 갈등해결센터가 남북여성의 만남과 소통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성평화협상전문가 양성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강좌와 협상워크숍을 함께 병행한 점은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평화여성회는 6.15 남북위원회 여성본부의 사무국으로 남북여성 교류를 실질적으로 지원했으며, 향후 남북여성교류의 질적 발전을 위해 남북여성사이의 협력사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성들이 통일과정에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 3) 여성지도력과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

평화여성회가 주최한 '여성6자회담 실현을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 추진'은 국내외에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단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첫째, 국내적으로는 4개국 방문과정에 평화여성회가 아닌 여성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2008년 동북아평화를 위한 여성6자회담에 다른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였다. 평화여성회 내부에서는 여성6자회담의 방향이나 실현을 자문해 주는 다수의 여성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6자회담을 준비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국제적으로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를 방문하여 여성단체 지도자 및 여성의원들 만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2008년 여성6자회담 참여를 요청하여 동북아평화를 위한 여성네트를 위한 기초를 닦는데 기여하였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자문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3. 변화하는 국내의 정세에 대응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만들기에 힘쓰기

북한 핵문제의 초기단계 이행방안인 2.13합의가 성사되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완화되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남북경제협력이 확대되고 한반도평화체제 논의가 활성화되는 한이었다. 평화여성회는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여성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분쟁해결과 평화형성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촉구한 UN 안보리 결의안 1325를 근거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평화여성회와 여성단체연합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표단에 여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차 정상회담 기간에 여성분야 모임이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해 상반기에는 대구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새겨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동북아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과 임정문서 초안을 검토하였다.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의 비전과 청사진 그리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참여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에 있는 여성단체와 여성인원을 만나 여성6자회담을 설명하고 참여를 제안하였다. 미국, 일본에서는 기존에 평화여성회가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를 통해 방문일정을 조정하는게 쉬웠으나, 기존에 네트워크가 없었던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자원위원과 현지 여성학자 등의 도움으로 내실 있는 방문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방문 기간 중 만났던 많은 여성지도자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실현을 위한 한국 여성의 활동을 격려하고 2008 여성6자회담 참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여성6자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각국 여성현실의 차이함, 파다한 업무량과 부족한 재정, 여성6자회담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제연대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국제연대사업에 대한 전망, 사업 및 담당자에 대한 지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 외 평화여성회는 코디네이터로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군사연습 반대, 아프간에서 피랍한국인 무사 귀환, 남북정상회담 환영,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 등과 관련된 입장을 여성단체들과 함께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조직하고 국제연대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평화사인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 여성들을 조직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가시화하였다.

평화여성회는 과거 10년 동안 왕으로 많은 일을 해왔고 여러 드러난 성과들도 인하여 주목받아 왔고 또한 여성평화운동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정작 우리 내부에서는 운동의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정작 활동가 개인은 지치거나 운동 속

에서 자기 전망 모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임기 중인 대표가 사업회기중에 중도 사퇴하는 극한 상황을 맞이하여 과형적 운영을 하게까지 되었다. 이제 여성평화운동이 단지 명분에 머물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운동, 나 자신이 행복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게 되었으며, 운동의 과정이 활동가 개개인이 만족할 수 과정으로 전개될 필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여성평화세상의 비전을 활동가 개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 회원들과 함께 공유되어 힘이 모아지도록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회원 조직 사업을 활성화하여 조직의 근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조직전망을 논의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 지난 10년의 활동을 아우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10년을 열어가기 위하여,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회원 모두의 열망을 지피우기 위하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직적 전망과 비전마련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II. 2007년 사업보고

### 2-1. 한반도평화센터

#### I. 한반도평화센터

##### ○ 구성

- (1) 소장 : 정경란
- (2) 운영위원회 : 김정수, 조영희, 정경란, 김현희, 변숙진
- (3) 자문위원회 : 강은희, 백준기, 신호숙, 박건영, 구갑우, 김귀옥, 박순성, 신호숙, 윤덕희, 이금순, 이명자, 이승환, 이우영, 김지연, 장미애, 최지영, 이정남

#### 1. 사업방향

2007년은 2006년 북미 관계의 악화 속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유엔 대북 제재 등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악화되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대선을 맞아 현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와 신임 정부에 대한 제안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제재가 지속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북한핵문제 해결과 한반도평화체제 형성 및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정책논의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여성의 논의를 강화한다. 셋째, 동북아 지역의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와 협력을 추구한다. 넷째,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여성들의 입장을 제안함으로써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을 정부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

#### 2. 사업목표

-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한국여성의 입장을 정리한다.
- 2) 남북여성교류사업을 지속, 강화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에 기여한다.
- 3) 여성 6사회당 실현을 위해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한다.
- 4) 현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여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의 입장을 제안한다.
- 5) 한반도평화센터의 논의 및 조직력 강화

### 3. 사업계획

####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의 입장 정립

##### (1)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관련 논의 활성화 및 여성입장 정립

가. 자문 모임 및 여성전문가 모임/ 내부 논의 활성화/ 여성입장 정립

나.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여성의 논리 및 로드맵을 위한 토대 마련

##### (2) 5.24 세계여성 군축의 날 행사

#### 2) 남북여성과 화해 및 협력

##### (1) 6.15 여성분부 활동 지속 및 정책논의 활성화

##### (2) 여성의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한 내부 모임 강화

#### 3) '2008 여성 6자회담 실현을 위한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토대 구축

#####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한국여성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린다.

##### (2) GPPAC 동북아지역회의의 참가,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관련 협조 요청 및 정보 수집

##### (3) 여성 6자회담 상사를 위한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형성 추진

가. 기존 여성평화 국제네트워크 정보 확인/ 국내네트워크와 병행

나. 여성 6자회담 관련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방문하여 여성단체 및 관계자를 만나 여성의 입장을 전달한다.

다.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기쁨을 다진다.

##### (4) 국제연대 역할 강화

#### 4) 행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서와 제안서를 작성한다.

#### 5) 한반도평화센터 모임 정례화

### 4. 사업내용

#### 1) 회의

##### (1) 운영위원회

○ 구성 : 정경란(소장), 김정수, 조영희, 김현희, 변숙진

##### ① 1차

- 일시 : 1월25일(목) 오전11시    ○ 장소 : 평화여성회
- 참석 : 김정수, 김현희, 정경란, 조영희
- 내용 : 정세포론(6자회담, BDA, 남북관계), 한반도평화센터의 향후 계획 논의, 여성6자회담 개회를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 구성 등

② 2차

- 일시 : 1월31일(수) 오후3시    ○ 장소 : 평화여성회
- 참석 : 김정수, 김현희, 정경란, 조영희
- 내용 : 여성6자회담 개회를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 구성, 노무현정부 통일, 외교, 안보 정책평가 등

③ 3차

- 일시 : 2월12일(월) 오후5시 30분    ○ 장소 : 평화여성회
- 참석 : 김정수, 김현희, 정경란, 조영희
- 내용 : 노무현 정부 통일, 외교, 안보 정책평가 등

④ 4차

- 일시 : 2월22일(목) 오후 6시    ○ 장소 : 장충동 카페
- 참석 : 김정수, 김현희, 정경란, 조영희
- 내용 : 남북여성실무접촉, 한반도평화센터의 향후 계획 등

⑤ 5차

- 일시 : 3월22일(목) 낮 12시    ○ 장소 : 평화여성회
- 참석 : 김정수, 변숙진, 정경란, 조영희
- 내용 : 여성6자회담 개회를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 구성 등

⑥ 6차

- 일시 : 11월30일(금) 오후2시30분    ○ 장소 : 평화여성회
- 참석 : 김현희, 변숙진, 정경란, 조영희
- 내용 : 2007년 한반도평화센터 사업평가 등

(2) 자문위원회

○ 구성 :

- 러시아 : 백준기(한신대교수), 신효숙(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미 국 : 박건영(카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 한 : 김귀옥(한성대 교수), 박순성(동국대 교수), 신효숙(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윤덕희(명지대), 이금순(통일연구원), 이명자(북한영화전문기), 이승환(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 일 본 : 김지연 (이대 사회과학연구소), 정미애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중 국 : 최지영 (한림대 국제대학원대 교수) 이정남(고대 평화연구소)

① 1차

- 일시 : 3월20일(금) 오후4시                      ○ 장소 : 평화여성회
- 참가자 :  
    평화여성회 : 김정수, 정경란, 김현희, 변숙진  
    자문위원 : 강은희, 윤덕희, 이우영, 이정남, 최지영
- 내용 : 자문회의 역할/제언/협력  
    - 여성 입장문서 정렬 지원, 자국 상황 정보 지원, 외국 단체와 협력 지원 등 논의

② 2차 (북한팀 자문회의)

- 일시 : 5월17일(목) 오후6시                      ○ 장소 : 지리산(인사동)
- 참가자 :  
    평화여성회 : 김정수, 정경란, 김현희, 변숙진  
    자문위원 : 윤덕희, 이우영, 이명자, 신효숙, 이승환
- 내용 : 남북여성대표자모임, 평화여성회 여성평화협상전문가 양성 훈련프로그램 등 논의

③ 전문가 좌담회 '2007 남북 정상회담이후 여성교류협력사업전망' (3차모임)

- 일시 : 2007년 10월29일(월) 오후6시30분                      ○ 장소 : 지리산(인사동)
- 참가자 : 조영희, 김숙임, 김숙임, 정경란, 김현희, 김지선, 변숙진 (평화여성회), 윤덕희, 이명자, 이승환 (자문위원)
- 논의 :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남북협력시스템의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민관협력과 여성단체들과의 관계 등), 남북여성 협력사업의 영역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등

④ 4차

- 일시 : 2007년 11월30일(금) 오후7시                      ○ 장소 : 지리산(인사동)
- 참가자 : 김귀옥, 최지영(한반도평화센터 자문위원)  
    정경란, 조영희, 김현희(평화여성회)
- 논의 : 2008 여성6자회담 및 남북교류협력사업방안 등

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의 입장 정립

(1)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관련 논의 활성화 및 여성입장 정립

① 자문 모임 등을 통해 논의 진행함 (상기 회의 참조)



② 상반기에 주1회 정도 정기적인 내부 세미나를 통해 한미관계 및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논의를 지속함.

○ 일시 : 3월15일~5월17일 (매주 목 총 8회) ○ 장소 : 평화여성회

○ 참가자 : 김선양,김정수,김지선,김현희,변숙진,정경란,조영희

③ 시기별 제기별 여성입장 발표 (참조 : 성명서 모음)

-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이하 2.13합의)를 환영논평 발표 2월14일
- 한미연합전시훈련(RSOI)/독수리 군사연습(FE)을 중단 성명서 발표  
"여성들은 한미연합전시훈련(RSOI)/독수리 군사연습(FE)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월 22일
-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7주년 기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선언 "여성, 고통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21세기를 만들자": 6월15일
- 제2차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관한 논평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의 희망을 주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8월8일
- 평화여성회 환영논평: 2007 남북정상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 10월4일
- 이라크 파병 연장 결정 반대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연장 결정을 반대한다": 10월 24일
- 6.15공동선언실천 여성본부 총리회담 환영논평 "남북총리회담을 환영한다": 11월14일
-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 반대 논평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반대한다": 2008년 1월 7일

(2) "5.24 평화와 균속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워크숍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 일시 : 2007년 5월 22일(화) 오후 3시30분~6시30분

○ 장소 : 성가수녀원

○ 주최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주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발표

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평화: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

나. 여성이 만드는 평화, 여성이 지향하는 새로운 공동체: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 선언 초안 발표:

경정란 (정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전체도론

\* 전체도론 이후 각국에 전달한 여성의 입장선언을 작성.

### 3) 남북여성과 화해 및 협력

(1)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활동 지속 및 정책논의 활성화

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이하 6.15남측위 여성본부)

○ 참여 : 공동대표 김정수(1월~9월) -> 공동대표 조영희 (10월~12월)

공동집행위원장 경정란, 집행위원 김현희

#### ① 회의

- 대표자 및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4/6(금), 4/26(목), 5/9(수), 7/6(금),  
7/30(월), 10/23(화) 11/6(화), 12/5(수)

- 집행위원장단 회의 : 3/7(수), 4/5(목)

- 집행위 회의 : 2/21(수), 3/7(수), 8/8(수), 11/15(목)

- 2007년 1차 운영위원회(총회) : 3/23(금)

- 기타 : 4/17(화) 11:00 6.15남측위 여성본부 회계인수 모임

#### ② 남북여성대표자 모임

○ 일정 : 5월23일(수) ~ 5월26일(일)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

#### ○ 논의

가. 남북여성대표자모임 정리화

나. 남북여성통일행사 및 6.15 및 8.15 남북여성분과모임

다. 남북여성 각각의 여성 및 통일운동 공유

라. 기타

#### ○ 참가자명단 (남측)

성명	소속 및 직책
이명신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상임대표
김정수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
윤금순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
이문숙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
조순태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
류명화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정경란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손미희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희주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참가자명단 (북측)

성명	소속 및 직책
김경옥	6.15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 부위원장(여맹 부위원장)
리동희	6.15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 위원(여맹 선전부장)
김인옥	6.15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 위원(여맹 중앙위원)
박영희	6.15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 위원(민화협 여성부장)
곽결숙	6.15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 위원(여맹 과장)
박성숙	6.15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 위원(평안산원 부원장)
리산옥	6.15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 위원(조선카톨릭교 여성 회장)
리명순	6.15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 위원

- ④ 6.15공동선언발표 7월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약칭 : 6.15민족통일대축전)
- 기간 : 6월 14일~6월 17일(3박 4일)
  - 규모 : 남측민간대표단 300명, 북측민간대표단 300명, 해외측대표단 150명
  - 여성본부 참여 : 13명
  - 평화여성회 참여 : 김정수, 정경란, 여혜숙, 이나호, 조영희  
(\*자세한 프로그램은 평화여성회 연대사업 참조)
  - 행사이후 6.15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하여 6.15남측위에 여성본부의 입장전달 함

나. 평가

평화여성회는 6.15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의 사무국으로 남북여성교류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왔으며, 향후 남북여성교류의 질적 성장을 위해 남북여성사이의 협력사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성들이 통일과정에 대중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현실 방안을 찾아야 한다.

- (2) 6.15 남북위원회와 연대사업  
 공동대표: 김정수(1월-9월)  
 집행위원: 정경란

① 회의

-집행위원회: 1/9(화), 5/18

-정책기획위원회: 1/24

-총회: 3/5

-정파워크샵: 4/25

-조직강화특위: 5/10, 10/25, 12/26(여성분부 상임대표 대리 참석)

② 6.15 반쪽공동위원회의 위원장단회의

- 일시: 3월 9-10일      ○ 장소: 심양 철보산 호텔
- 참가자: 정경란

(3) 여성의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한 내부 모임 강화

가. "남북여성, 만남과 소통의 능력을 기르자"

- 여성 평화협상전문가 양성 훈련프로그램

◆ 강좌

○ 일정: 6월21일~8월2일 매주(목) 오후6시30분      ○장소: 평화여성회

○ 프로그램 :

- ① 여성, 남북만남의 과정에 왜,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  
 김정수(평화여성회상임대표) / 여혜숙(평화교육 전문강사)
- ② 북한, 만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전영선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 ③ 북한 여성, 우리가 꼭 알고 이해해야 할 점이 있다면?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양과 교수)
- ④ 동서독, 여성들은 통일과정에서 어떻게 만났나?  
 김은영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 ⑤ <특강>남북 정무간 협상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동조(통일연구원 원장, 전 통일부차관)

⑥ 남북 민간 만남의 경험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김창수 (민주평통 전문위원)

⑦ 남북여성의 만남: 기대와 이상, 현실,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는?

정경란 (6.15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 협상워크숍

○ 일정 : 9월 7일(금)~9월 9일(일)      ○ 장소 : 파주 흥원연수원

○ 프로그램 : 의사소통, 갈등분석, 갈등해결, 협상 및 중재 실습 등

#### 나. 평가

① 한반도평화센터와 갈등해결센터가 남북여성의 만남과 소통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성평화협상전문가 양성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강좌와 협상워크숍을 함께 병행한 점은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② 대회 강좌에 다양한 영역(여성활동가, 회원, 여성학 대학원생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20여명 내외로 참여하였으며 특강의 경우 약 30여명이 참여하였다.

③ 평화통일교육과 협상훈련의 최초의 걸음시도를 함, 즉 평화적인 소통방식을 통한 남북의 만남을 준비하기위해 강좌와 협상워크숍을 통해 훈련한 점은 향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상호이해와 상호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관용을 키워가는 교류를 열어가는 기반마련에 기여하였다.

#### (3) 기타

\* 대북수혜지원 활동 : 1,121,600원 (6.15남측위,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통해 지원)

#### 가. 평가

① 작년에 이어 대북수혜지원 활동에 평화여성회 회원들이 적극 참여함.

#### 4) '2008 여성 6자회담 실현을 위한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도대 구축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한국여성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린다.

- 4개국(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방문을 통하여 각국의 여성단체, 평화단체, 여성의원, 단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의 입장문서 전달함.

(2) 동북아지역회의 참가 -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관련 협조 요청 및 정보

- 정양 방문으로 참여하지 못함.

(3) 여성6자회담 성사를 위한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추진

① 국내네트워크

가. 자문위원단 구성

북한 : 김귀옥(한성대교수), 박순성(동국대교수), 신효숙(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윤덕희(명지대), 이금순(통일연구원), 이명자(북한영화 전문가), 이우영(북한대  
학원대학교), 이승환(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

일본 : 김지연(이대 사회과학연구소), 정미애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중국 : 최지영 (한림대 국제대학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정남(고대 평화연구소)

미국 : 박진영(카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구김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아시아 : 백준기(한신대 교수), 신효숙(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나. 회의 및 모임

㉠ 여성단체 네트워크-여연과 교회여성연합회와 모임

- 일시 : 2007년 4월 13일(금) 오전 10시 ○ 장소 : 평화여성회
- 참석 : 이문숙(교회여성연합회), 김은경(여성단체연합)  
김현희, 변숙진, 정경란(평화여성회)

㉡ 6자회담 개최를 위한 동북아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준비모임

- 일시 : 2007년 4월 27일(금) 오후 12시30분 ○ 장소 : 용수산
- 참석 : 김윤옥, 김정수, 심영희, 정경란

㉢ 여성6자회담 관련 내부 워크샵

- 일시: 2007년 5월 2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정현택 이사장 연구실
- 참석: 정현택, 이문숙, 김정수, 조영희, 정경란
- 내용: 여성6자회담의 목표/ 방문단 구성/ 여성입장문서/ 5월23일 워크샵 논의 등

다. 1차 워크숍 (" 자세한 내용: 상기 기술한 5.24 세계여성군축의 날 행사참조)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워크숍

- 일시: 2007년 5월 24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성가수녀원
- 주제: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각국 방문 여성 입장문서 초안 작성

㉣ 국제네트워크 추진 준비과정

가. 일본

㉠ 피스보드의 지원: 일본 여성단체와 여성의원에 관한 정보 제공

㉡ 일본코디네이터와 만남

- 일 시 : 5월 19일(토) 12시 ○장 소: 지리산
- 참가자: 정경란(평화여성회), 손명수(제일동포 활동가)

○내 용 : 일본 방문 코디네이터(손영수) 결정, 일본단체/ 국회의원/ 향후 사업관련 의견 교환

㉔ 일본 여성단체 및 여성의원 연락

- Feminist 의원 연맹-한국여성평화방문단 일본 방문지원 결정

나. 중국

㉕ 중국 여성단체, 여성전문가, 평화관련 단체 수집(연변대 김화선 교수 지원)

㉖ 중국부녀연맹 방문 공문 발송

㉗ People's Association for Peace and Disarmament 공문 발송 및 방문 일정 확정 : 6월 17일(일) 14시

㉘ 봉역자가 중국여성단체(반가평록역 네트워크, 북경홍콩부녀심리자문센터) 방문 섭외

다. 미국

미국 코디네이터와 단담

○일 시: 5월14일(월) 16시30분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참가자: 정경란(평화여성회), James Reilly(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East Asia Affairs)

○내용: 미국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미국 워싱턴지부 사무실에서 미국 여성단체와 여성의원 방문 관련 코디네이터하기로 결정

㉙ 각국 방문

가. 중국

○ 구성 : 심영희(평화여성회 부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경숙(국회의원),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김현희(평화여성회 사무국장)

ㄱ. 1차모임

○ 일시 : 6월26일(화) 14:00 ○ 장소 : 평화여성회

○ 참석 : 정경란, 심영희, 조영희, 김현희, 변숙진(평화여성회), 남윤인순, 최성미

○ 내용 : 중국정세 및 중국 현지로 현황에 대한 이해 공유

중국방문 프로그램 공유 등

ㄴ. 2차모임

○ 일시 : 7월11일 (수) 10:00 ○ 장소 : 평화여성회

○ 참석 : 심영희, 정경란, 김현희, 남윤인순, 이경숙

○ 내용 : 프로그램 점검, 단체소개 공유 등







○ 참석 : 조영희,한정숙,정경란,김지선,변숙진

○ 내용 : 여성평화방문단 러시아방문팀 점검회의

ㄷ. 러시아 방문(2007년 10월 24일-27일)

○ 방문 : 러시아 여성연합, 러시아평화재단, 수슬리나 교수, 병사의 어머니들

④ 2차 워크샵: 각국방문보고회 발표

○ 일시 : 12월 14일(금)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⑤ 기타

9/28(금)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여성6자회담 북한 여성지도자 제안용 작성

11/1(목)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여성6자회담 사업계획서 프로젝트 제출용 작성

11/5(월) Karin Lee(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와 만남, 전경련회관 지하 카페

11/6(화) 중국 부녀연맹 국제부장관 만남(여성부장관 주처 민관)

11/8 디나 케리암(Global Peace Initiative of Women)와 만남 리츠칼튼 호텔

ㄹ. 북한

남북여성교류를 통해서 3차례에 걸쳐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에 2008 여성6자회담계획을 설명하고 참여를 제안하였다.

(5) 평가

① 평화여성회가 주최한 '여성6자회담 실현을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 추진'과정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국내/국제적으로 동북아 평화형성과정에 여성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② 4개국 방문과정에 평화여성회가 아닌 여성단체들의 대표들(교회여성연합회, 여성단체연합, 대천여민회)이 참여하여 2008년 동북아평화를 위한 여성6자회담에 다른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였다.

③ 평화여성회 내부에서는 여성6자회담의 방향이나 실현을 자문해 주는 다수의 여성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6자회담을 준비하는데 기여하였다.

④ 국제적으로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를 방문하여 여성단체 지도자 및 여성의원을 만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2008년 여성6자회담 참여를 요청하여 동북아평화를 위한 여성네트를 위한 기초를 닦는데 기여하였다.

⑤ 4개국 여성들에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 여성의 입장문서를 전달하여 한국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⑥ 4개국 여성단체 및 여성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해 지

속적인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 ⑥ 추진과정에서 여성6자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각국 여성현실의 상이함, 과다한 업무량과 부족한 재정, 여성6자회담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구체적인 계획의 부족이 드러났다.
- ⑦ 국제연대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국제연대사업에 대한 전망 모색과 사업 및 담당자에 대한 지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 ⑧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자문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5) 행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서와 제안서를 작성한다.

- (1)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성인지적관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통일평화 부문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 발표 : 정경란      ○ 일시: 2007년 2월 22일(목) 오후 2시

○ 장소 : 단애연지오션터 2층

- (2) 평화여성회 11월호 웹진기고 “여성, 평화대통령을 기다리며,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평화통일 의제제안

#### (3) 평가

- ① 한반도평화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평화위원회와 논의 속에서 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고,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화통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 ② 평화여성회 내부에 이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

#### 6) 한반도평화센터 모임 경례화

- 운영위원회, 자문회의, 세미나 모임 등을 통해 진행함.

가. 평가 :

- ① 한반도평화체제 관련하여 상반기에 세미나를 적극 조직하여 내용을 축적해 갔지만 여성6자회담준비 업무의 집중으로 인해 계속하여 지속하지 못한. 향후 스티디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② 한반도평화센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반도평화센터 사업 관련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

#### 7) 기타

- (1) 아프간과 이라크에 있는 한국군 철수를 촉구하는 여성기차피켓전(국방부 앞)



- 발언 :

발언1 :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발언2 : 손금순 전국진보여성연대 상임대표

발언3 : 김경숙 한국기독교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평화통일부위원장

발언4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정현택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아프간 피랍자를 무사귀환을 위한 침묵의 시간

- ②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등 : 마르니에공원, 여성활동가대회, 기타 여러 집회에서 등(\*연대사업 참조)

## 5. 사업평가

###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하여 여성의 입장을 마련하는 활동을 전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세미나와 지문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2.13합의 및 남북 정상회담등 관련하여 논평을 발표하여 여성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2008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한 동북아여성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한반도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연대활동을 제안하였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 여성의 입장을 4개국 여성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많은 일을 수행해야 했으므로, 한반도평화체제 및 프로세스에 대한 여성의 구체적인 논의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다. 향후 실무역량을 보강하고 정책생산과 구체적인 여성 입장 마련 논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2) 남북여성과 화해 및 협력을 위한 활동을 전개

평화여성회는 6.15남측위 여성본부의 사무국으로서 남북여성대표자모임을 지원하고 특한 수혜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등 남북 사이에 화해 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제2차 정상회담이후 남북 정부와 기업의 활동 영역이 확대하면서 남북여성들 사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 3) 2008 여성6자회담 실현을 위한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토대구축을 위한 활동 전개

2008 여성6자회담 실현을 위한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추진을 위해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국내/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였다. 추진과정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실현과 글로벌 여성평화리더십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여성6자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각국 여성현실의 상이함, 과도한 업무량

과 부족한 재정, 여성6자회담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가 드러났다. 국제연대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국제연대사업에 대한 전망, 사업 및 담당자에 대한 지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4) **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며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의 입장을 제안하는 활동을 전개**

한반도평화센터 운영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논의를 통해 참여정부 정책을 평가하여, 정부와 여성단체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제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5) **여성단체들 사이에 평화/통일관련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수행**

평화여성회는 코디네이터로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군사연습 반대, 아프간에서 피압박국인 무사 귀환, 남북정상회담 환영,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 등과 관련한 입장을 여성단체들과 함께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조직하고 국제연대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평화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 여성들을 조직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가시화하였다.

6) **한반도평화센터의 논의 및 조직력 강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한반도평화센터가 실제역량에 비해 평화, 통일 관련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므로 센터 내부의 논의 및 조직 강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평화여성회와 한반도평화센터 사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갖고 실제적인 역량에 맞게 사업의 우선성을 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적인 문제, 실무역량의 부족, 평화여성회와 한반도평화센터/한반도평화센터 내부논의 부족, 현안에 따른 즉흥적인 대응에 따라 파다한 업무로 활동가들은 지치거나 운동의 자기 전망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 향후 활동가들이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망 논의와 함께 사업의 우선성을 고려하여 실제역량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안 및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

## 2-2 갈등해결센터

### ○ 구성 및 운영

- (1) 소장 : 박수선
- (2) 운영위원회 : 김선혜, 김학목, 김현희, 박수선, 박인혜, 박홍나미, 여혜숙, 이덕경, 이재영, 조영희
- (3) 청소년교육팀 : 여혜숙(팀장), 이덕경(서기), 김선혜, 김영진, 김지선, 박경옥, 박인혜, 박홍나미, 이현숙, 손희정, 문경아
- (4) 사회갈등분석팀 : 김선혜, 김지선, 김지훈, 명세진, 박수선, 박재근, 이경순, 이항진, 이현주, 이현주
- (5) 회합 조정팀 : 김선혜, 김지선, 박수선, 박인혜, 박홍나미, 서정기, 여혜숙, 이재영, 조영희
- (6) 연구원 : 김학목, 이재영, 서정기

### ○ 회의

- (1) 운영위원회 : 격월 1회
- (2) 청소년교육팀 회의 : 매월 1회
- (3) 사회갈등분석팀 회의 : 격주 1회
- (4) 회합 조정팀 : 수시
- (5) 연구원 : 수시

### 1. 사업목표

- 1)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 조직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 2)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3)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4) 갈등해결센터의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회원 확보에 힘쓴다.
- 5) 사회갈등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기반을 넓힌다.
- 6) 평화적 갈등해결 영역에서 일하는 평화활동가들과의 연대 형성에 노력한다.

### \*조직운영의 기본 방향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평화적 갈등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평화여성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팀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는 관심영역에 따라 청소년교육, 사회갈등분석 등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제기되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과제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의 각 팀장은 팀의 성원을 관리하고 운영과 사업을 총괄한다.
- 갈등해결센터는 정기적인(격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갈등해결센터의 사업전반을 논의, 결정한다.
-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각 팀장, 본부 사무책임자 등의 당연직 운영위원과 각 팀별 1인을 포함하는 일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갈등해결센터는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월례회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재교육 등을 수행한다.
-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1년 3회 이상 월례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사업 계획

### 1) 대상별 주요 교육 사업

#### (1)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다양한 형태의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을 기획, 진행한다.

#### (2)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조정 훈련

-지역갈등, 사회갈등의 중심이 된 지역 중심으로 NGO활동가 및 여론주도층 대상으로 갈등의 평화적 해결,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3)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

##### ① 초중고생 대상 갈등해결교육을 확대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대상, 기간, 내용, 방식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움직이는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 운영

-움직이는 학교 형식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공부방, 방과후교실 교육

-학교별 심화반으로 '청소년 평화지킴이(가정)' 훈련 프로그램 개발

② 청소년평화리더십캠프 운영: 연중 정기 캠프 개최, 기초와 심화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 ③ 학부모 교육



④ 기타: 간부수련회, 수련관, 일반인 대상, 다양한 리더십 등을 모색한다.

#### (4) 대학생 갈등해결과 평화 캠프

- 청년희원 및 평화활동가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 (5) 가족갈등을 주제로 한 교육 및 활동

- 부모자녀캠프, 예비부부, 신혼부부 대상 교육프로그램, 엄마아빠캠프 등 대상별, 세대 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가족구성원간 갈등에 대해 연구 분석 및 대화 프로그램을 개발 모색한다.(가족갈등소 모임 구성 등)

#### (6) '갈등해결과 평화' 기본과정

##### <기초단계>

- 평화적 갈등해결의 이론 및 방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2막 3일 워크숍 진행)

- 내용: 전체 교육프로그램 소개, Community Building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기초적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프로그램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본다.(평화, 갈등해결교육의 의미 및 현재와 미래,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중재, 창조적 문제풀기, 대화, 의사소통 등)

- 기초단계는 분기별로 진행한다.

##### <심화단계>

- 기초에서 전반적인 틀에 대해 이해한 것을 각 부분마다 심화 학습 및 훈련

- 주 2회 3시간씩 10강과, 총 30시간

#### (7) 갈등해결과 평화 전문가 과정

##### <제5기 강사 트레이닝>

①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약 42시간

② 참여 자격: 기본과정 수료자

③ 내용: 청소년 대상의 진행자로서 진행 실습 및 평가, 교안 만들기, 참관 실습

##### <조정전문가(mediator) 훈련과정>

①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약 42시간

- ② 참여 자격: 기본과정 수료자
- ③ 내용: 개인간 갈등, 공공갈등 조정 실습

**<진행전문가(Facilitator) 훈련과정>**

- ①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약 42시간
- ② 참여 자격: 기본과정 수료자
- ③ 내용: 회의진행, 의사결정, 문제해결워크숍 진행 기술과 방법 훈련

**2) 평화적 갈등해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 (1) 각 프로그램별 자료 정리, 소책자 발간: 그간 진행되었던 교육사업 및 내용들을 자료화하여 소책자를 발간한다. 내용적인 홍보, 선전의 역할과 함께 재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분야별 소책자 발간계획-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 청소년교육 대뉴업, 갈등해결기초 등등)
- (2) 영상자료 개발: 효과적 교육을 위해 영상을 이용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 (3) 교육과정 및 활동을 정리한 센터 소개 브로셔 제작.

**3) 제도적 접근을 위한 사업**

- (1) 학교내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제도화 노력
- (2) 국내의 청소년 평화문화 소개 및 교류

**4) 프로그램 연구, 개발**

- (1) 청소년교육 관련 교안 연구 :
  - 초/중/고 대상별 세분화된 교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교안집을 정식출간
  - 교구개발 : 워크북, 동영상, 교재도구
  - 프로그램 개발
  - 평가척도 연구
  - 내부교재 : 교육방법론, 시나리오, 워크시트 등
- (2) 사회갈등사례 연구:
  - 갈등사례 발굴, 심층 분석(과제로 진행)

- 갈등해결센터 교육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사회갈등사례 시나리오 작업
- 기 개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단계별 체크포인트 또는 문제요인 정리
- 웹진, 홈페이지 등에 사회갈등사례 분석내용 소개 및 갈등 관련 서적 서평 등
- 외부 기관의 논문 공모에 응모(1월 KDI 등)

(3) 통일교육 및 한반도 평화형성을 위한 과제에 갈등해결적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 5) 조직 강화 및 확대

- 그간 교육참가자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
- 회원 재교육/윌레희
  - 윌레희의 질적 강화, 외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 진행자들의 재교육과 훈련 확대 지원
- 전문강사풀 형성, 강화
  - 청소년교육뿐 아니라 일반 주부 대상, 공무원 대상 등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풀을 형성하고, 각 대상별 교육 내용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함

### 6) 갈등해결을 위한 직접적 개입 활동

- 3차역할로서 실제적인 갈등 상황에 3자로 개입할 수 있는 방식과 모델을 연구, 시범적으로 적용한다.(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조정, 사회갈등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접근 모델)

### 7) 국제연대

국제비폭력평화세력(Nonviolent Peace Force International),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NVC) 등 갈등예방, 해결 관련 국제단체와의 연대

## 3. 사업 내용

### ○ 회의 및 모임

#### 1) 회원 MT

- (1) 일정: 8월 10-11일, 신록사
- (2) 참석: 연구원 김학목, 이재영, 청소년교육팀 여혜순, 박인혜, 김영진, 이덕경, 박홍나

미, 손희경, 이현숙, 사회갈등분석팀 박재근, 김선혜, 명세진, 이원주, 이항진, 그 외  
조영희, 김지선, 김영지, 정태효, 박수선

## 2) 운영위원회

- (1) 1차: 1월 29일(화) 오후 8시-10시 '갈등해결과 평화' 기본과정 세부내용 논의, 단행본  
집필 관련 논의
- (2) 2차: 3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 갈등해결과 평화 전문가과정 등 논의
- (3) 3차: 5월 18일(금) 8시, 조정전문가훈련프로그램 기획 등 논의
- (4) 4차: 7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10시 30분, 참가포레이닝, 조정전문가과정, 세대공감  
캠프 평가, 여성형상전문가양성과정, 지역전문가과정 기획, 실무사와 함께 하는 평화  
학교, 공공갈등예방과해결을 위한 규정에서의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지원의 건 등
- (5) 5차: 9월 21일(금) 오후 7시 30분-10시 30분,
- (6) 6차: 11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 2007년 사업평가 논의
- (7) 7차: 12월 12일(수) 오후 7시 30분, 2008년 사업계획 논의
- (8) 8차: 12월 28일(금) 오후 7시30분-29일(토) 11시,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비전세우  
기 및 2007년 세부사업계획 논의

## 3) 청소년교육팀

(팀장: 여혜숙 팀원: 김경진, 김지선, 문경아, 박경옥, 박인혜, 박홍나미, 안향숙, 이덕경,  
이현숙)

- (1) 1차: 1월 29일(월) 오후 4-7시 1년 사업계획 세부내용 논의
- (2) 2차: 3월 9일(금) 오후 7시-10시 세대공감캠프, 학교수업관련 논의
- (3)
- (4) 4차: 6월 2일(금) 늦은 5시30분, 움직이는 공부방 교안검토 및 격함 나누기/보  
조진행자의 역할/학교, 공부방등 교육상당을 하면서의 어려움나누기/움직이  
는 공부방을 위한 공부모임/세대공감캠프의 대교방송취재건/청소년캠프 계  
획안 검토 및 감사진 구성
- (5) 5차 회의: 8월 22일(수) 늦은 7시30분, 움직이는 공부방 진행상황 평가, 공부모  
임의 필요성 및 계획
- (6) 6차: 10월 11일 늦은 7시30분, 움직이는 공부방 평가 - 일정과 내용, 교안과 진행일  
지, 관련일지 검토, 평가 / 2007년 청소년교육팀 평가표
- (7) 7차: 11월 7일 늦은 7시30, 2007년 청소년 교육팀 사업내용 평가-청소년 대상교육,  
다양한 캠프 진행, 교안연구 및 발간, 팀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부모임 등
- (8) 8차:

#### 4) 사회갈등분석팀

(팀원: 김선혜, 김지선, 김지훈, 명세진, 박재근, 이정순, 이항진, 이현주, 이현주, 박수선)

- (1) 1차: 1월 20일(토) 오전 11시-오후 1시, 사회갈등분석팀 활동 방향 및 내용 논의
- (2) 2차: 2월 2일(금) 오후 7시 30분-10시, 예코피서리더십프로그램 참가 관련 논의 및 학습
- (3) 3차: 2월 10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예코피서리더십프로그램 참가신청서 내용 논의
- (4) 4차: 3월 2일(금) 오후 7시-10시 갈등조정 의 미학, Reconciliation the building of relationship 학습
- (5) 5차: 3월 17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여주지역 갈등관련 논의 및 학습(박재근, 김선혜, 김지선, 이항진, 이현주, 박수선 참석)
- (6) 6차: 4월 5일(목) 오후 7시 30분-10시,
- (7) 7차: 4월 21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여주지역 갈등관련 논의 및 학습
- (8) 8차: 5월 11일(금) 오후 7시-10시, 여주지역 갈등관련 논의 및 학습
- (9) 9차: 6월 2일(토) 오후 2시-5시, 예코리더십센터와 행사부 프로젝트 건 진행방식, 설문문항 검토 및 수정
- (10) 10차: 6월 8일(금) 오전 11시, 가남면 송림리 주민 면담
- (11) 11차: 8월 11일 오후 1시, 그간 여주 대화 프로젝트 진행 상황, 이후 계획, 박재근 팀장의 영국 유학으로 인한 새 팀장 선출-김선혜
- (12) 12차: 9월 27일, 찬성주민 면담 결과보고, 설문 등 향후 활동방향 논의
- (13) 13차: 10월 4일, 여주 갈등분석, 학습(Dialogue의 개념과 과정)
- (14) 14차: 10월 25일, 송림리 대화모임 설계, 설문지 검토 및 확정
- (15) 15차: 11월 16일(목), 송림리 대화모임 진행 경과보고, 2007 활동평가, 이후 학습 계획
- (16) 16차: 12월 15일(토) 오후 7시, 2008 활동 및 학습 계획
- (17) 17차: 12월 26일(수) 오후 11시, 2008년 활동 및 학습 세부계획

#### 5) 조정진행 후속모임(월 1회)

- (1) 1차: 1월 20일 오후 1시~7시, 문화시 쓰레기매립장 주제로 공공갈등 조정 실습(김선혜(모임장), 김영진, 박인혜, 박홍나미, 심정권, 윤수경, 정혜란, 박수선 참석)
- (2) 2차: 2월 10일 오후 2시~7시, 개인간 갈등조정 사례 실습(김선혜, 김영진, 김지선, 박인혜, 박수선, 박홍나미, 심정권, 이선화, 이항진, 윤수경, 조영희 참석)
- (3) 3차: 3월 17일 오후 2시~7시 30분, 개인간 갈등조정 사례 실습(김선혜, 김영진, 김지선, 박인혜, 박수선, 박홍나미, 강영실, 김유라, 이항진, 여혜숙 참석)

6) 브로셔 기획회의

- (1) 1차: 2월 9일(금) 오후 7시 30분-9시 30분, 김동해결센터 브로셔 내용 기획(김학묵, 김영지, 박수선, 이현주 참석)
- (2) 2차: 3월 8일(목) 오후 7시 30분-9시 30분, 브로셔 내용 검토(김학묵, 김영지, 박수선 참석)

7) 회복적 사범 회합 조정팀 회의 및 활동

(팀원: 김지선, 박수선, 박인혜, 박홍나미, 이재영, 이항진, 여혜숙, 조영희, 서정기)

- (1) 1차 회의: 5월 11일(금) 오전 10시, 회합 준비
  - (2) 2차 회의: 5월 14일(월) 오전 8시 30분, 회복적 사범 이해, 조정 및 회합 준비
  - (3) 3차 회의: 7월 7일 오전 11시~1시-진행사항 보고 및 업무 분장
- 13개 경찰서 업무분장:  
중부, 중도, 은평, 서부(박수선), 남대문, 영등포, 동작(조영희), 혜화, 성북, 성동(여혜숙), 서초, 방배, 수서(이재영)
- (4) 4차 회의: 10월 10일 6시~9시, 형사정책연구원 브로셔 작성을 위한 목차 및 내용 논의
  - (5) 5차 회의: 11월 12일(월) 오후 6시~11시, 회합 조정 평가

○ 대상별 주요 교육 사업

1)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 (1) 이우학교 교사대상 연수 '갈등해결과 미래조정'(23시간)  
일시: 2월 5~7일  
진행 참가: 김선혜, 박수선, 여혜숙, 조영희
- (2) 서울시 교육청 주최 학생부장 교사 대상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조정자훈련' 연수(30시간)  
일시: 8월 6일~10일  
진행 참가: 이재영, 박수선
- (3) 중앙중학교 교사 대상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갈등해결교육' (8시간)  
일시: 11월 5~26일(매회 2시간, 4회)  
진행 참가: 박수선
- (4) 서울시 교육청 주최, 진한친구교실 연수에서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소개

일시:10월 25일

진행 참가: 박수선

- (5) 충북단체교육연수원 주최, 교장대상 협상, 갈등관리과정  
일시: 9월 11, 18일, 진행 참가: 박수선
- (6) 전교조 초등 남부지회 교사연수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3시간)  
일시: 1월 4일, 진행 참가: 여혜숙
- (7) 청소년연명 주최, 교사연수 '학생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2시간)  
일시: 8월 15일, 진행 참가: 여혜숙
- (8) 역촌초등학교 교사 교육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2시간 30분)  
일시: 6월 13일, 진행 참가: 박인혜
- (9) 독산초등학교 교사 교육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2시간)  
일시:11월 14일, 진행 참가: 여혜숙

## 2)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조정 훈련

- (1) YWCA 사무총장 대상 조직운영을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일시: 5월 21, 22일(12시간)
- (2) 광명 강사드레이닝 심화과정  
일시: 4월 26일-5월 31일(2시간 5회)
- (3) 부산YWCA 전직원 대상 갈등해결 연수  
일시: 8월 13-14일(8시간)
- (4) 충북여성민우회 주최, 갈등해결 강사드레이닝  
일시: 8월 31-9월2일(18시간)
- (5) 군포,안양의제21 주최, 갈등해결과 조정 워크숍  
일시: 11월 30, 12월 1일(1박2일)
- (6) 홍사단 주최, '통일교육 지도자 과정'  
일시: 8월 25일, 9월 29일, 2시간씩 2회

## 3)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

- (1) 초,중,고 제발활동
  - 초등: 연지초 /1교시, 17회 (김영진, 여혜숙), 두산초/ 1교시, 20회(윤경아, 박경옥, 박인혜)
  - 중등: 방화중 /3교시, 9회 ( 박홍나미, 이덕경 )
  - 고등: 금옥여고/ 2교시, 7회 (김선혜, 이현주)

(2) 특별예방차원의 교육

- 중원중 /2교시, 4회 (박인혜, 여혜숙)
- 수송중 /60분, 7회 (박인혜)
- 개웅중/40분, 10회 (박인혜, 이덕경)
- 용봉초 방과후/60분, 8회 (박인혜)
- 용봉초 6-2/ 2교시, 8회 (박인혜, 여혜숙)
- 문성중 /100분, 8회(박인혜)
- 상봉중/ 2교시 (박인혜)

(3)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 관악경찰서 의뢰, 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 2시간, 3회 (여혜숙)
- 부곡정보산업고등학교/ 3교시, 5차 진행 (여혜숙, 김영진, 이덕경)

(4) 움직이는 학교 형식

- 안산부곡중/ 2교시, 2회 (박경옥, 박인혜)
- 국악예고/ 2교시, 6개반(김선혜, 김영진, 박경옥, 박인혜, 이덕경, 김지선, 문경아, 이현숙)

(5) 공부방

- 푸른꿈 공부방/ 90분, 13회 (여혜숙, 이덕경)
- 고양문원복지관 공부방/ 60분, 4회 (박홍나미)
- 삼산해요름 공부방/ 60분, 8회 (초등: 김영진-문경아, 중등: 여혜숙-김지선)

(6) 움직이는 공부방

- 나들목 공부방/ 90분, 5회 (박홍나미-김지선, 박무열)
- 새벽 공부방/ 90분, 8회 (박경옥-문경아, 박무열)
- 광명 만남의 집/ 90분, 8회 (이덕경-문경아)
- 파랑새 공부방/ 90분, 8회 (박경옥-문경아)
- 푸른꿈 공부방/ 90분, 8회 (여혜숙-이현숙)
- 해안 초록 공부방/ 90분, 8회 (박홍나미-김지선, 김선혜)
- 삼산 공부방/ 90분, 8회 (박인혜-손희정, 이현숙)
- 어깨동무 공부방/ 90분, 8회 (이덕경, 서정기)
- 우리들 공부방/ 90분, 8회 (박인혜- 이현숙)

(7) 캠프

- 청소년 평화 리더십 캠프

- ① 일시: 7월 27일- 29일 (2박3일)
- ② 장소: 봉도청소년수련관
- ③ 대상: 중학생 김경민 외 24명



④ 진행 참여: 김영진, 박인혜, 박홍나미, 여혜숙, 이덕경, 손희경, 이미숙

일자	시간	내용
7/27 (금)	12:00~15:00	여는 마당
	15:00~17:00	함께 배우는 평화 필화기념주 관점
	17:00~18:00	갈등이란 무엇일까? 갈등이해, 개념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갈등은 왜 생길까? 갈등원인, 갈등분석
	21:00~22:30	다같이 놀자~^^^ 공동체놀이 (or 자유시간)
7/28 (토)	8:00~9:00	아침식사
	9:00~12:00	어떻게 생각과 마음을 나눌까? 의사소통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자연에서 놀자!
	15:00~16:00	휴식
	16:00~18:00	도래조정이란? 도래 조정의 개념, 단계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어떻게 의견을 모을까? 의사결정방법 배우기
	21:00~22:30	자유시간
7/29 (일)	8:00~9:00	아침식사
	9:00~12:00	도래조정, 자 해보자! 도래조정실습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활동모음 돌아보기, 마무리 활동

(8) 기타

- 신명중 / 3교시, 11개반 (김영진, 김지선, 박정옥, 박인혜, 박홍나미, 안향숙, 여혜숙, 이덕경, 이성옥, 이항진, 조영희)
- 안산외국인센터 코시안의 집 캠프/ 5시간, 세 반으로 진행 (박인혜, 박홍나미, 여혜숙, 이덕경)
- 인천공부방연합회 중공부 캠프/7월 26일, 3시간, 네 반으로 진행 (김영진, 박정옥, 여혜숙, 이덕경)
- 관암복지관 초등조정교육/ 7시간 (여혜숙, 김지선)
- 상봉중 '통일을 준비하는 갈등해결' /12월 1일, 1교시 (여혜숙)
- 고양 교육모임 청소년캠프 /8월 15 -16일, 10시간 (박인혜, 박홍나미, 여혜숙)

- 기독교장로회연합 중,고등부 캠프 '평화교육' / 8월 1일, 1시간 30분 (여혜숙)
- 흥사단 청소년 교육/서울, 인천, 대전, 경주, 2시간씩 (여혜숙)
- NCC 한·일 교류 프로그램 / 8월 1일, 2시간 (박인혜)
-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비장애형제 캠프' / 8월 2일, 3시간(여혜숙)

#### 4) 대학생 갈등해결과 평화 캠프

진행 못함

#### 5) 가족갈등을 주제로 한 교육 및 활동

- 세대공감, 부모 자녀 캠프
  - ① 일시: 6월 30일- 7월 1일 (1박2일)
  - ② 장소: 봉도청소년수련관
  - ③ 대상: 김동민 가족 외 9가족 ( 21명)
  - ④ 진행 참여: 김영진, 박인혜, 박홍나미, 여혜숙, 이덕경
- 용인 YMCA 가족캠프 ' 갈등해결과 평화' / 5시간 (박인혜, 여혜숙)

#### 6) '갈등해결과 평화' 기본과정

- 대상: 김선광 등 24명 참석.
- 기본과정 기초단계: 기초-평화적 갈등해결의 이론 및 방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2막 3일 워크숍 진행)

기초 프로그램 개요	○ 일자 : 2007년 2월 23(금) - 25(일)		
	○ 장소 : 수유리 통일교육원		
	○ 내용 : 전체 교육프로그램 소개, Community Building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기초적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프로그램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본다.		
구분	시간	강의명	진행자
2월 23일 (금)	14:00 -16:00	1강 갈등해결과 평화 입문 -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박수선
	16:00 -18:00	2강 갈등해결 이해하기 1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이재영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0:00	3강 갈등해결 이해하기 2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이재영

		4강 갈등분석1 20:00 - 21:30 - 분석을 왜 하는가? 다양한 분석방법 이해 갈등분석 실습	이혜숙
2월 24일 (토)	09:00 -09:30	어제 프로그램 평가	이현주
	09:30 -12:00	4강 갈등분석 2 - 갈등분석 실습	조영희
	12:00 - 3:00	점심식사	
	13:00 -16:00	5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1 - 대화(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 기초	조영희
	16:00 -18:00	6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2 - Problem Solving, 의사결정 방법	이혜숙
	18:00 -19:00	저녁식사	
2월 25일 (일)	09:00 -12:00	7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3 - 조정(mediation)의 원칙, 조정자의 역할	이혜숙
	12:00 -13:00	점심식사	
	13:00- 15:00	8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4 - 조정 기술, 조정의 과정 및 단계	박수선
	15:00- 16:00	9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5 - 조정실습	박수선
		전체 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프로그램 평가	박수선

- 기본과정 심화단계: 심화-기초에서 전반적인 틀에 대해 이해한 것을 각 부분마다 심화 학습 및 훈련

심화 프로그램 개요	○ 일자 및 회수 : 2007년 3월 5(월) - 4월 4일(수) 오후6시 30분 - 9시 30분, 매회3시간씩 주 2회 10회 ○ 장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교육장(4호선 삼성역대역 근처)		
구분	주제	내용	
1차 3/5(월)	갈등해결의 법, 제도 이해	갈등해결 관련 법과 제도의 외국 사례와 우리 사회의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 모색을 살펴본다.	
2차 3/7(수)	갈등 원인 분석의 여러 방법	갈등해결의 첫 과정인 분석에 대해 심화한다. 사례를 가지고 분석과 전략세우기에 대해 실습한다.	

3차	3/12(월)	갈등해결의 방법-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다양한 의사결정방법, 상황과 내용에 맞는 효과적인 의사결정방법을 익힌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창의적 대안능력을 키운다.	조영희
4차	3/14(수)	의사소통기법1/듣기와 말하기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효과적인 듣기와 말하기 방법을 훈련한다.	여혜숙 박인혜
5차	3/19(월)	의사소통기법2/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 실습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말하는 법'을 훈련한다.	여혜숙 박인혜
6차	3/21(수)	분노조절	화가 나는 이유, 화가 났을 때의 행동 등을 객관화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배우고, 모색해본다.	조영희 박인혜
7차	3/26(월)	편견 다루기	서로 다른 차이가 고정관념, 편견 등을 통해 차별화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편견과 강한 감정을 다루는 법을 훈련한다.	박인혜
8차	3/28(수)	갈등해결의 방법-협상	협상의 원칙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자신의 목표, 타인의 목표를 이해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협동적 협상을 배운다.	박수선
9차	4/2(월)	갈등해결의 방법-조정	조정 원칙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박수선
10차	4/4(수)	관계의 회복/회해와 치유	문제해결뿐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근본적 치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비폭력적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	이지영

7) 갈등해결과 평화 전문가 과정

<제5기 강사 트레이닝>

- (1)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약 42시간
- (2) 참여 자격: 기본과정 수료자
- (3) 내용: 청소년 대상의 진행자로서 진행 실습 및 평가, 교안 만들기, 참관 실습
- (4) 일시: 4월 9일-5월 26일
- (5) 참석: 김희경 외 13명 참석, 총 11명 수료
- (6) 세부 내용

강사트레이닝	○ 일자 : 2007년 4월 9(월) - 5월 26(토) 오후6시 30분 - 9시, 토요일
--------	--

프로그램 개요		1시·7시 ○ 장소 : 평화로만드는이성희 교육장	
구분		주제	내용
1차	4/9(월)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평화교육의 한 내용으로서의 갈등해결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한다.
2차	4/11(수)	갈등해결과교육 진행 방법론	평화의 가치, 기술, 태도의 내용을 함양시키는 평화, 갈등해결 교육의 교육방법론에 대해 이해한다. 진행되었던 갈등해결 교육의 사례를 듣는다.
3차	4/16(월)	어린이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과 교육 프로그램 디자인과 진행방법	“갈등해결과 평화” 수업의 전석 프로그램을 디자인해 보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원칙 등을 검토한다.
4차	4월 18일	실습워크숍	활동배우기 1 쉬어가는 활동, 갈등해결 관점,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 등
5차	4월 23일	수업 참관	활동배우기 2 쉬어가는 활동, 갈등해결 관점,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 등
6차		수업 참관	
7, 8차	4/28(토)	실습워크숍	수업교안 만들기 및 시연 : 그동안 배운 내용을 기초로 수업의 구체적 교안을 만들고, 프리젠테이션 실습을 통해 평가, 수업 진행능력을 높인다.
9,10차	5/12(토)	실습워크숍	
11,12차	5/19(토)	실습워크숍	
13차	5/26(토)	실습워크숍	
14차	5/26(토)	수료식	

#### <조정전문가(mediator) 훈련과정>

- (1)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약 42시간(1박2일 워크숍, 6시간 강좌 4회)
- (2) 참여 자격: 기본과정 수료자
- (3) 내용: 개인간 갈등, 공공갈등 조정 실습
- (4) 일시: 6월 9일-7월 7일
- (5) 참석: 김경미 외 20명 수료. 총 참석자 28명

(6) 장소: 신록사수련원, 성령선교수녀회

(7) 세부 내용

(기초)

구분		주제 및 내용
1차 6월 16일 (토)	13:00- 15:00	조정기술 연습/사람을 다루는 기술, 문제해결기술
	15:00 - 17:00	개인간 조정실습 1
	17:00 - 19:00	개인간 조정실습 2
2차 6월 23일 (토)	13:00- 15:00	공공(집단)갈등의 역학, 특성
	15:00 - 17:00	공공(집단)갈등 조정 단계 이해
	17:00 - 19:00	공공(집단)갈등 조정 실습
3차 6월 30일 (토)	13:00- 15:00	공공(집단)갈등 조정 실습 1
	15:00 - 17:00	조정 진행과정별 평가 및 조정기술 연습
	17:00 - 19:00	조정실습 2
4차 7월 7일 (토)	13:00- 15:00	조정실습
	15:00 - 17:00	한국사회 적용 모색, 참여자 모듬별 토론, 발표
	17:00 - 19:00	평가와 전망, 수료식

(심화)

구분	시간	강의명
6월 9일 (토)	10:00 - 12:00	1강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조정 이해 - 한국사회의 평화적 갈등해결, 조정의 필요성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2강 조정 실습1
	15:00 - 18:00	3강 조정 단계1/준비단계, 도입, 입장나누기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30	4강 조정 단계/쟁점규명, 문제풀기, 합의, 평가
6월 10일 (일)	- 08:50	아침식사, 산책, 명상
	09:00 -11:00	5강 조정실습2
	11:00 - 12:00	6강 조정기술/바뀌말하기, 질문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7강 조정실습 3
15:00 - 18:00	8강 조정실습 4
18:00 - 18:30	전체 평가 및 계획

**<진행전문가(Facilitator) 훈련과정>**

- (1)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약 42시간(1박2일 워크숍, 6시간 강좌 4회)
- (2) 참여 자격: 기본과정 수료자
- (3) 내용: 회의진행, 의사결정, 문제해결워크숍 진행 기술과 방법 훈련
- (4) 일시: 9월 15-10월 20일
- (5) 참석: 김정미 외 21명 수료
- (6) 장소: 흥원연수원, 성령선교수녀회
- (7) 세부 내용  
(기초)

구분	시간	강의명
9월 15일 (토)	14:00 - 15:00	1강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15:00 - 16:00	2강 왜 진행인가? - 조직과 진행, 진행(facilitation)의 필요성
	16:00 - 18:00	3강 진행 이해-진행의 절차와 단계, 진행자의 역할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2:00	4강 진행 설계-진행의 기초 세우기
9월 16일 (일)	09:00 - 11:00	5강 진행 기술 1 - 의사소통 기술
	11:00 - 12:00	6강 진행 기술 2 - 의견 모으기 도구들 1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6강 진행 기술 2- 의견 모으기 도구들 2
	14:00 - 16:00	7강 진행 기술 3 - 의사결정 도구들
	16:00 - 18:00	8강 진행실습
	18:00 - 18:30	전체 평가 및 계획

(심화)

구분		주제 및 내용
9월 29일 (토)	13:00~15:00	1강 진행 실습 1/조직내 의사결정과정
	15:00~17:00	2강 난관에 부딪혔을 때 진행자의 역할과 기법
	17:00~19:00	3강 진행 실습 2/난관을 극복하기
10월 6일 (토)	13:00~15:00	1강 갈등해결과정에서의 진행, 다양한 구조
	15:00~17:00	2강 진행 실습 3/갈등해결과정에서의 진행
	17:00~19:00	3강 진행 실습 4/갈등해결과정에서의 진행
10월 13일 (토)	13:00~15:00	1강 진행 실습 5/대규모 참여자 회의 의견모으기
	15:00~17:00	2강 진행 실습 6/ 대규모 참여자 회의 의사결정
	17:00~19:00	3강 집단 역학과 진행
10월 20일 (토)	13:00~15:00	1강 한국사회에서의 진행의 적용 모색
	15:00~17:00	2강 진행 실습 7
	17:00~19:00	3강 평가와 전망, 수료식

#### 8) 기초워크숍

(1) 1차

- 일시: 4월 13-14일(1박2일)

- 참석: 김낙준 외 13명

(2) 2차

- 일시: 12월 8-9일(1박2일)

- 참석: 김은경 외 27명

구분	시간	강의명
첫째날	10:00 - 11:00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11:00 - 12:00	1강 갈등해결 이해하기1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1강 갈등해결 이해하기2-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15:00 - 17:00	2강 갈등분석 - 분석을 왜 하는가? 다양한 분석방법 이해 갈등분석 실습



	17:00 - 18:00	3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1 대화(의사소통) 1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3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1 대화(의사소통) 2
둘째날	09:00 - 11:00	5강 갈등해결방법 배우기 2 - 아이디어모으기, 의사결정 방법
	11:00 - 12:00	6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3 - 조정이란? 조정 원칙과 과정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7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4 조정자의 역할, 조정 기술
	15:00 - 18:00	8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5 조정 단계, 조정 실습
	18:00 - 18:30	전체 평가 및 계획

#### 9) 학부모 교육

- (1) 의왕시 지역부모 교육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 3시간, 진행: 여혜숙
- (2) 종산초 학부모 교육 / 2시간, 진행: 여혜숙
- (3) 삼풍초 교사, 학부모 교육 / 2시간, 진행: 여혜숙

#### ○ 평화적 갈등해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지속사업으로 진행중임. 2007년에는 특별히 새로 제작된 것은 없으나, 청소년교육교안집을 재발간했으며, 다른 소재자는 2008년에도 사업으로 진행할 것임.

#### ○ 제도적 접근을 위한 사업

- 1) 학교내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제도화 노력
- 2) 국내외 청소년 평화문화 소개 및 교류

#### ○ 프로그램 연구, 개발

- 1) 청소년교육 관련 교안 연구 :
- 2) 사회갈등사례 연구:

2007년에는 성과물로 축적된 것은 뚜렷이 없으나 팀의 구성원을 보장하고, 제안된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2008년도에도 지속될 것임.

3) 통일교육 및 한반도 평화형성을 위한 과제에 갈등해결적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1) 통일교육원 교육 참여

- ① 성인 대상: 공무원, 통일관련단체 활동가, 교사 등 참여하는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에 '남북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훈련'이라는 주제로 1시간 30분 강좌에 다수 참여(박수선, 조영희, 이혜숙)
- ②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원 주최 통일페스티벌 '평화,통일교육' 6월 7-9일, 5시간의 연인원 1000여 명 대상 (이혜숙, 조영희)
- ③ 통일교육원 미래지도자과정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기획, 진행
  - 일정: 11월 21-23일(2박3일)
  - 대상: 공무원 등 30명 (김선희, 박수선, 이혜숙, 이재영, 조영희)
  - 내용

일시		주제	세부 내용
월일	시간		
11월 21일 (수)	13:30-14:20	내가 원하는 통일 세상	워크숍에 대한 기대 나누기, 통일미래의 비전 그리기
	14:30-15:50	평화적 갈등해결 기초 1	사회통합과 갈등해결
	16:00-17:00	평화적 갈등해결 기초 2	화합형 리더십의 요건
	17:10-18:00	조정 이해	리더십과 조정(mediation), 조정의 원칙
	18:00-19:30		저녁식사
	19:30-		갈등해결 경험나누기/Night Program
11월 22일 (목)	07:00-09:00		아침식사
	09:00-11:00	조정기술 1	조정자의 임무, 기술 -의사소통 기술 신뢰를 형성하는 듣기, 정보를 모으는 듣기, 중립적으로 재구성하기
	11:10-12:00	조정기술 2	-문제해결 기술

			입장에서 실익으로, 태도에서 맥락으로 분석
	12:00-13:30	점심식사	
	13:30-14:30	조정기술3	-문제해결 기술 창의적 상생적 아이디어 모으기 핵심적 기준을 적용하기
	14:40-16:50	조정실습	조정의 6단계, 과정별 초점 시나리오 실습
	17:00-17:30	평가와 전망	사회통합을 위한 리더로서의 적용과제
	18:00-19:30	저녁식사	
	19:30-	간담회/Night Program	
11월	07:00-09:00	아침식사	
23일	09:00-10:00		평가
(금)	10:00-	해산/서울로	

(2)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연구작업 참여

- ①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국민 평화 교육 실시방안연구' 참여(김신혜, 김학목, 박수선, 조영희)
- (3) 여성평화협상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워크숍 2박3일 진행)
  - ① 일시: 9월7일(금)-9월9일(일)
  - ② 장소: 파주 흥원연수원
  - ③ 대상: 김홍석 외 24명
  - ④ 진행 참여: 박수선, 박인혜, 이재영, 조영희

○ 조직 강화 및 확대

○ 갈등해결을 위한 직접적 개입 활동

1) 회복적 사법 '가족회합' 진행

- (1) 개요: 경찰청과 연계하여 13개 경찰서에서 회합 의뢰받아 회합 진행. 총 6건 진행.

(2) 일지

- 5월 9일(수) 경찰청 담당자 및 5개서 여성청소년계장 및 담당자 워크숍(박수선)
- 5월 15일(화) 송파경찰서 방문(조영희)
- 5월 16일(수) 서대문경찰서(박홍나미), 강남경찰서(이재영) 방문
- 5월 17일(목) 마포경찰서(박홍나미, 박수선), 노원경찰서(여혜숙, 박인혜) 방문
- 경찰청 회복적 사법 워크숍(7월 3일 오후 2시~6시)-13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및 수사관 25명 참여. 회복적 사법 관련 시범연구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응답(박수선 참여)
- 경찰서 방문, 프로그램 취지와 사건신청 및 의회 방식 설명회 가짐.
- 7월 26일 오전 9시~오후 6시,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합동 워크숍
- 회합 진행

사건의뢰 경찰서	소요기간	사건 유형	피해 가해자 수	합의여부
	예비조정 횟수 및 시간	참여조정자	회합 시간	기타
성동 경찰서	8.6~8.23	폭력	피해자1, 가해자2	○
	피해1회: 1시간30분 가해1회: 1시간10분	4명	1시간 30분	
동작 경찰서	7.26~8.21	폭력, 갈취	피해자8, 가해자3	○
	피해3회: 3, 1, 2시간 가해1회: 2시간	3명	4시간	
영등포 경찰서	8.16~9.4	갈취	피해자1, 가해자1	○
	피해1회: 1시간30분 가해1회: 1시간30분	3명	2시간 30분	
방배 경찰서	9.19~10.4	갈취	피해자1, 가해자5	○
	피해1회: 2시간 가해1회: 2시간	3명	5시간	
서부 경찰서	10.5~10.15	폭력, 갈취	피해자1, 가해자2	○
	피해1회: 1시간30분 가해2회: 각1시간30분	3명	3시간 30분	
은평 경찰서	10.2~10.26	폭력	피해자1, 가해자1	○
	피해2회: 1,1시간30분 가해1회: 1시간30분	3명	2시간	후견인 참여

○ 국제연대

국제비폭력평화세력(Nonviolent Peace Force International), Center for Nonviolent

### 1) AFSC 주관 중국 교수들 갈등해결센터 방문

(1) 내용: AFSC에서 8월 20~24일까지 한국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을 이해하고, 배우러 한국 방문(중국 호남성의 사회학자(Hunan Academy of Social Science) 5명과 AFSC 스태프 2명)

(2) 일정: 8월 23일 오전 10시30~1시30분 평화여성회 방문. 평화여성회 활동에 대해 소개, 사회갈등에 대한 토의

## 5. 사업평가

### 1) 성과

#### (1)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 전문화, 세분화

2007년은 그동안의 교육과정을 주제별, 대상별로 특성화, 전문화, 세분화하였다. 성인 교육으로 2006년에는 2003년도부터 진행해온 강사트레이닝과 조정진행전문가과정도 시도하였는데, 그 내용을 기본과정과 전문가과정으로 세분화하고, 전문가과정도 주제별로 전문화과정으로 새롭게 재편하였다. 하여 50시간으로 기본과정을, 기본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강사트레이닝, 조정전문가훈련과정, 진행전문가훈련과정으로 관심사별로 전문가과정을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형화하였다. 또한 청소년교육도 그동안 학교 CA를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2007년은 그 외 주제를 가진 특성화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하였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저소득층 공부방 참여 어린이 학생들을 위한 '유치하는 갈등해결과평화 공부방'을 운영하였고, 또 학교에서 정제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틀과 내용을 확대하였다.

#### (2) 갈등해결을 위한 중립적 3자로서 개입 활동 시도

2007년에는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연구프로젝트로서 경찰청과 연계하여 회복적 사법 모델인 '가족회합'의 조정자 역할을 활발하게 하였다.

'가족회합'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한 방법으로서 소년사법체계의 대안적 체계로서 의미가 있다.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에서는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시도해왔는데, 그 예방적 의미를 넘어 실제적인 사건에 중립적 3자로서 해결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가족회합'에서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축적하는 의미와 함께 우리 사회의 청소년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안적 제도과 활동을

찾아나가는 시범사례를 구축한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활동으로 앞으로 청소년폭력해결을 위한 제도적 모색에 기여하고, 특히 훈련 프로그램으로 배출되는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장을 발굴, 새로운 장을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 (3) 주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수행

2007년은 주제별로 연구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정세에 부응하여 '평생교육학원의 대국민 평화교육 실시방안연구' 작업에 참여하였고, 사회갈등분석팀에서는 지역의 갈등 이후 심화된 지역주민간 갈등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에서 진행된 회복적 사범에 대해서도 '가족회합'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 작업도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진행하였다.

이렇게 활동 영역과 주제에 따라 활동한 아니라 그 경험과 성과를 연구작업으로 외화하려는 시도들이 미약하나마 이루어진 점은 그동안 갈등해결센터의 활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는 데 주력했다면 '갈등해결과 평화' 관련한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명실상부한 '갈등해결과 평화' 전문 기관으로서 자기자리를 잡아나가는 데 기반이 될 것이다.

### (4) 활동가들의 활동 영역 전문화, 확대

앞에서 이야기한 성과들에 따라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활동가들은 관심사에 따라 자기 영역을 분명히 하고, 전문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청소년교육팀은 청소년대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등의 자기 영역을 확보해나가고 있고, 사회갈등분석팀은 사회갈등에 대한 관심 영역에서의 연구 및 활동을 개발해나가고 있다. 회복적 사범 '가족회합조정팀'은 2007년 새롭게 구성, 앞으로 관련 사업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전에도 단위 팀이 구성되어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2007년에는 좀더 팀원이 보강되고, 구체적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활동 영역이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 2) 과제

### (1) 활동가의 양적 질적 확대

2002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는 활동가는 20여명에 이르지만, 활동기간 인식 및 경험의 격차가 있고, 또 사업이 세분화되면서 더욱 전문성을 요하거나 인적 자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함께 활동할 활동가를 배출하는데 노력하고,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더욱 전문역량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재교육 훈련의 기회를 확대하여 갈등해결교육 및 조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 (2) 각 영역별 활동의 체계화

갈등해결센터의 활동은 교육, 조정활동, 연구활동 등 점점 활동이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각 활동분야별로 그 업무를 좀더 체계화하여 조직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요구된다.

### (3) 축적된 경험과 성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작업의 확대

청소년대상교육부터 성인대상 교육, 조정, 전행, 교육전행 전문가과정까지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갈등해결센터의 경험과 성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작업을 잘 하지는 못했다. 사회적으로 경험과 성과를 알리는 것은 평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평화문화 형성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나눔으로써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홈페이지 개편, 관련 책, 매뉴얼 발간 등의 작업을 통해 활동의 성과와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3 일상평화센터

### ○ 구성

- (1) 소장 : 김정수 (8월 말 사직)
- (2) 평화심성팀 : 문명녀(팀장), 김신자, 김현숙, 김현진, 이낙호, 장정화, 황순영

### 1. 사업목표

- 1) 회원들의 역량에 맞춰 평화심성, 평화문화에 관한 학습을 진행한다.
- 2) 문화적 측면에서 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한다.
- 3) 학습, 탐방, 명상, 캠페인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상평화 실천을 모색한다.

### 2. 사업계획

- 1) 평화심성팀 (팀원 : 김신자, 김현숙, 김현진, 문명녀, 장정화, 황순영 등)
  - (1) 월례모임 : 월 1회 시기별·주제별로 요청되는 것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 (2) 평화학습
  - (3) 평화탐방
  - (4) 평화명상
  - (5) 평화캠페인

### 2) 여성평화 아카데미

### 3. 사업내용 및 평가

일상평화센터 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평화심성팀은 대단히 높은 열의와 팀워크도 불구하고 구성원들 각각이 개인적으로 바쁜 관계로 활발한 활동을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2008년도에 새로운 모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평화심성팀은 2007년도로 활동을 정리하기로 하고, 새로운 모임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논의와 내용을 고민하여 2008년 사업에 반영하기로 하다



## 2-4 회원참여센터

### ○ 구성

- (1) 소장 : 조영희
- (2) 회원사업팀 : 김선량, 김지선, 김현희, 변숙진
- (3) 팀진팀 : 홍승희(팀장), 김현희, 변숙진, 오영주, 이승현, 최선희

### 1. 사업방향

회원의 지속적 참여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개발한다.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킨다.

### 2. 사업목표

- 1)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부심을 키워준다.
- 2)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한다.
- 3) 회원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4) 평화여성회의 활동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내고 회원들의 소식을 담아낸다.

### 3. 사업계획

#### 1) 회원사업팀

##### (1) 월례평화마당

가. 매월 1회 경례모임을 통해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나. 현 정세의 평화이슈를 공유하여 회원들의 정세인식을 높이고 평화운동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도출해낸다.

##### 2) 회지발행팀 (팀장 : 홍승희, 팀원 : 장정화, 박수선, 김현희 등)

(1) 평화이슈, 일상에서의 평화만들기, 국제평화운동 소식, 등을 담아 연 2회 회지를 발간하여 회원과 단체에 발송하도록 한다.

가. 회지 : 발행기획과 평가를 위해 연 4회 정도 개최한다.

나. 자료와 정보로서의 가치

다. 회원 상호간의 소식 및 정보공유

### 4. 사업내용

#### 1) 회원사업

(1) 월례평화화마당

- ① 2.13 합의이후 정세전망과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모색
  - 강사: 정경란(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집행위원장)
  - 일시: 2007. 2. 27(목) 18:00-21:00      ○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 ② 한국군의 과병결정, 추진, 평가체제의 문제점
  - 강사: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일시: 2007. 3. 29(목) 18:00-21:00      ○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 ③ 영화관람 <우리학교>
  - 일시: 2007. 4. 27(금) 18:00-21:00      ○ 장소: 동숭아트센터 하이퍼텍니다
- ④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다도(茶道)와 함께 하는 평화 찾기
  - 강사: 문명녀 (평화전문강사)
  - 일시: 2007. 5. 31(목) 18:30-21:00      ○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 ⑤ 갈등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 강사: 조영희(평화여성회 공동대표)
  - 일시: 2007. 6. 29(금) 18:30-21:00      ○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 ⑥ 2008 여성6자 회담을 준비하는 여성평화 방문단 이야기
  - 강사: 정경란 (6.15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일시: 2007. 8. 31(금) 18:30-21:00      ○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 ⑦ 2007 남북정상회담 보고행사 및 향후 여성의 과제 모색
  - 강사: 정현택(평화여성회 이사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일시: 2007. 10. 8(월) 19:00-21:00      ○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 ⑧ 가을에 떠나는 DMZ 평화기행
  - 강사: 최양현진(평화기행전문강사)
  - 일시: 2007. 10.12(금) 10:00-18:00      ○ 장소: 파주 임진각 DMZ일대

(2) 영어로 하는 평화교육 스터디 모임

- ① Chery Woelk / 평화교육전문가, 캐나다인 / 8회
  - 일시 : 10월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장소 : 평화여성회
  - 내용 : 평화(가정/사회/국가/세계)에 관한 이야기들
- ② Marion Kim / 평화교육전문가, 미국인 / 8회
  - 일시 : 10월17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      ○장소 : 평화여성회
  - 내용 : UN안보결의안 1325안의 여성, 2.13합의문, 9.19 공동성명 등, Peace & Justice 에 관련 자료

③ **Marry Collins / 선교동역자, 캐나다인**

○ 일시 : 10월9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 장소 : 평화여성회

(3) **평화여성회 송년의 밤**

○ 일시 : 12월21일(금) 오후7시                      ○ 장소 : 평화여성회

○ 프로그램 : 평화의 식탁, 선물나눔, 피스벨을 울려라, 타로점 보기 등

2) **회지발행팀**

회지발행팀을 웹진팀으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사업내용은 정보사업 참조

5. **사업평가**

월례평화마당을 통한 회원들간의 여성평화운동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평화사인과 관련한 정세이해, DMZ평화기행, 영화보기 등 강의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연말송년모임을 통해 회원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월례평화마당의 경우 참여가 기대하였던 것보다 많지 않아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가조직의 어려움 등이 있었고 이는 그 동안의 평화여성회의 조직적 전망과 준비, 조직적 활동부족과도 맞물리는 문제이기도 하였기에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매주 1회 이상 회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평화를 주제로 한 영어스터디를 통해 영어실력과 함께 평화에 대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참여자들간의 소속감을 높이고 평화여성회의 주요 사업목표인 여성평화운동역량강화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몇몇 참여자들의 경우 영어스터디 모임을 지속화하기를 희망하였고 다양한 회원소모임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때에 하나의 회원소모임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오프라인에서 회지발행을 인력, 재정적, 온라인소식지의 확산추세 등의 이유로 회지발행대신 매월 웹진발행을 계획함에 따라 웹진팀을 구성하여 매월 온라인을 통해 웹진발행을 통해 회원들과 여성평화운동소식을 공유하고 및 평화여성회 회원참여센터가 발행한 자료집을 발송하였다.

## 2-5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 구성

\*명예이사장 : 김윤옥

(1) 원장 : 김엘리

(2) 이사회 : 심영희(이사장), 권인숙, 김현미, 박현선, 안정애, 안진, 양현아, 이니영, 황영주

(3) 연구위원 : 강인화, 윤리화, 오미영, 이선미, 이화진, 임운택, 조영주, 최윤정, 한정숙, 허성우

(4) 운영위원회 : 강인화, 오미영, 조영주, 최윤정, 김현희(대행), 변숙진(실무자)

(5) 평화와전더 세미나팀 : 조중인, 박강성주, 레나, 오미영, 조약골, 조영주

### 1. 사업방향과 목표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그동안 정기적인 책을 발행하고, 통일, 평화교육, 여성평화운동사 등 프로젝트별 연구 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평화관련 연구를 활성화시켜왔다. 또한 평화이슈와 관련한 여성연구자들을 발굴하고 그 영역을 넓혀왔다고 볼 수 있다. 2007년도 역시 이러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아래와 같은 사업목표를 갖는다.

1) 첫째, 2007년도는 평화 연구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 연구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운영조직과 모임을 구성한다.

(2) 정기적인 세미나 또는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는 학술분위기를 조성한다.

(3) 여성 연구자와 활동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을 나눈다. (예: 카페활동, 홈페이지 홍보, 글쓰기 등)

2) 둘째, 2007년도는 여성주의 입장에서 평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성주의로 평화에 관해서 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1) 여성주의 평화관련 연구 과제들을 발굴하고 명료화한다.

(2) 여성주의 평화정치학에 관한 이론적 작업의 출발로 삼는다.

## 2. 사업 계획

### 1) 정기적인 공개 세미나 진행

(1) 지금까지 거론되어왔던 평화에 대한 개념, 인식 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사유, 인식, 가치 등을 여성주의 입장에서 펼쳐 보이는 시도이다.

(2) 군사화된 근대사회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유방식은 무엇인지 여성주의 입장에서 문제제기하고 문제의식을 심화시켜본다.

### 2) 여성과 평화 5호 발행

### 3) 필요하다면, 비공개 세미나팀 구성

### 4) 프로젝트 만들기

(1) 통일정책 성별영향평가

(2)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연구 과제 찾기

(3) 주제가 있는 책 발행을 위한 준비 (2008년도 사업)

### 5) 여성평화활동가와 연구자를 재생산하는 환경 만들기

(1) 사람과 네트워크

-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무엇을 원하는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 여성과 평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대학생, 연구자, 독자 등)을 찾고 독려하기, 연구원 프로그램에 참여 하도록 하기

(2) 현재 시대를 읽고,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지식공동체

(3) 알리기

- 홈페이지에서 연구원 내용 잘 보여주기 <http://www.peacewomen.or.kr/>

- 카페의 역할 <http://cafe.daum.net/peacewomen>

## 3. 사업내용

### 1) 회의

#### (1) 이사회

- 구성 : 심영희(이사장), 권인숙, 김현미, 박현선, 안정애, 안진, 양현아, 이나영, 황영주, 김엘리(원장, 당연직)

#### ① 1차

○ 일시 : 2007년 2/23(금) 오후 6:30-오후 10:00 / 장소 : 너조

○ 참석 : 심영희(이사장), 김현미, 박현선, 안정애, 이나영, 김엘리(원장)

- 위임 : 권인숙, 황영주, 안진, 양현아
- 배석 : 김현희(대행, 평화여성회 사무국장), 조영주(연구원 운영위원)
- 내용 : 조직구성, 2007년도 사업방향과 계획, 예산안 검토와 승인, 연구원 운영 내규(안) 검토, 기타 논의

(2) 운영위원회

- 구성 : 장인화, 오미영, 조영주, 최윤정, 김엘리(원장, 당연직), 김현희(평화여성 사무처장 대행, 당연직), 변숙진 (담당 활동가)

① 1차

- 일시: 2007년 1월 20일 토요일 2시-4시
- 장소: 배리
- 참석자 : 김엘리, 오미영, 조영주, 최윤정, 김현희
- 내용 : 연구원의 성격 논의, 2007년도 조직구성과 운영원칙에 대해 논의, 2007년도 사업계획 논의, 기타

② 2차

- 일시: 2007년 2월 12일 월요일 6시30분-9시 30분
-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자 : 김엘리, 오미영, 조영주, 최윤정, 김현희
- 내용 : 연구원의 운영원칙과 운영 내규안 논의, 2007년도 예산안 논의, 이사회 준비 검토, 기타

③ 3차

- 일시: 2007년 3월 23일 금요일 6시30분-9시 30분
-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자 : 김엘리, 조영주, 최윤정, 변숙진
- 내용 :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검토하고 논의

④ 4차

- 일시: 2007년 3월 30일 금요일 6시30분-9시30분
-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자 : 김엘리, 조영주, 최윤정, 김현희, 변숙진

○내용 : 통일정책 성별영향평가 제안서 검토와 논의, 여성주의 평화정치학 세미나 기획 논의, 기타논의

⑤ 5차

○일시 : 2007년 4월 20일 금요일 6시30분-9시 30분

○장소 : 평화여성회 사무실

○참석자 : 김엘리, 강인화, 조영주, 최윤정, 오미영, 김현희, 변숙진

○내용 : 공개세미나 활력제당 진행 일정과 준비물 점검, 2007년도 1/4분기 (1-3월) 회계보고와 재정상황 검토, 운영규정 수정안 검토, 소규모 연구회 지원 프로젝트 논의, 기타

⑥ 6차

○제목: 연구원 상반기 워킹, 지피지기 회회나라

○일시 : 2007년 6월 30일-7월 1일

○장소 : 인천 신도 영광조편선

○참석자 : 김엘리, 강인화, 오미영, 조영주, 최윤정, 김현희, 변숙진

○내용 : 공개세미나 활력제당 평가, 상반기 연구원 운영방식과 사업에 대한 평가,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기타 논의

⑦ 7차

○일시 : 2007년 7월 10일 화요일, 저녁 7시-10시

○장소 : 평화여성회 사무실

○참석자 : 김엘리, 강인화, 오미영, 조영주, 최윤정, 변숙진

○내용 :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입장 논의, 군가산점제 부활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논의, 연구원 2/4분기 (4-6월) 회계 검토, 무르지 <여성평화> 기획안 논의

⑧ 8차

○일시 : 2007년 7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10시

○장소 : 평화여성회 사무실

○참석자 : 김엘리, 강인화, 오미영, 조영주, 최윤정, 변숙진

○내용 :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국방부의 사회복무제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논의

㉔ 9차

○일시: 2007년 8월 8일, 저녁 7시-10시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참석자: 김엘리, 강인화, 오미영, 조영주, 최윤정, 변숙진

○내용: 군가산점제 부활과 관련한 토론회 기획(안) 검토 논의, 연구위원의 토론회 발표문 논의

㉕ 10차

○일시: 2007년 8월 21일, 화요일 6시 30분-10시 30분

○장소: 한소리의 사무실

○참석자: 김엘리, 강인화, 오미영, 조영주, 최윤정, 변숙진

○내용: 군가산점제 관련 토론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상황에 대한 평가, 소규모 연구회 프로젝트(공개세미나 활력제담) 내용과 진행 일정 검토, 연구 무크지 <여성평화> 기획(안) 논의

㉖ 11차

○일시: 2007년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6시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참석자: 김엘리, 조영주, 최윤정, 변숙진

○내용: 연구원의 3/4분기 (6-9월) 회계보고 검토, 2007년 연구원 사업 평가

㉗ 12차

○일시: 2007년 11월 30일, 금요일 오후 11시-2시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참석자: 김엘리, 조영주, 오미영, 변숙진

○내용: 공개세미나 활력제담 평가, 2007년도 연구원 사업평가, 2008년도 연구원 조직과 운영방향 논의

2) 공개세미나, 활력제담 개최

(1) 제목: 활력제담, "여성과 평화를 다시 묻다"

(2) 목적

가) 근대국가 틀 속에서 제기되는 평화, 안보, 군사, 통일, 폭력 등을 여성주의 입장에



서 비판적으로 읽고 재구성할 지점들을 문제화하고 쟁점화한다.

나) 여성주의 평화정치학의 이론적 작업을 위한 시론의 기회를 만든다.

다)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방향과 아젠다를 생산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3)참석자 : 10명-35명

(4)세미나 내용과 일정

가. 상반기 공개세미나

가)일시: 5월-6월 격주 금요일, 6:30-8:50

나)장소: 지유명차

다)주제와 발표자

일시	제목	발표자	진행자
5.4	폭력과 예도의 정치학	임옥희 (여/성이론 편집주간)	조영주 연구위원
5.18	군사화된 근대국가의 평화 다시 읽기	권인숙 (명지대 교수, 연구원 이사)	안경애 이사
6.1	이주여성과 문화시민권	김현미 (연세대 교수, 연구원 이사)	최운경 연구위원

나. 하반기 공개세미나

가)일시 : 10월-11월 격주 금요일, 6:30-8:50

나)장소 : 평화여성회 교육장

다)후원 : (사)한국학술진흥재단

라)주제와 발표자

일시	제목	발표자	진행자
10.5	병역개신안과 사회복무제, 그리고 여성들의 안보참여	독고순 (국방연구원 국방사회조사통계실장)	김열리 원장
10.19	군대/군가산점제 논쟁의 지 형과 새로운 방향찾기	오미영 (연구위원,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김열리 원장
11.2	성별화된 민족주의, 성예화 된 국가 -기저층을 중심으로	이나영 (연구원 이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열리 원장
11.16	북한개성공단을 둘러싼 성 별정치학	조영주 (연구위원,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김열리 원장

### 3) 비공개세미나 개최

#### (1) 운영연구위원 비공개 세미나

- 가. 일시 : 2007년 8월 4일, 토요일
- 나. 장소 : 이화여대 북학학과 세미나실
- 다. 교재 : 심영희외, 세계화와 여성안보, 한울, 2007
- 라. 참여자 : 강인화, 조영주, 최음정, 김열리

#### (2) 비공개세미나, "평화와 젠더 -남성성"

- 가. 구성원 : 강인화, 김열리, 조종현, 박강성주, 레나, 오미영, 조약골, 조영주
- 나. 장소 : 평화여성회 교육장
- 다. 세미나 성격과 내용

##### 가) 성격

- 그냥 관심 가는대로 공부하고 토론한다.
- 논의한 내용을 모아모아 여유가 생기면, 어떤 수단(글, 노래, 춤 등)을 통해 표현하고, 생활에서 실천한다.
- 지식생산을 위한 긴 준비이다. (하나의 예로 출판 등을 염두에 둔다.)

##### 나)주 내용

- 남성성이란 무엇인가 : 개념, 의미, 이론
- 특정 사회에서 남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한국사회에서 남성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남성성, 남성학과 여성주의, 여성운동
- 섹슈얼리티, 성역할, 성정체성, 성관계, 이미지와 남성성
- 민족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국가와 남성성
- 젠더화된 전쟁과 평화
- 각 주제별로 본 남성성 (예를 들면 이주문제, 아버지, 군대, 노동시장, 연애 등..)
- 하고 싶은 것 등등

##### 다. 일정과 내용

- 가) 준비모임 (2007년 8월 28일, 오후 3시-5시) : 세미나팀의 위상, 목적, 방향 등 논의
- 나) 1차 세미나 (2007년 9월 21일, 오후 1시-5시) : 조지모스의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 다) 2차 세미나 (2007년 10월 26일 오후 1시-4시 30분) : 신시아 인로의 *Baranas*,

#### Beaches and Bases

라) 3차 세미나 (2007년 11월 9일, 오후 1시-4시 30분) : 신시아 인로의 Bananas,

#### Beaches and Bases

마) 4차 세미나 (2007년 11월 23일, 오후 2시-5시) : 박형지의, 제국주의와 남성성

바) 5차 세미나 (2007년 12월 26일, 오후 2시) : 박형지의, 제국주의와 남성성

#### 4) 군가산점제 부활논쟁과 관련한 활동

(1)군가산점제 관련 자료 모음과 내부 논의

(2)군가산점제/사회복무제 관련 칼럼 집필 (강인화, 오미영 등)

(3)군가산점제 게시판을 연구원 카페에 만들고 운영

(4)군가산점제 관련 외부 토론회 참여

-여성단체 회합과 토론회 참여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김엘리, 오미영, 변숙진)

-국방위원회 공청회 참여 (9.5, 10.4 / 오미영, 조영주, 변숙진)

#### 5)평화여성회 뉴스레터 연구위원 칼럼 집필

(1)8월 칼럼 : 김엘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화감수성

(2)9월 칼럼 : 오미영, 상징적 제도로서의 군가산점제, 그 상징화의 이면들을 들여다내야

(3)10월 칼럼 : 조영주, 2007 남북정상회담 그 후, 여성평화운동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4)12월 칼럼 : 최윤정,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6) 조직 운영 활동

##### (1)소식지 발송

가)발송 횟수와 날짜 : 총 4회 (3/28, 7/04, 10/3, 12/31)

나)방법 : 이메일과 카페를 통해서

다)대상 : 연구원 회원들과 평화여성회 운영위원들

라)주요내용 : 연구원과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 나눔, 사업내용 나눔, 회원들 소식 나눔, 회비 수신 분들

## (2) 카페 운영과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참여

가) 연구원 카페 운영 : <http://cafe.daum.net/peacewomen>

(가) 회원수 : 61명

(나) 주요내용 : 연구원 소개, 연구위원 칼럼, 알림과 자료, 회의자료, 운영위, 여평다시론다 세미나방, 군가산점제(게시판지가: 강인화), 평화와전다-남성성 (게시판지가: 조승현)

나)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 여성평화연구원 게시판, 자료실 등

## 4. 사업평가 - 성과와 과제

### 1) 조직과 운영의 측면

(1) 운영위원회 구성, 세미나팀 구성 등 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기반을 만들고, 꾸준한 이사회비 납부 등 재정마련의 기초를 마련하며, 새롭게 구성된 연구위원들의 활동들이 가시화되는 한 해였다. 앞으로 인적, 재정적 지원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연구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환경을 차근차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원 카페 운영,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활용을 통해서 여성과 평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연구원의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성이 약했다는 점이 아쉽다.

### 2) 사업추진

(1) 공개세미나 활력제담은 연구원의 활동제개와 방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뿐만 아니라 주제가 시의 적절했고, 호응도 컸고, 논의도 활발하였다. 그러나 주제에 따라 참석자들이 때면 다르고 참석자들의 관심의 성격이 분명하여서 여성평화정치학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정되고 지속적인 논의구조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공개세미나 활력제담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후 연구원과 지속적인 관계성을 만들 수 있는 후속적 조치를 연구원이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은 다음번 활력제담 세미나 준비의 또 다른 과제이다.

(2) 비공개세미나 평화와 전다, 남성성은 회원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연구원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게 된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원의 자

원으로서 지식생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3)2007년 동안 기획을 하고 논의는 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 근가산점계와 사회복지계에 관한 토론회, 여성평화 무크지 발행, 통일정책 성별영향평가 프로젝트이다. 연구원의 사업이니만큼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긴 호흡으로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더 내실 있는 자세라고 보고, 이를 고려하여 일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 2-6 정보사업

### ○ 구성

(1) 팀장 : 홍승희

(2) 팀원 : 김현희, 변숙진, 오영주, 이승현, 조영희, 최선희

### 1. 사업방향

평화운동은 인터넷을 검색하는 작은 일부부터 시작하여, 현장에서의 감시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노력을 요구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비폭력적인 평화문화 형성과 실천을 위하여 대중적인 생활지침들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평화문화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대중친화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평화로운 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한다.

따라서 정보 시민사회의 확대에 따른 사이버 평화운동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이버 평화운동의 영역은 사이버 공간의 활동을 심화함으로써 젊은 층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회원활동을 촉진시킨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웹진(여성평화뉴스레터) 발행과 사이버 공간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 1) 비폭력 평화문화 실천을 위한 생활지침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
- 2) 젊은 층의 관심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이버 평화운동의 영역을 개발, 보급한다.
- 3) 웹진 (여성평화뉴스레터) 발행 등을 통해 사이버 평화운동을 확산시킨다.

### 2. 사업계획

1) 내실 있는 웹진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필진의 발굴과 중요 이슈 때마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격월로 각 센터 소장, 연구원장 및 사무국장이 연석한 기획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필진을 선정하여 시의적절하게 웹진을 발행하도록 한다.

2) 여성평화뉴스레터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포맷으로 하여 웹진을 받은 사람들이 사이트에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3) 웹진의 내용을 보고서 회원들이 소감을 적을 수 있도록 게시판을 추가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한다.

4) 회원의 참여 확대와 평화여성회의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안의 공간을 증설하고 UCC(User Created Contents) 이벤트를 시도한다.

- 5) 정기적으로 데이터 백업(월 1회)을 실시하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

### 3. 사업내용

#### 1) 회의

##### (1) 웹진기획팀

- 구성 : 홍승희(팀장), 조영희, 김현희, 변숙진, 오영주, 이승현, 최선희

##### ① 1차

- 일시 : 3/8(월) 오후 4:00~오후 6:00
- 참석 : 홍승희(팀장), 조영희, 김현희, 오영주, 변숙진
- 내용 : 2007년도 회지팀 사업계획안을 검토한 후 팀의 명칭을 웹진기획팀으로 사업내용을 웹진발행과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관리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을 정함. 구성은 홍승희 회지 팀장을 웹진기획팀장으로, 평화여성회 회원인 장정화, YMCA간사인 이승현, 평화여성회 김현희 사무국장, 평화여성회 오영주 정보간사 등을 팀원으로 하기로 하다.

##### ② 2차

- 일시 : 2007년 3/27(화) 오후 4:00~오후 6:00
- 참석 : 홍승희(팀장), 조영희, 김현희, 오영주, 장정화, 이승현
- 내용 : 홈페이지 초기화면 시안을 검토, 전체 웹진 구성안 논의 등

##### ③ 3차

- 일시 : 5/8(화) 오후 4:00~오후 6:00
- 참석 : 홍승희, 김현희, 변숙진, 오영주, 조영희
- 내용 : 웹진의 새로운 명칭과 각 코너의 명칭에 대한 논의

##### ④ 4차

- 일시 : 6/12(화) 오후 3:00~오후 5:00
- 참석 : 홍승희 팀장, 조영희, 김현희, 변숙진, 오영주
- 내용 : 발행인 홍승희 팀장 웹진 표기 및 웹진감수에 관한 논의 등

##### ⑤ 5차

- 일시 : 7/10(화) 오후 4:00~오후 6:00
- 참석 : 홍승희 팀장, 조영희, 김현희, 변숙진, 오영주, 이승현
- 내용 : 메인 화면의 레이아웃 수정논의. 매달 편집장의 칼럼 실기로 함.

##### ⑥ 6차

- 일시 : 8/14(화) 오후 4:00~오후 6:00
- 참석 : 홍승희 팀장, 김현희, 변숙진, 오영주
- 내용 : 웹진9월호 논의 - 고정난 추가방(김엘리, 정경란 원고)

##### ⑦ 7차

- 일시 : 9/6(목) 오후 3:00~오후 5:00
- 참석 : 홍승희 팀장, 조영희, 김현희, 변숙진, 오영주, 이승헌, 최선휘
- 내용 : 웹진 10월호 논의 - 고정난 추가 (최선휘의 마이크, 평화사진 등)

⑧ 8차

- 일시 : 10/9(화) 오후 3:00~오후 5:00
- 참석 : 홍승희 팀장, 김현희, 오영주, 이승헌, 조영희, 최선휘
- 내용 : 웹진 11월호 논의, 웹진을 모아서 회지로 만들기로 함, 평화세계 포드럼에 관한 원고 지속화 등

⑨ 9차

- 일시 : 11/8(목) 오후 3:00~오후 5:00
- 참석 : 홍승희 팀장, 김현희, 오영주, 이승헌, 최선휘
- 내용 : 웹진 12월호 논의 - 신년호에는 평화의 다양한 얼굴을 제목으로 세계의 평화운동을 소개하기로 함

2) 주요사업

(1) 웹진목차

월	목차	소재목	필자
2월	새해인사	평화여성회 2007년 사업소개	
	권임대표들 인사	평화여성회를 떠나며	김숙임 대표
		여성평화운동의 '가지 않은 길'을 찾아서	심영희 대표
	새대표 인사말	새대표 인사말	김정수, 조영희, 김열리 대표
	여성 6자회담	여성 6자회담을 꿈꾸다	정경란 소장
	항후 일정	세계여성의날/ 정대협 수요시위	김현희 사무국장
	전대표 환송연	전대표 환송연 안내	
	월례평화마당	월례평화마당 안내	
갈등해결	갈등해결과 평화기본과정 안내		
지난 활동 보고	평화여성회 총회 보고	김현희 사무국장	
4월	윤장호하사를 기억하며	아프간에서 숨진 윤장호 하사를 추모하며	김정수 대표
	갈등해결과 평화	갈등해결의 마중물이 되어-	김지선 간사
	38 세계여성의 날	338 세계여성의 날에 참가하고	
	아프간 철수 촉구	아프간과 이라크에 있는 한국군 철수	변숙진 간사



		축구 기자회견	
	정대협수요시위	평화여성회 주관 정대협 수요시위	
	지난활동/사업계획	지난활동일지/ 사업계획	김현희 사무국장
	성명서/ 언론에 비친 평화여성회	성명서/ 언론에 비친 평화여성회	오영주 간사
	신입회원 /후원금	신입회원 명단 / 후원금 내역	
5월	여성평화연구원 공개 세미나	활력제담 여성과 평화, 다시 본다	변숙진 간사
	갈등해결센터	여럿이 함께	김지선 간사
	월례평화미팅	이라크 파병,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변숙진 간사
	신입활동가 소개	바람아 더 불어다오	김지선 간사
	지난활동/사업계획	지난활동일지 / 사업소개	김현희 사무국장
	성명서/언론에 비친 평화여성회	성명서/언론에 비친 평화여성회	
	신입회원 명단	신입회원명단 / 후원금 내역	
	공지사항	공지사항	김현희 사무국장
6월	평화문화의 씨앗뿌리기	지금의 갈등해결센터가 있기까지 1)	박수선 갈등해결센터 소장
	이우정 평화상	이우정 선생님 추모예배 및 평화상	
	여성평화워크샵	524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날 기념	
	월례평화미팅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변숙진 간사
	갈등해결과 평화강사 트레이닝	평화받을 일구는 사람들	김지선 간사
	생활속의 평화이야기	생활 속의 평화 이야기	영세진 회원
	지난활동/사업계획	지난활동일지/사업계획	김현희 사무국장
	함께 걷는 평화 걸음	5월 회비납부 회원 명단	
7월	평화문화의 씨앗뿌리기 2)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 노력	박수선 소장
	월례평화미팅	평화여성회에서 만난 평양이야기	조영희 대표
	갈등해결센터	조정전문가과정을 마치며	박재신 선생
	여성평화협상전문가 과정	남북여성, 만남과 소통의 능력을 기르자	변숙진 간사
	지난활동일지	지난 활동일지 / 사업계획	김현희 사무국장
함께 걷는 평화 걸음	함께 걷는 평화 걸음	김현희 사무국장	
8월	우리는 그들을 잊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한	김영리 대표

	있었다	평화감수성	
	아프간 사태 기자회견	아프간 피랍자 무사귀환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이현주 간사
	아프간 사태	아프간 여성들과 NWIDML 연대 메시지	
	평화문화의 씨앗뿌리기 3)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 노력	백수선 소장
	여성 6자 회담	중국방문보고	김현희 사무국장
	청소년평화리더십캠프	청소년평화리더십캠프 참가후기	김지훈 자원봉사자
	신일활동가	평화여성회 상근활동가 변속진입니다	변속진 간사
	우리안의 보석찾기	평화여성회의 든든한 말언니(황순영)	김선영 간사
	평화포토갤러리	차곡차곡	이승헌
	지난활동/사업계획	지난활동일지 / 사업계획	김현희 사무국장
	함께 걷는 평화 걸음	함께 걷는 평화 걸음	
	안암천변에서	인질극은 아프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홍승희 편집장
	함께 나누는 세상을 위하여	함께 나누는 세상을 위하여	
9월	여성평화협상워크샵	여성평화협상워크샵을 마치고	김지선 간사
	여성6자회담	일본방문후기	안인숙 태권여인회
	우리안의 보석찾기	평화여성회의 자유로운 영혼 (김현희)	장정화 회원
	평화포토 갤러리	무지개 자화상	이승헌
	지난활동/사업계획	지난활동일지/사업계획	김현희 사무국장
	함께 걷는 평화 걸음	함께 걷는 평화 걸음	김현희 사무국장
	안암천변에서	잊혀진 고명, 여성 TO	홍승희 편집장
	함께 나누는 세상	함께 나누는 세상을 위하여	
10월	2007 남북정상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과 여성교류	정경란 소장
	여성6자회담	워싱턴에서 여성6자회담을 말하다	정경란 소장
	군가산점제	상징으로서의 군가산점제	오미영 연구위원
	SAFE 국제회의	SAFE 국제회의의 참관기	변속진 간사
	평화포토갤러리	예주야 사진 찍자	이승헌
	지난활동/사업계획	지난활동일지/ 사업계획	김현희 사무국장
	함께 걷는 평화	함께 걷는 평화 걸음	
	안암천변에서		홍승희 편집장

	함께 나누는 세상을 위하여	평화여성회 후원 배너	
11월	2007 대선	여성, 평화대통령을 기다리며	정경란 소장
	2007 남북정상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 그후, 여성평화운동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영주 연구위원
	여성평화연구원	공개 세미나 활력제담	변숙진 간사
	갈등해결센터	진행전문가 과정	김지선 활동가
	건강소식	이낙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건강소식1)	김선량 간사
	평화문화의 씨앗뿌리기 4)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노력	박수선 소장
	평화포도밭리리	힘들고 어렵다면 날려버려	이승헌
	지난활동/사업계획	10월 활동과 11월 사업계획	김현희 사무국장
	함께 걷는 평화길을	희비와 후원희비	
	평화사건	한미야보회의	김현희 사무국장
안안천변에서	과과정권이라고?	홍승희 편집장	
함께 나누는 세상을 위하여	후원 물품 배너		
12월	현재를 마무리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그리면서 사진으로보는 2007년 평화여성회	
	현판도 평화체제 로드맵	현판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와 NGO의 활동	권지희 기자
	정대협 수요시위	평화여성회 주관으로 정대협 수요시위 열려	
	이라크전쟁반대 시위가 뜻하는 것	희생과 죽음에 의존한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 할 수 있다	김엘리 대표
	여성평화연구원 활력제담	여성평화연구원 하반기 공개세미나 활력제담	변숙진 간사
	DMZ 민통선 마을에 다녀와서	남향집이 없고 전부 북향집이에요	김현희 사무국장
	평화포도밭리리	간밤에 누군가 다녀간 것 같습니다	이승헌
	지난활동/사업계획	11월 소식	김현희 사무국장
	함께 걷는 평화길을	11월 희비 납부 및 후원금	
	평화사건	남북총리회담	김현희 사무국장
안안천변에서	나치를 키운 대중적 열광의 그림자	홍승희 편집장	
함께 나누는 세상	평화여성회 후원물품 배너		

## (2) 홈페이지 리뉴얼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을 9월 24일부로 교체하였으며 메인화면의 상부를 평화여성회의 권섭에 어울리게 여성을 배경으로 디자인하여 밝고 환하게 바꾸었으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평화여성회의 주요 메뉴를 좌측으로 옮기고 주요사항의 크기를 더 확대하였으며 공지사항, 성명서, 언론에 비친 평화여성회, 사진으로 보는 평화여성회 등의 메뉴를 우측으로 이동하였다.

## (3) 팝업, 배너 및 메일링 제작

신년, 추석 및 총회 팝업

북핵수해지원 팝업

월계평화마당 팝업

간동해결센터 팝업

여성평화연구소 팝업

여성 평화협상전문가 양성 훈련프로그램 팝업

이우정 평화상 팝업

그 외 평화여성회 주요사업을 메일링함.

## (4) 메일링 회원 정리 및 메일서비에 오즈 메일러를 추가함.

## 4. 사업평가

올해 웹진 기획팀을 구성하여 팀장으로는 홍승희, 팀원으로는 최선희, 이승현 회원 등이 참가하여 팀원이 보장되고 기획력이 향상되었고 매월 홍승희 팀장의 칼럼과 이승현 회원의 사진을 게재하여 웹진의 콘텐츠가 작년 대비 한층 더 풍성해졌으며 매달 꾸준하게 웹진을 발행하여 여성평화운동내용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해 나갔다. 하지만 원고가 마감기한에 맞추어 취합이 안되거나 갑작스런 원고 취소로 인하여 웹진 발행일에 맞추어 발행되지 못하거나 원고구성이 애초 기획과 달리 축소된 점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원고취합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요구된다.

## 2-7 연대사업

### 1. 이우정평화상위원회

#### 1) 참여현황

- (1) 집행위원장 : 김정수 상임대표
- (2) 실 무 : 김현희, 변숙진

#### 2) 활동일지

- 3/19(월) 18:00 이우정평화상위원회 운영위원회(인사동 지리산)
- 4/30(월) 17:30 이우정평화상위원회 운영위원회(인사동 지리산)
- 5/14(월) 13:00 제3회 이우정평화상위원회의 심사위원회 회의(장충동 송원)
- 5/17(목) 17:00 이우정평화상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인사동 지리산)
- 6/5(화) 16:00 제5주기 이우정 선생님 추모예배 및 제3회 이우정평화상 시상식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
- 6/25(월) 17:00 제3회 이우정평화상 시상식 평가 및 향후 과제(인사동 지리산)

#### 3) 사업내용

- (1) 제5기 이우정 선생님 추모예배 및 제3회 이우정평화상 시상식  
(수상자: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 일시: 2007년 6월 5일(화) 오후 4시      ○ 장소: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
  - 프로그램 순서

##### 1부 추모예배

사 회 : 한국염 목사

인사발 : 이문우 (이우정평화상위원회 위원장)

강 연 : 김윤옥 (평화여성회 전 이사장)

##### 2부 시상식

사 회 :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수상자 선정보고 : 정현택 (이우정평화상 심사위원)

축 사 :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전 정대협 상임대표)

수상소감 : 윤미향 수상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 3부 평화의 식탁

#### 4) 평가

##### (1) 성과

가. 우수정 평화상 제3회 수상자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로 윤미향 후보를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정하였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여성인권문제로, 전시하 여성에게 자행된 성폭력문제로 인식시키기 위해 세계에 알리는 일과 일본의 공식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을 통해 평화교육과평화운동의 초석을 놓는 일에 헌신한 점을 공적으로 인정하며 격려하였다.

##### (2) 과제

가. 기장여성노회에서 참여자들을 많이 조직하였으며 향후 이들의 참여를 계속 독려하기 위해서 우수정 평화상 시상식 일정과 장소,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1부 프로그램은 예매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나. 고 우수정선생님에 대한 역사적 활동을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하여 파워포인트 또는 영상물 제작을 통해 고 우수정 선생님의 발자취를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다. 2부 프로그램에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살려서 따뜻하고 참여자들 모두 신명난 분위기를 만들어 시상식이 하나의 여성평화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다.

## 2. 한국어성단체연합

### 1) 참여현황

(1) 이사회/임원회/정책위원회 - 김정수 공동대표 (1월-8월), 조영희 공동대표 (9월-12월)

(2) 사무국장 연석회의 - 김현희 사무국장

(3) 통일평화위원회 - 김정수 공동대표(위원장), 정경란/김현희(위원)

(4) 총회준비위원회 - 조영희 공동대표

### 2) 활동내용

평화여성회는 여성연합 회원단체로서 통일평화위원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사회, 임원회, 정책위원회, 여성미래센터 설립준비위원회, 사무국장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2007년 여성연합통일평화위원회는 4년의 회의와 6.15남측위 여성본부 활동, 여성연합 통일평화운동방향을 논의하고 북한 수재피해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여성연합 통일평화위원회는 통일과 평화, 핵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소통과 연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목소리를 어떻게 가시화 시켜나갈 것인지 그리고 갈등해결력 관점에서의 평화운동, 통일운동

등을 이렇게 집중시켜 가야 할지에 대한 과제가 놓여있다.

### 3.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파병반대 관련 활동 등

#### 1) 참여현황

- (1) 공동대표단 - 김정수
- (2) 기획단 - 김현희

#### 2) 활동일지

- 3/ 5(일) 고 윤장호 병장 추모춧불 문화제(장화문 동아일보사 앞)
- 3/ 6(화) 아프간과 이라크에 있는 한국군 철수를 촉구하는 여성기자회견 준비 기획 회의 (평화여성회)
- 3/ 8(화) 아프간과 이라크에 있는 한국군 철수를 촉구하는 여성기자회견 (국방부 앞)
- 3/15(목) 아프간, 이라크 파병 한국군 유가족 철수를 촉구하는 국제인사 공동선언 (세 실레스트로탕)
- 3/15(목) 국방부 NGO포럼 “파병정책은 조정해야 하는가?”(프레스센터 19층 독립홀)
- 3/17(토) 이라크 철군 4년 규탄 국제공동민간행동(서울역 광장)

#### 3) 평가

파병반대 연대활동을 통해 평화여성회는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모아내어 파병반대 여론형성에 기여하였다. 평화여성회가 제한된 역량에 따라 외부연대사업에는 많이 집중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들을 평화여성회가 적극 조직하여 기자회견 또는 성명서 등 여성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 4. 아프간 한국인 피랍사태관련 대응활동 전개

#### 1) 참여현황

- (1) 기획단 : 김현희
- (2) 국제연대 : 김엘리, 정경란

#### 2) 활동일지 및 활동내용 (국내)

- 8/2(목) 아프간 피랍자 무사귀환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단체기자회견 (장화문 KT앞)

- 8/7(화)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한 '긴급 대국민호소문' 발표 및 '노란손수건 달기 캠페인 (영화문 KT앞)
- 8/8(수) 아프간 피랍자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리본 달기 운동캠페인 기획회의 (희망제작소)
- 8/11(토)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한 노란리본달기 캠페인(마로니에)
- 8/11(토)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기획회의 (마로니에)
- 8/18(토) 노란리본, 하얀리본달기 캠페인 (천안국립청소년수련원)

### 3) 활동내용 (국제)

- (1) 아프간 피랍자 무사귀환 촉구 기자회견문 번역, 서명하여 국제단체에 알리기(정화 여성회, 참여연대 등)
- (2) 아프간 피랍자 무사귀환 촉구를 위하여 아프간 내 여성단체에 알리기  
아프가니스탄 여성혁명연합(RAWA)으로부터 연대메세지 발송 : 7월30일

### 4) 평가

평화여성회는 아프간 한국인 피랍사건과 관련하여 아프간의 평화와 피랍한국인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국내여론형성을 위해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및 여성기자회견등을 적극 조직하며 진행하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국제에 알려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아프간 내의 여성지도자, 여성단체, 그리고 미국정부와 아프간 정부에게 평화적 해결 촉구 공개서한 발송,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게 공개서한 발송, 국제적십자사, 국제적신원사에게 지원요청, 국제단체와 외국단체, 노란리본 달기 운동 소개 및 연대 요청 등 적극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이들의 무사귀환 및 아프간평화를 위한 역군을 국제적으로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 5.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1) 활동일지

- 4/12(목) 조직강화발전특별기원회
- 4/25(수) 615남측위원회 부문모임 및 워크숍(서울 우이동 에리츠호텔 연수원)
- 6/ 5(화) 615남측위원회 2기 2차 공동대표자 회의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
- 7/10(화) 615남측위 시민분과 모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의견을 아울러서 여성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평화여성회가 어떻게 결합하여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8.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 1) 참여현황

공동대표 - 김열리 공동대표

### 2) 활동내용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공동대표로 참여

(1)회의 : 4회 집행위원회 (1.5, 2.2, 5.22, 10.4)

(2)내용 :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대정부 활동, 피해자보고 대회, 와세다대-연세대 학생들의 양구군 해안면 합동농촌 봉사활동 등

## 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1) 참여현황

김열리 공동대표

### 2) 활동내용 : 수요시위 2회 주관, 대표자회의 참석 등

- 2/10(금) 16:0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회 참석
- 8/15(수) 2007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연대 캠페인·집회(일본대사관)
- 3/14(수) 평화여성회 주관 수요시위 (일본대사관 앞)
- 3/21(수)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에 대한 범시민 규탄집회(일본대사관 앞)
- 11/14(수) 평화여성회 주관 수요시위 (일본대사관 앞)

## 10. 통일교육협의회

### 1) 참여현황

이사, 연대사업심의위원, 평가위원, 정책분과위원 - 조영희 공동대표  
여성분과위원회 - 김신양 간사

### 2) 활동내용

(1) 총회 : 1/17

(2) 이사회 : 1/17, 2/26, 5/14, 7/11, 12/17

(3) 연대사업심의위원회 : 3/19, 3/27

(4) 평가위원회 : 4/2, 12/5 (현장평가 : 4/26, 5/27, 5/30, 6/28, 7/23, 7/25, 10/10, 10/16, 11/3)

(5) 정책개발분과위원회 : 8/27, 10/25, 11/22

(6) 여성분과위원회 : 4/6, 6/8, 10/5

· 여성분과 워크숍 : 5/10~5/11, 용평리조트, 조영희, 김진양, 황순영

## 11.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SAFE)

1) 참여자 : 김엘리 공동대표 (contact person), 변숙진 간사

2) 활동내용

(1) 회의

-3.2(금) 오후4시 / 주미본 사무실 : 샌프란시스코 베이 국제회의 준비

-5.23(수) 오후 4시 / 주미본 사무실 : 국제회의 준비

-10.12(금) 오후 7시 / 평화여성회 사무실 : 국제회의 참여후기와 평가

-11.14(수) 오전 10시 / 평화여성회 사무실 : 주일미군 집단강간사건에 대응 등

(2) 워십

-1차 (6.15 금 오후 6:30) / 평화박물관 : 미국 헌터스포인트의 기지 전환 사례

-2차 (7.6 금 오후 6:30) / 평화인권연대 : 병역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정책과 문제점, 대응

-3차 (7.20 금 오후 6:30) / 평화인권연대 : 미국의 이민자 정책과 문제점, 대응

-4차 (8.3 금 오후 6:30) / 평화여성회 : 미국회의 지역보고서 논의(1)

-5차 (8.24 금 오후 6:30) / 평화여성회 : 미국회의 지역보고서 검토와 논의(2)

(3) 국제회의 : EA-US-PR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평화네트워크 국제회의 참여

가) 평화여성회 참여자 : 김엘리, 변숙진, 정경란, 안정애, 장민수

나) 제목과 일정, 장소: Women Resisting Militarism and Creating a Culture of Life  
San Francisco, September 10-16, 2007

다) 남한참여자 : 총 12명(두레방, 주일미군범과근절운동, 평화인권연대, 녹색연합, 평화여성회)

라) 각 지역 총 참여자 : 약 60명

마) 저녁 프로그램 / 각 지역 발표 참석자 : 매 회 80명 - 100명 정도

바) 프로그램 내용

-현장방문 (9.11, 화요일) : 숨어있는 군사화를 찾아라

- ① 미국 초기 식민지 현장(Shellmound Emeryville) : 미국원주민들의 농과 배석
- ②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지역사회(Richmond)
- ③ 군산복합체 지역의 환경오염지역(Richmond)
- ④ 헌터스포인트(Bayview Hunters Point)

-과 지역 보고(9.11-14, 저녁시간)

- ① 필리핀 보고 (9.11) : Filipino Community Center, San Francisco
- ②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보고 (9.12) : La Pena Cultural Center, Berkeley
- ③ 한국 보고 (9.13) : Pacific School of Religion, Berkeley
- ④ 오키나와, 캄 보고 (9.14) : AFSC, San Francisco

-소모임 토론 주제와 남한 침략자 (9.12-13)

- ① Military violence against women, migration, trafficking : 김연리
- ② Women's health, military contamination and environmental clean-up : 이은정
- ③ Resisting military expansion and restructuring : 정경민, 안정미
- ④ Resisting & healing impacts of militarism (economic, social, cultural) : 민숙진, 최정민,

-저녁 행사 (9.15) : "WITH THESE VOICES: THE ART AND EXPRESSION OF WOMEN IN RESISTANCE" (San Francisco Women's Building)

## 12. 대전평화여성회 관련 활동

### (1) 활동일지

- 4/28(토) 대전평화여성회 창립관련 대전여대회 이경순 고문과의 만남(하은)
- 9/13(목) 대전평화여성회 창립대회(기독교연합봉사회가 2층 컨벤션룸)

### (2) 활동내용

관동해결센터 기초워크숍(12월8일-9일) 대전평화여성회 활동가 및 회원이 참여

## 13. 국제연대 활동

### 1) GPPAC

가. 회의 1/15 16:00 3/15(목) 16:00 참여연대

GPPAC 포퓰포인드 재선출 문제, 민간6자회담 참여 관련 논의

나. 성명서 발표

10/9 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on the Situation of Burma/Myanmar

- 2) 일본 성노예에 관한 미국 하원 결의안 121호 채택을 위한 한국 여성들의 호소 (Appeal to pass the US House Resolution 121 on "Japanese Sexual Slavery") 발송  
5월 4일 AFSC(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를 비롯한 미국 단체, WILPF(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list, abolition

caucus(핵폐기 국제연대체) list, NP(Norviolent peaceforce) list, Novel Women's Initiatives, 신일본여성회 등에 이메일로 배포.

-> 5월 30일 AFSC는 평화여성회의 요청을 받고 미국 하원 모두에게 서한 발송

### 3)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 국제연대 활동 코디네이션 (8월7일-15일)

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공개서한 발송

노란 리본 캠페인에 참여한 78개 단체 연명으로 아프카니스탄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인질들이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로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개입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 발송

나. 국제단체와 외국단체에 노란리본 달기 운동 소개 및 연대 요청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교회협의회,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연대요청

- 한국친구교수너장상연합회: AMOR(아시아태평양수녀연합회)에게 요청

- 녹색연합: Friends of Earth, Greenpeace에게 요청

- 평화여성회: WILPF list, abolition caucus list, NP list, Novel Women's Initiatives, 신일본여성회, AFSC 등에 요청

- 인권단체 Forum Asia(태국에 있는 아시아지역단체로서 인권단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자격을 가진 조직)에 요청

다. 제네바 주재 국제NGO-WILPF에게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을 방문하도록 요청하는 이메일을 Regiana Berchem(전 부의장)에게 발송. 이 단체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평화적 사태해결을 위해 개입해 줄 것을 요청.

라. NWI와 Virginia F. Cawagas(Multi-Faith Centre, Griffith University), Regiana Berchem(WILPF) 등 평화활동가들이 관심 표명

### 4) 아프카니스탄 피랍자 석방을 위한 인도네시아 방문 검토 회의

8월 10일-11일 흥운동 그랜드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와 만나 피랍자 석방을 위한 조언을 듣고 여성평화방문단을 조직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이슬람 지도자를 만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피랍자 석방이 임박하다는 소식에 방문 포기

### 5) Asia-Pacific Interfaith Symposium on Women, Faith and a Culture of Peace 공동주최 결정

일시:2006년 2월23일-2월25일

행사 개최지: 호주 브리스벤 Griffith University, Nathan Campus

주최단체: Multi-Faith Centre(Griffith University), Believing Women for a Culture of Peace

공동주최단체: 평화여성회, Australian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University of Queensland, Interfaith Search Fiji, 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Thailand), Wellington Inter-Faith Council(New Zealand), Association of Major Religious Superiors of the Phillipines, World Council of Muslims for Interfaith Relations(Australia) 등 20여개

## 2-8. 기타

### 1. 사업별 활동일지

#### 1) 조계사업

##### ○ 이사회

2007년

1/16(화)	18:00	1차 이사회	안건 : 2006년 사업보고 및 결산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9/ 6(목)	08:00	임시 이사회	안건 : 대표변경 관련 처리방안 논의 등

2008년

1/7(월)	18:00	1차 이사회	안건 : 2007년 사업보고 및 결산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계정책항목, 내부 규정안 등
--------	-------	--------	---

##### ○ 운영위원회

2/13(화)	14:00	1차 운영위원회의
3/26(월)	14:30	2차 운영위원회의
4/23(월)	14:30	3차 운영위원회의
5/28(월)	14:30	4차 운영위원회의
6/18(월)	15:00	5차 운영위원회의
7/21(토)	10:00	6차 운영위원회의
8/27(월)	14:30	7차 운영위원회의
10/8(월)	14:30	8차 운영위원회의
11/5(월)	14:30	9차 운영위원회의

##### ○ 총회준비위원회

12/3(월)	14:00	1차 총회준비위원회
12/24(월)	11:00	2차 총회준비위원회
1/3(목)	14:00	총회준비위원회 규정소위원회
1/4(금)	13:00	3차 총회준비위원회

#### 2) 토론회 및 교육포럼 진행 및 참석

1/ 8(월)	16:30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평화교육 강리
1/17(수)	11:30	성공회대 아시아대학원 시민단체 활동가과 대화(지리산)

- 1/31(수) 17:30 참여연대 대안안보 콜로키엄
- 1/31(수) 10:00 평화네트워크 토론회 토론 (승의 높은 뜻 교회)
- 1/31(수) 17:30 참여연대 대안안보 콜로키엄
- 2/ 1(목) 15:00 통일교육원 평화교육 강의
- 2/22(목) 14:00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토론회  
발 표 만해NGO센터)
- 3/13(화) 17:30 참여연대, 민화협, 우리민족서로돕기,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집중토론  
참가 (여성플라자)
- 3/23(금) 19:30 대전여민회 평화교육 강의
- 3/27(화) 17:30 참여연대, 민화협, 우리민족서로돕기,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집중토론  
참가 (여성플라자)
- 4/10(화) 10:00 제9회 서울국제여성평화재 토론회 토론 (이화여대 국제회의관)
- 4/12(목) 14:40 통일교육원 평화교육 강의
- 4/24(화) 17:30 참여연대, 민화협, 우리민족서로돕기,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집중토론  
참가 (여성플라자)
- 4/26(목) 10:40 통일교육원 평화교육 강의
- 5/ 3(목) 10:00 통일연구원-평화단체 NGO 포럼 발표 (통일연구원 회의실)
- 6/ 4(월) 14:5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연대 토론회 토론 (인문회관)
- 6/12(화) 10:40 통일교육원 평화교육 강의
- 6/21(목) 19:00 평택 참여자치 주민연대 평화교육 강의
- 6/21(목) 19:00 전주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강연 (전주 호매)
- 6/26(화)-6/27(수) 2007 광주 세계여성평화포럼 학술회의 발표 (김대중연년선센터)
- 7/ 4(수) 9:20 통일교육위원 연수 참가
- 7/18(수) 14:00 한국여성민우회 군가산점제 워킹 참여 (민우회 회의실)
- 8/17(금)-18(토) 여성연합 여성활동가대회 참가 (천안 청소년 수련원)
- 8/21(화) 18:00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경성회담에 대한 간담회
- 8/21(화) 16:00 여성연합 군가산점제 워킹 참여 (여성연합 강당)
- 8/23(목) 19:00 천안 KYC 평화교육 강의
- 8/24(금) 14:00 한국여성개발원 군가산점제 토론회 참여 (개발원 회의실)
- 8/30(목) 13:0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평화교육 강의
- 9/5(수),10/4(목) 국회 국방위원회 군가산점제 관련 공청회 참석 (국회)
- 9/6(목)-9/7(금) 민화협 전문가 포럼 (롯데캐슬)
- 10/5(금) 16:00 한국여성개발원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참석 (개발원 회의실)



- 10/17(수) 14:00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 토론회 발표 (비재학술지원센터)
- 10/17(수) 14:0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평화교육 강의
- 10/23(화) 10:30 남북정상회담 관련 여성가족부 여성단체실무자 간담회 (세종홀)
- 11/20(화) 10:00 천안 KYC 평화교육 강의

○ 기타 사무국내 활동

- 3/12(월) 13:00 신입활동가 OT (평화여성회) 김정수 진행
- 4/12(목) 9:30 신입활동가 OT (평화여성회) 정경란 진행
- 4/12(목) 13:30 신입활동가 OT (평화여성회) 김영리 진행
- 4/16(월) 11:00 신입활동가 OT (평화여성회) 김현희 진행
- 4/16(월) 13:30 신입활동가 OT (평화여성회) 조영희 진행

# 2008년도 사업계획안

- I. 2008년 사업방향
- II. 2008년 사업계획안
- III. 월별사업계획

100

# 2008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업계획안

## I. 사업방향

### *여성평화운동 역량 강화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내자!*

2008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조직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여성평화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내는데 힘쓰고자 한다.

평화여성회는 전문적 여성평화운동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출발하여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해왔고, 그에 걸맞게 빠른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제 10년을 넘어 여성평화운동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이때에 평화여성회가 어떤 비전과 내용으로 여성운동과 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긴 호흡으로 구체화해야 할 때이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출발도 하기 전부터 그간의 여성운동을 통해 이루어 낸 성평등이념을 부정하는 제학을 드러내고 있으며, 평화통일운동의 큰 결실을 되풀리는 방침을 보여주어, 평화여성회와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더욱 불가늠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시민사회전역의 입지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대내외적 조건의 충돌과 모순의 상황에서 여성평화운동의 뒷물마는 심화될 수 있다.

또 한편 여성에게는 여전히 차별적이고 힘든 여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능력과 힘은 점점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성들은 당당한 목소리를 내며 성장해 갈 것이다. 자신의 일상적 삶에서 여성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욕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삶과 경험에서, 여성주의를 통해 비평화적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읽고, 새롭게 평화안정기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이 강력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운동의 내실을 다지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난 2007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여성평화운동의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여성들의 참여를 넓혀서 평화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을 드러내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각 센터와 연구원의 행사와 모임, 연대활동에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들이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연령과 취향에 따라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개하고, 또한 여성들의 삶과 맞는 평화운동의 주제와 내용을 개발한다.

둘째, 여성들 개개인의 능력과 지도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한반도평화센터는 통일정책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위한 여성6자회담에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성평화 전문가모임을 개발한다. 갈등해결센터는 여성 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여성전문가를 양성한다. 일상평화센터는 위계화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고, 비폭력 평화문화를 창조하며 실천하는 여성의 능력을 고양시키는 실천을 전개한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여성주의 평화연구에 관한 지식생산과 연구발표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여성연구자의 총출 보다 넓게 만든다. 회원참여센터는 이러한 모든 활동에 기반하여 여성들의 활동력을 높이는 다양한 소모임의 장을 만들고, 회원들 간의 긴밀한 관계성을 지속시키는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셋째, 여성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다양한 여성들의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여성들과의 다각적인 만남을 시도하고자 한다. 여성의 다양한 삶과 경험 속에서,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평화운동이 전개되도록 한다. 나이가 인종, 국가, 계급을 횡단하는 초국가적 여성의 연대활동을 모색하여 평화라는 정치적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한다. 한반도평화센터는 여성6자회담의 국제회의를 통하여, 갈등해결센터는 청소년, 가족, 토해집단 등 다양한 갈등해결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일상평화센터는 비혼, 성직소수자, 장애인,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과 함께 여성주의와 평화주의를 실현하는 공동행동의 모색을 통하여,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여성연구자들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이룰 것이다.

넷째, 평화여성회가 펼칠 운동의 성격과 방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색하며, 평화여성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구상하고, 실현한다.

여성평화운동에서 '여성'이 누구인가(주체), 여성주의와 평화주의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지향),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이전다)를 모색한다. 이는 정책 논의, 연구 활동, 다양한 모임과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다.

## II. 사업계획안

### 2-1 한반도평화센터

#### ○ 구성 및 운영

(1) 소장 : 정경관

(2) 운영위원회 : 김현희, 유복남, 정경관, 조영희

(3) 자문위원 : 구갑우, 김귀옥, 김지연, 박건영, 박순성, 태준기, 신효숙, 윤덕희, 이근순, 이명자, 이승환, 이우영, 정미애, 최지영, 이정남

#### ○ 회의

(1) 운영위원회 : 월1회

#### 1. 사업방향

2008년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이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6자회담 213합의와 103합의로 북한 핵 불능화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 논의로 핵문제해결의 중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신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신정부의 관련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을 준비한다.

여성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핵문제 해결과 한반도평화체제 형성 및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입장을 모색하고 동북아 여성단체들 사이에 화해와 협력을 증진한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논의를 강화한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여성의 활동에 참여한다. 넷째, 새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 활동한다.

#### 2. 사업목표

1)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동북아시아 여성 사이에 화해협력을 추진한다.

- 2)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의 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를 활성화한다.
- 3) 남북여성교류사업을 지속하여 남북화해와 협력 및 대북지원 등 남북협력사업에 기여한다.
- 4) 한반도평화센터의 논의 및 조직력을 강화한다.

### 3. 사업계획

- 1)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여성6자회담” 진행
  - (1)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조직 구성
  - (2) 1차 워크샵(안) “여성6자회담과 동북아시아 평화 I”
  - (3) 2차 워크샵(안) “여성6자회담과 동북아시아 평화 II”
  - (4)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여성6자회담” 금강산 개최
  - (5) 평가워크샵
  - (6) 자료집 발간 등
- 2)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 입장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3) 남북여성과 화해 및 협력 활동
  - (1) 6.15 여성본부 활동 지속 및 정책논의 활성화
- 4)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및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
- 5) 한반도평화센터 모임 정례회 추진
  - (1) 운영위원회
  - (2) 자문위원회
  - (3) 세미나



## 2-2 갈등해결센터

### ○ 구성 및 운영

- (1) 소장 : 박수선
- (2) 운영위원회 : 김선혜, 김학목, 박수선, 박인혜, 박홍나미, 여혜숙, 이덕경, 이재영, 조영희
- (3) 청소년교육팀 : 여혜숙(팀장), 이덕경(서기), 김영진, 김지선, 박경옥, 박상희, 박인혜, 박홍나미, 안향숙, 이현숙, 문경아
- (4) 사회갈등분석팀 : 김선혜(팀장), 이현주(서기), 김지훈, 명세진, 박수선, 박재근, 이경순, 이항진, 이현주
- (5) 회합 조정팀 : 김선혜, 박수선, 박인혜, 박홍나미, 서정기, 여혜숙, 이재영, 조영희
- (6) 연구원 : 김학목, 이재영, 서정기

### ○ 회의

- (1) 운영위원회 : 격월 1회
- (2) 청소년교육팀 회의 : 매월 1회
- (3) 사회갈등분석팀 회의 : 격주 1회
- (4) 회합 조정팀 : 수시
- (5) 연구원 : 수시

### 1. 사업방향

- 1)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한다.
- 2) 그간의 활동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통해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2. 사업목표

- 1)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 조직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 2) 그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힘쓴다.
- 3)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4)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5) 갈등해결센터의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회원 확보에 힘쓴다.
- 6) 사회갈등 대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기반을 넓힌다.
- 7) 평화적 갈등해결 영역에서 일하는 평화활동가들과의 연대 형성에 노력한다.

### \*조직운영의 기본 방향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평화적 갈등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평화여성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팀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는 관심영역에 따라 청소년교육, 사회갈등분석 등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제기되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과제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의 각 팀장은 팀의 성원을 관리하고 운영과 사업을 총괄한다.
- 갈등해결센터는 정기적인(각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갈등해결센터의 사업전반을 논의, 결정한다.
-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각 팀장, 본부 사무책임자 등의 당연직 운영위원과 각 팀별 1인을 포함하는 일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갈등해결센터는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월례회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재교육 등을 수행한다.
-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1년 3회 이상 월례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사업계획

#### ○ 대상별 주요 교육 사업

##### 1)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 다양한 틀로의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을 기획, 진행한다.

##### 2)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조정 훈련

- 지역갈등, 사회갈등의 중심이 된 지역 중심으로 NGO활동가 및 어른주도층 대상으로 갈등의 평화적 해결,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3)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

- 교육의 특성화, 전문화를 살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다.

##### (1) 학교폭력 예방교육

##### (2) 학교부적응아 대상 교육

- (3) 청소년캠프
- (4) 공부방 교육
- (5) 움직이는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

#### 4) '갈등해결과 평화' 입문 과정

- (1) 일시: 분기별로 연중 2회 예정(6월 28-29일, 12월 6-7일, 1박 2일 워크숍)
- (2) 장소: 미정
- (3) 내용: 갈등해결에 대한 기초적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 의사소통

#### 5) '갈등해결과 평화' 기본과정(2박3일 워크숍 + 강좌 3시간 10강좌)

- (1) 일시 : 2/15(금)-17(일), 2/25-3/26 매주 월,수 저녁 6시 30분-9시30분 총 50시간
- (2) 장소 : 워크숍 미정, 강좌 평화여성회 교육장
- (3) 내용 : 전체 교육프로그램 소개, Community Building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기초적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프로그램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본다.(평화, 갈등해결교육의 의미 및 현재와 미래,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조정, 창조적 문제풀기, 대화, 의사소통 등)

#### 6) 갈등해결과 평화 중급 과정

##### △ 제6기 강사 트레이닝

- (1) 일시: 4월 7일~23일(월, 수 6시30분-9시30분), 5월 3~17일
- (2)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약 42시간
- (3) 참여 자격: 기본과정 수료자
- (4) 내용: 청소년 대상의 진행자로서 진행 실습 및 평가, 교안 만들기, 참관 실습

##### △ 조정자(mediator) 훈련과정

- (1) 일시: 8월 29-31일(2박3일 워크숍), 9월 6, 20, 27일 토 1-7시
- (2)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약 42시간
- (3) 참여 자격: 기본과정 수료자
- (4) 내용: 개인간 갈등, 공공갈등 조정 실습

##### △ 진행자(Facilitator) 훈련과정

- (1) 일시: 10월 17~19일(2박3일 워크숍), 25~10월 15일 토 1-7시
- (2)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약 42시간
- (3) 참여 자격: 기본과정 수료자
- (4) 내용: 회의진행, 의사결정, 문제해결워크숍 진행 기술과 방법 훈련

#### △ 회복적 사법 '회합' 조정자 훈련 과정

- (1) 일정: 2월 22(금)~24일(일)(2박3일), 3월 8, 15, 22, 29일 1시~7시
- (2)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약 45시간
- (3) 대상: 조정전문가과정 수료자 대상
- (4) 내용: 회복적 사법이란? '가족회합' 이해, 조정자로서 역할과 책무, 실습

#### 7) '공동해결과 평화' 학교-선목사와 공동주최

- 평화여성회 공동해결센터의 다른 교육과는 별도로 팀을 구성하여 세부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 진행한다.
- 선목사 측과 프로그램 진행과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적극화한다.
- 팀원: 김선애, 이항진, 여혜숙
- 내용 아이디어
- 지역 맞춤형 교육 개발(여주 지역 공무원, 교사, NGO활동가...)
- 기업체 등 연수(템플스테이와 결합된 형태 고민)
- 부모자녀캠프, 예비부부, 신혼부부 대상 교육프로그램, 엄마야캠프 등 대상별, 세대간 교육 프로그램
- 외부조직과의 권소사업(문화 프로그램 + 공동해결과 평화)

#### ○ 평화적 공동해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 1) 각 프로그램별 자료 정리, 소책자 발간: 그간 진행되었던 교육사업 및 내용들을 자료화하여 소책자를 발간한다. 내용적인 홍보, 선전의 역할과 함께 재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기초 입문서 단행본 기획, 집필
  - 회복적 사법 활동 보고서
  - 사회갈등사례 연구보고서 및 사례집
  - 청소년교육 책자
- 2) 영상자료 개발: 효과적 교육을 위해 영상을 이용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 3) 교육과정 및 활동을 정리한 센터 소개 브로셔 제작.
- 4) 홈페이지 개편
- 5) 갈등해결과 평화 관련 주제 토론회, 세미나 개최
- 6) 논평(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갈등해결과 평화' 입장에서 논평 등 글을 써서 꾸준히 발표한다.)

#### ○ 프로그램 연구, 개발

##### 1) 청소년교육 관련 교안 연구 :

- 초/중/고 대상별 세분화된 교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교안집을 정식출간
- 교구개발 : 워크북, 동영상, 교재도구
- 프로그램 개발
- 평가척도 연구
- 내부교재 : 교육방법론, 시나리오, 워크쉬트 등

##### 2) 사회갈등사례 연구:

- 갈등사례 발굴, 심층 분석(과제로 진행)
- 갈등해결센터 교육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사회갈등사례 시나리오 직접
- 웹진, 홈페이지 등에 사회갈등사례 분석내용 소개 및 갈등 관련 서적 서평 실기

##### 3) 통일교육 및 한반도 평화형성을 위한 과제에 갈등해결적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 ○ 조직 강화 및 확대

- 1) 그간 교육참가자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
- 2) 회원 재교육/월례회  
월례회의 질적 강화, 외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 진행자들의 재교육과 훈련 확대 지원
- 3) 전문강사풀 형성, 강화  
청소년교육뿐 아니라 일반 주부 대상, 공무원 대상 등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풀을 형성하고, 각 대상별 교육 내용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함.
- 4)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강화  
국내외 프로그램 참여

교안연구모임, 연구수업대회 등

○ 갈등해결을 위한 직접적 개입 활동

- 3자 역할로서 실제적인 갈등 상황에 3자로 개입할 수 있는 방식과 모델을 연구, 시범적으로 적용한다.(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조정, 사회갈등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접근 모색)

- 1) 회복적 사범 '가족회합'
- 2) 사회갈등에서 3자 역할 모색
- 3) 조직내 갈등해결을 위한 진행자 역할 모색

○ 국제연대

국제비폭력평화세력(Norviolent Peace Force International),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NVC) 등 갈등예방, 해결 관련 국제단체와의 연대

4. 월별사업계획

구분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의	운영위원회	21		17			19		21		16	20	
	청소년교육팀	매월											
	사회갈등분석팀	각주											
	회합조정팀												
	연구원												
교육	입문과정						28-29						6-7
	기본과정	15-	26										
	회복적사범	22-	-	5									
	조정자훈련												
	강사트레이닝			7-	17								
	조정자훈련								29-	27			
	진행자훈련										17-	15	
	청소년캠프							25-27					
학교 교육								연중					
	'갈등해결과정형화'학교							연중					
모재, 교육 개발	단행본							연중					
	교구개발							연중					
	청소년교육교안집							연중					
홈페이지 구축	기획, 구성												
	제작 완료												
회복적 사범 '가족회합'													

## 2-3 일상평화센터

### ○ 구성 및 운영

#### (1) 소장 :

(2) 구성원 : 가인, 김지선, 나비, 예나, 장경화, 변숙진.

### 1. 사업방향

- 1) 사회적 관계, 가치, 사유체제 등의 측면에서 비평화적인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읽어 내고
- 2) 일상의 삶에서 평화를 만드는 다각적인 방법과 새로운 담론을 모색하여
- 3) 사람의 삶과 경험에서 출발하는 여성평화운동의 내용을 개발하고 실천한다.

### 2. 사업목표

- 1) 일상평화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 (1) 정기적인 모임 활발하게 갖기
  - (2) 회원 구성과 회원 간의 관계성 만들기
- 2) 센터 활동의 방향과 내용 만들기

### 3. 사업내용

- 1) 구성원들의 관심과 하고 싶은 운동의 성격을 서로 발견하고 모색하는 모임 갖기
- 2) 즐겁게 노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평화만들기를 위한 아젠다 개발하기
- 3) 일상의 폭력성을 바꾸어가는 다양한 방법 발굴하기

## 2-4 회원참여센터

### ○ 구성 및 운영

- (1) 소장 :
- (2) 회원사업팀 : 김현희, 최선희
- (3) 웹진팀 : 홍승희(팀장), 김현희, 이승헌, 오영주, 최선희

### ○ 회의

- (1) 회원사업팀 : 수시
- (2) 웹진팀 : 월1회

### 1. 사업방향

회원의 지속적 참여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개발한다.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킨다.

### 2. 사업목표

- 1)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부심을 키워준다.
- 2)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한다.
- 3) 평화여성회의 활동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내고 회원들의 소식을 담아낸다.
- 4) 여성평화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회원확대를 이루어간다.

### 3. 사업내용

#### 1) 회원사업

- (1) 회원현황 분석 및 관리  
각 회원들의 욕구와 관심사 파악 등
- (2) 회원만나기
- (3) 회원대가운동
- (4) 회원소모임 발굴 및 정착화  
가. 회원들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회원 소모임을 만들어 낸다.



2) 웹진발행팀 (팀장 : 홍승희, 팀원 : 김현희, 이승현, 장경화, 오명주 등)

- (1) 평화이슈, 일상에서의 평화만들기, 국제평화운동 소식 등을 담아 매월 여성평화뉴스레터 발간 웹진을 발간하여 회원과 단체에 발송하도록 한다.
- (2) 여성평화뉴스레터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포맷으로 제작하여 웹진을 받은 사람들의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한다.
- (3) 온오프라인의 상호보완을 위해 웹진을 종합하여 연 1회 소식지를 발간한다.
- (4) 자체 검색자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증진하여 홈페이지 방문자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다.(회원 커뮤니티, 회원간 쪽지 주고 받기, 회원간 채팅 기능, 회원 사진 올리기 등)
- (5) 회원의 참여 확대와 평화여성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안의 공간을 증설하고 UCC(User Created Contents) 이벤트를 시도한다.
- (6) 정기적으로 데이터 백업(월 1회)을 실시하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

## 2-5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 구성

\*명예이사장 : 김윤옥

(1) 원장 : 김연리

(2) 이사회 : 심영희(이사장), 권인숙, 김현미, 박현선, 안정애, 안진, 임현아, 이나영, 황영주

(3) 연구위원 : 강인화, 윤덕희, 오미영, 이선미, 이화진, 조영주, 최윤정, 한정숙, 허성우, (추가예정)

(4) 운영위원회 : 강인화, 오미영, 조영주, 최윤정, 변숙진(실무자), 평화여성회 사무국장, (추가예정)

(5) 평화와전디 세미나팀 : 조중헌, 박강성주, 레나, 오미영, 조약골, 조영주

### 1. 사업방향

- 1) 여성들의 평화운동의 경험을 이론화하고, 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식생산을 한다.
- 2) 여성주의 평화이론을 생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 2. 사업목표

- 1) 지식생산을 위한 연구 활동
  - (1)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 (2)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아젠다 개발
  - (3) 책 출판을 위한 준비
- 2) 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 (1) 여성학 또는 평화관련 연구자들의 네트워킹 구성
  - (2) 여성평화활동가와 연구자를 재생산하는 환경 만들기

### 3. 사업내용

- 1) 공개 세미나, 활력패담 진행
- 2) 비공개 세미나, 평화와 젠더 - 남성성 진행
- 3) 주제가 있는 책 발간
- 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보와 자료 나눔
- 5) 여성연구자 또는 평화연구자들 모임과의 연대사업

## 2-6 특별사업

### 1.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사업

(위원장 : )

#### 1) 조직

위원장 :

위 원 : 이사진, 공동대표, 각 센터 소장, 회원대표, 외부 전문가, 전대표, 여성평화 연구원의 연구원, 사무국 등으로 구성

#### 2) 사업목표

- (1) 평화여성회의의 지난 10년에 활동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평가한다.
- (2) 향후 10년의 발전전망과 방향성을 모색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정책성을 확립하고 전망을 모색한다.

#### 3) 사업내용

##### (1) 10주년 기념행사

가. 일정 : 4월 경

나. 프로그램

가) 평화여성회의의 1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물 상영

나) 평화여성회의의 향후 10년 비전 발표

다) 감사패/공로패 증정

##### (2) 학술토론회

##### (3) 자료집 발간

가. 평화여성회의의 10년간의 영역별에 따른 활동보고 (사진자료 포함)

나. 기타

### 2.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

### 3. 여성미래센터 건립기금 조성사업(여성연합 등과 공동추진)

### 3. 월별사업계획표

사업명	사업분야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반도 평화 센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원회 여성본부 활동	총회준비 및 총회				행사		행 사					
	2008 여성6자회담	2008 여성6자회담 관련 활동 전개							거제 회의	평가			
	남파세계평상 및 피해개 발/ 모인정세화	-----정체활동-----											
	한반도평화와 동북아 평 화합성을 위한 여성업장 마련 세미나	-----연중-----											
갈등해결 센터	갈등해결교육(입문/기초/ /학교, 청소년 캠프 등)	-----연중-----											
	갈등해결과 평화(기초/심 화)	-----일정 미정-----											
	회복적사법 조력자훈련, 진행자 훈련 등	준비				진행							
	종모 산전활동	-----연중-----											
	재도착 접근을 위한 시 업,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사회갈등사례연구 등	준비 및 진행			준비		진행 및 평가						
	교재, 교구 개발 등	-----연중-----											
	회복적 사법 가족회합	-----연중-----											
일상평화 센터	소모임	-----연중-----											
희원참여 센터	활동 발행	-----연중-----											
	회합소모임	-----연중-----											
	회원관리 및 회원확대	-----연중-----											
한국여성 평화 연구원	세미나(공개/비공개)	-----연중-----											
	주제기있는 책 발간	-----준비-----									발간		
연대	남파총일련연 연대, 기타	-----연중-----											
10주년기 년사업	기념행사, 후원행사, 학 술포럼회, 영상물, 자료 집 발간 등	-----연중-----							기념행사		평가		



# 부 록

- ..... ■ 정관 및 운영규정
- ..... ■ 조직구성도
- ..... ■ 성명서 모음
- ..... ■ 발간자료 목록
- ..... ■ 회원가입서



# 정관 및 운영규정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편의를 위해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② 본회의 명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적 관점과 평화적 관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통일평화사업: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통일을 위한 제반활동
2. 통일·평화교육사업: 통일·평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3. 통일·평화연구사업: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연대활동

###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의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가입)

1.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회비를 납부한다.

#### 제9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정제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3인 내외

2.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

3. 감사 2인

4. 사무총장 1인, 사무총장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

#### 제12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은 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공천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1번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4.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도위원은 전임대표들로 구성하고, 본 회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1. 공동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이 중 1인이 상임공동대표를 맡

으며 본 회의 재반업무를 권장, 관할한다. 또한, 공동대표중 1인은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원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동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4 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제16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①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총회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④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7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 채택과 개정

3.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 결정,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한 사항 의결

##### 제19조(총회의 의결)

1. 총회 구성 및 의결은 총회 참석자도 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범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제22조(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일년에 두 번하고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사회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6.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발의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9. 회원의 제명
10. 결원이 된 임원의 선임
11. 기타 대표가 부의 하는 사항

## 제 6 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재정수입)

1.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잠수입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8조(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하도록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사업운명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1조(사무처)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2조(구성 등)

1. 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처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 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2.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제 8 장 보 칙

### 제33조(정관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4조(법인재산)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35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7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통일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1. 1. 28 4차 개정  
 2002. 1. 25 5차 개정  
 2003. 1. 28 6차 개정  
 2004. 1. 9 7차 개정

## 운영규정

제1조(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본회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가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센터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센터위원, 위원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사무처는 배석 가능하다. 무설기관인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원장도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총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2.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3. 직무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4.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5. 의결 :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조직)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민도평화센터, 일상평화센터, 갈등해결센터, 회원참여센터, 국제협력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며,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둔다.

1. 구성 : 센터에는 1명의 소장, 각 사업 팀장과 야간명의 위원을 둔다.
2. 직무 : 각 센터 소장와 팀장은 각 센터와 팀을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관장 및 집행을 한다.
3. 선출 : 각 센터소장 및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 대표가 위촉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4. 운영 : 각 센터(위원회)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운영규칙은 전석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자문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1999. 3. 4 1차 개정

2000. 1. 25 2차 개정

2002. 1. 25 3차 개정

2004. 1. 9 4차 개정

## 평화여성회 조직도





# 2007년 성명서 모음

## 성명서 목록

환영논평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논평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있는 한국군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752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3.17 국제공동 반전행동 집회보장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선언
RSOI/FE 중단을 촉구한다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7주년 기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선언'
고조홍 의원의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강애·여성 단체 의견서
아프간 피랍자 무사귀환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문
아프간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한 한국 시민단체의 <호소문>
제2차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관한 논평
평화여성회 환영논평, 2007 남북정상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명을 위한 선언"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를 위한 각계 선언문 및 선언.
이라크 파병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군대 내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관련 기자회견문
노무현 정부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임기 내 제정하라!
제78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성명서
남북총리회담을 환영한다!
민주 정치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 환영논평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기조치' 합의 논평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기조치' 합의(이하 2.13합의)를 환영한다. 2.13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일대 걸작이다. 2.13합의의 토대위에 한반도 주민의 생존과 남북 공존공영 그리고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번 합의는 일괄타결과 동시생동 원칙에 따라 북미 핵 갈등의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의 조기조치와 5개국의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13합의의 조기조치가 이행되고 5개일무그룹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협력,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이 구체화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전략정책의 청산 노력과 북한의 핵문제 해결 의지가 앞으로 9.19공동성명이행에 따른 이 될 것이므로 미국과 북한의 이행조치를 각별히 지켜볼 것이다.

이번 합의는 북한 핵시설 폐쇄물인과 북미북일 관계 개선 협상, 대북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의 식량을 60일 이내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다음단계 조치에 대한 시한이 도호한 점, 북한 핵무기폐기에 관한 조치가 불명확한 점, 한반도평화체제의 별도 포럼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북지원부담과 관련하여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이 공동분담하기로 한 점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상호준공과 평등의 정신에 기반을 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이 대북지원부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9.19성명의 공동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유감임을 표명하며,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에 일본의 헌법 9조 개악 추구 및 군사화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북일 정상선언에 따라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국정부는 대북 식량, 비료 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남북대화 복원에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 화해협력 및 한반도평화체제 형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잔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모든 핵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동북아시아비핵지대화는 우리 여성들의 바람이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적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이 여성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형성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비핵화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9.19성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6개국 정부의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

2007.2.14

평화불안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반전평화여성행동 여성단체 기자회견문

전쟁은 이제 그만!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있는 한국군을 즉각 철수하라!

오늘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 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인간답게 살고자 멀처 일어났던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평화로운 세상과 성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성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여성들은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다고 고인으로 돌아온 우리의 젊은이 윤장호 하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윤하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전쟁 속에서 죽은 많은 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 속에서 죽은 모든 아예저 심가 조의를 표합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는 오늘도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미군과 점령군, 이슬람전사 사이여 중오와 복수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사라지고 자신의 ‘대의’를 위한 보복의 악순환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전쟁범죄이었던 대량살상부기가 이라크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주둔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기지 내부에서 강간과 폭력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과 약자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라크에서 15세 소녀 아비르가 미군들에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했고 그 가까마져 끝났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율부짓는 이라크 여성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찢어지는 고통소리를 들으며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정부에게 ‘국익’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하였었습니다. 파병은 국익을 위해 꼭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도요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평화와 재건의 것만이 아니라 살육과 강간이라는 전쟁의 추악한 것들과 절당면이 나누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병사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테러 위협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솔직히 가감 없이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윤하사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윤하사의 죽음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을 즉각 철수하는 것이 오직 우리의 젊은이들을 살리는 길이며 전쟁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가족과 일상의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는 어머니의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자기 땅에서 자유롭게 삶의 터전을 개발하는 주민들의 노동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은 이제 그만 끝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폭력을 그보다 더한 폭력으로, 전쟁으로 막을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한다면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은 여기서 멈출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폭력은 폭력을 불러 옵니다. 평화의 갈등해결만이 우리 젊은이를 살리는 길이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어린이, 여성, 약자, 주민들 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군인을 보내고 무기를 사용해서 평화와 재건을 피치는 게 아니라 그곳의 주민과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여 재건을 준비하는 민간평화사절과 물자를 보내기를 촉구 합니다.

이라고,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이 갈구하는 성평등,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노력에 연대할 것을 밝히며 한 국군의 추가 철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 3. 8.

대전여민회, 수원여성회, 여성환경연대,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 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752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992년 1월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처음 시작되고 오늘로 752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침묵으로 강요당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더 이상 흘려가는 세월 속에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으며 아울러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여 평생을 고통해 오신 할머니들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최근 며 하원에서 추진 중인 '위안부'문제 결의안에 대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반발하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고 후안무치한 모욕공식을 펼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니 급기야 결의안이 통과되도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말만까지 서슴치 않았다. 국내의외 자신의 발언이 과문을 불러오자 '사죄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고리를 내렸지만 일본의 전상규명과 공식 사죄, 그리고 법적대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상 자짓과 망언은 계속 되풀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 미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추진 이전부터 이미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하루속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국제기구의 권고를 이행해야만 한다.

일본정부는 1993년 8월4일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이름으로 일본군'위안부' 동원에 일본군과 정부 차원의 관여와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부분이나마 인정했다. 전경으로 일본이 전쟁을 끝내고 한국과 평화·우호 관계를 위한 초석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제 와서 그마저 뒤엎겠다는 어불성설의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해야 하며 한국정부도 이를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우리 여성들의 진실이런 호소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전쟁포기를 명문화한 평화헌법9조 개악 추진 및 한·미일 군사공조의 강화 등 일본 군국주의의 이욕을 숨기지 않고 있어 삼한 우러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여성들은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파괴적인 자살남비에 대한 비극적 경험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국군이 파병되어 있는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의 전쟁에서도 여성과 여자 어린이들은 그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성 때문에 무차별적인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참혹한 현실을 보았다. 전쟁의 아픔과 피해를 경험한 우리 여성들은 이라크와 아프간의 한국군 파병 즉각 철수와 오는 3월25일부터 31일까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한미연합전시훈련 훈련은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역사 앞에 더 큰 심판을 당하기 전에 하루속히 그들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보편적 인류의 가치인 정의와 평화가 끝내 승리할 것을 믿으며 지속적으로 전상규명, 범죄인정, 사죄, 국가배상, 후생을 위한 역사교육 실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국내외 여성, 평화단체들과 함께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올바르게 후세에 교육하라
- 한국정부는 주체적이고 당당한 한일외교정책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 일본정부는 군국주의의 부활을모 중단하라

2007년 3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752차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일동

**아프간·이라크 한국군 추락 철수와  
3.17 반전행동 집회보장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선언**

1. 전국 3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방반대 국민행동'은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세실 레스토랑에서 '아프간·이라크 한국군 추락 철수와 3.17 반전행동 집회보장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참가자들은 각계 선언에서 "故 윤장호 하사의 죽음은 대테러 전쟁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푸고한 민중들의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무식 정부,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전쟁과 평화를 도우려고 군대를 파병한 노무현 정부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다"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추락 철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테러 파병이 "제 2의 이라크 파병"이라며 대테러 파병 철회도 주장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정부가 3월 17일 국제공동 반전행동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집회와 거리행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3. 한편 이날 선언에는 여성,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326인이 동참한 가운데, 기자회견에는 전국연중연대, 참여연대, 임종민 피인, 민주노동당,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인권센터, YMCA한국연맹, 민변, 평화대프리트, 민주노동당, 평화재향군인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한총연, 전국학생행진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각계인사 326인 선언 명단**

**<여성>**

김영리(평화여성회 공동대표), 김정수(평화여성회 상임대표), 김지희(한국여성연대 공동대표),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윤금순(한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이상선(한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혜(반미여성회 회장), 이은실(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영희(평화여성회 공동대표).

**<문화예술>**

강대희(중앙대 영문학 교수, 문화연대 공동대표), 장영환(시인, 민예총 상임이사), 김상철(민예총 상임이사), 김영기(화가, 경기연예총 회장), 김영삼(고사,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공동소장), 김영관(한국외국어대학교 연문광고학부 교수,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부소장), 김용태(민예총 회장), 김경민(문화연대 공동대표, 참여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 김기현(미술가,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형수(작가,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남요원(민예총 사무총장), 도정환(시인, 민예총 부회장), 방은진(영화배우 겸 감독), 박인혜(한국민족문화동맹회 이사장), 신유진(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심정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인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여 준(화가, 민예총 상임이사), 원윤진(서당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이태백(국인데 체육학부 교수,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연(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장), 이원희(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임정희(역사가,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임진택(연출가, 민예총 부회장), 권규환(한국예술종합학교 향일원 교수,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권효관(전남대 교수,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공동소장), 장민숙(사건가, 민족사연구학회 사무처장), 정희삼(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정희준(중대대 체육학부 교수,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 허만용(화가, 광주연예총 회장), 황우주(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민중/종업>**

장영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권나기(통일광장 공동대표), 권오창(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권오

현 (민가협심수추진회 회장), 변형은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 김수남 (우리민족번영회 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승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김영만 (코리아평화연대 대표), 김은주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정환 (평화과동임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김희영 (다함께 운영위원), 김홍수 (평화과동임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김홍현 (전국민인연합 의장), 나장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북본부 명예의장), 노수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노주선 (사회혁신회 상임의장), 문경리 (전국농민희생연명 의장), 장규현 (평화과동임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석률 (민주주의평화통일중앙회의 중앙회의 의장)

박승경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북본부 명예의장), 박용길 (6.15남북공동선언실천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명예대표), 박종기 (민주민주평화실현과자유민주주의연대의회의 의장),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박희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배종현 (평화과동임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박승욱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변연식 (평화과동임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신정길 (평화과동임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심호섭 (전국민인연합 공동의장), 홍성대 (평화과동임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오종형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원용철 (평화과동임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윤기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대 남북본부 의장), 윤한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윤희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북본부 의장), 이석영 (민주노총 위원장), 이재우 (평화과동임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이송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 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이윤선 (우리민족서모듬기운동 사무총장), 이윤희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광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북본부 명예의장), 이광우 (우리민족서모듬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필주 (전국민인연합 공동의장), 임종철 (평화과동임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장동화 (전국농민희생연명 부의장), 장두서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회장), 정광훈 (전국연승연대 상임대표), 정병호 (다함께 운영위원), 조지현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조성호 (전국농민희생연명 부의장),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영욱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최지훈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표명철 (평화과동임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한명수 (백범정신실천거레연합 대표), 한상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송희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집행위원),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성희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홍근주 (31 향교회 담임목사)

#### <방송인론>

김미화 (방송인론), 김홍진 (민언전 사무국장), 송호보 (민언전)전 방송위원), 신재섭 (민언전 대표), 이광순 (민언전 이사장)

#### <업조계>

장기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권길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권혁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주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미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은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국장), 김학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성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영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종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형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승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송상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호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국장), 임형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위대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어인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정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복지위원장), 임계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국장) 최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경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해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황필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보건 의료>

박성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치사회 공동대표), 김봉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성연 (건강사회를위한치과복지 부의장), 김영삼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회장), 김용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치사회 집행위원장), 김일현 (참의료실현한의사회 공동부회장), 김정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진국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회장)



표), 학살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박성환 (장외의료실현방안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송학선 (송학선 치과 의원 원장), 안기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신현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공동대표), 양필승 (녹색병원 원장), 이경규 (장외의료실현방안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임 준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조기홍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주영수 (노동건강연대 대표), 전준호 (건강사회를위한약사의회 회장), 최인순 (건강보험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집행위원장), 황재명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 <시민사회>

김경률 (피계사), 김기석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김대희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도진 (장외사회복지연대, 목사), 김명중 (인정참여자치연대 운영위원), 김봉구 (의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김순홍 (인천전천대 스포츠지나스학과교수), 김영중 (변호사), 김일희 (전주교인전교구 신부), 남부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박대근 (인천운동사랑당 상임활동가), 박상중 (참여연대 고문), 박상태 (지과과사), 박순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동국대 교수), 박은희 (인천참여자치연대 시민사회위원장), 박인규 (인천참여자치연대 운영위원장), 박종필 (인천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박진 (다산인문센터 상임활동가), 박승철 (인천참여자치연대 운영위원), 박현진 (변호사, 참여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훈 (변호사), 서보희 (평화대프린트 운영위원, 경남대공동문제연구소), 손승일 (인천재단연석회의 운영진), 손순희 (인천참여자치연대 운영위원), 안진걸 (평화대프린트 운영위원, 회계제과소), 오관영 (참여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오승일 (국정원과거사간담장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원수 (인천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윤영진 (교수, 참여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재훈 (참여연대 평화국문센터 소장), 이민주 (인천참여자치연대 운영위원), 이상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교 교수), 이재영 (청학공고 교사), 이수효 (평화학살관 사무처장), 이준규 (평화대프린트 정책실장), 이상수 (세사회연대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희영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임종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장병진 (동성여자인간연의 사무국장), 전성환 (한국 YMCA 전국연맹 기획실장), 정일섭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조옥화 (인천참여자치연대 운영위원), 조현범 (세무사, 지휘 (스님, 참여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한선혜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 전준호 (한국청년연맹회(KYC) 공동대표), 정 화 (스님,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기수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함종구 (평화학살관 상임이사, 총학기 (원노사)

#### <정당/정치>

장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장영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변영립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 민 (한국사회당 대표), 김기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김선숙 (한국사회당 사무총장), 김성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화정 (한국사회당 부대표), 노희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문경현 (민주노동당 대표),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손봉수 (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임재욱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안효상 (한국사회당 부대표), 유승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태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이태남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임광민 (무소속 국회의원), 정창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권병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승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종교>

가실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처장), 강서구 (BVC 총무), 김영수 (원불교 교수), 김경태 (역광 일하는 예술회 회장 목사), 김성훈 (한국교회인간센터 이사, 평화의 교회 목사), 나성국 (향원교회 목사), 도문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턴위원장), 문대을 (생명평화연구소 소장, 목사), 임경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평화통일위원장), 딸안 (스님, 실천 불교전국승가회 부처장), 변영희 (천주교인간위원회 위원장), 부경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국제불교위원장), 안승원 (영동포산선교회 총무, 목사), 안성근 (원불교 교수), 안학희 (새날교회 담임 목사), 오정환 (원불교 교수), 이영남 (한국교회인간센터 이사장, 당진교회 목사), 정우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NCC) 환경위원장, 조경철 (원불교 교수), 조 경현 (가장 생명평화위원회 회장, 목사), 조현경 (향원교회 담임 목사), 진광수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목사), 최재봉 (한국교회인간센터 사무국장, 목사), 최재연 (원불교 교수), 최립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 하상 덕 (원불교 교수), 한병경 (원불교 교수), 허관재 (한국교회인간센터 소장, 목사), 혜조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

장), 황철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목사), 최광 (스님, 삼천포교전국승가회 공동회장), 호신 (스님, 삼천포교전국승가회 교육/영수국장)

<학개>

김교민 (호서대 교수), 김규중 (경북대 교수), 김상곤 (한신대 교수), 김상화 (부산대 교수), 김석준 (부산대 교수), 김재균 (인보협 상임공동대표, 서울대 교수), 김영배 (강성대 교수), 김영병 (대구대 교수), 김원열 (성균관대 교수), 김학두 (경성대 교수), 박광태 (성공회대 교수), 박상환 (성균관대 교수), 박철호 (한신대 교수), 배성인 (한신대 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서창호 (목포대 교수), 손미아 (강원대 교수), 손원숙 (신라대 교수), 양해림 (충남대 교수), 오윤환 (울산대 교수), 이대우 (경북대 교수), 이태희 (한려대 교수), 이상영 (영동대 교수), 전형주 (대구대 교수), 정병기 (서울대 교수), 정영철 (순천대 교수), 정진영 (충북대 교수), 조경만 (목포대 교수), 조순태 (청주대 교수), 조태영 (한신대 교수), 최무성 (서울대 교수), 최영관 (서울대 교수), 최영진 (서울대 교수), 최종익 (삼지대 교수)

<화상>

김지선 (21세기한국대학연합회 회장,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유신민 (한총련 회장,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오민재 (전국학생행진 건설준비위원장)

<환경>

강영구 (환경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김규복 (녹색연합 공동대표), 김해에 (녹색연합 활동사무처장), 박경원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진성 (생태지평 무소장), 서주원 (환경교육센터 소장), 안병욱 (환경연합 사무총장), 여영학 (환경연합센터 소장), 윤준하 (환경연합 공동대표), 이시지 (서울환경연합 회장, 가톨릭대 교수), 장재연 (서울환경연합 회장, 아주대 교수), 조한해경 (환경연합 공동대표, 연세대 교수),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승호 (환경합계사는 길' 대표, 시인), 최 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최재원 (환경연합 공동대표, 이화여대 석좌교수)

여성들은 한미연합전시훈련(RSOI/독수리 군사연습(FE))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전시훈련/독수리 군사연습을 3월25일부터 4월1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연습에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모두 2만9천여 명의 미군병력이 참가하고 일본에 임시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한반도에 배치된 F-117 스텔스 전투기 1개 대대로 참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미 중원권력의 한반도 전개철자를 익히는 연습이다.

한미연합전시훈련/독수리연습은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6개국은 2005년 9월 19일 합의들 통해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정상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형성을 추구하기로 약속하였다. 또 2007년 2월 13일 '9.19공동성명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동북아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지속하는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방부는 작전계획 5027이 북한의 남침 공격을 가상하여 만들어진 철저한 방어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영길 의원이 기자회견(2005.10.13)을 통해서 밝힌 자료(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에 따르면, 유엔사/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은 '북한군 격멸'과 '북한정권 제거'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 작제 5027에 따른 RSOI/FE훈련과 같은 대규모 훈련은 북한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하여 한반도에서 불신과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대규모 군사훈련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작은 충돌이라도 언제든 실전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 억지력에 기반을 둔 안보위주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항상 대규모 군사훈련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안보'나 '협력안보'를 지향하는 방향의 전환을 이루어 대결과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RSOI/FE 한미군사훈련 실시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수립은 군사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보다 대승적인 정치적 해결을 통해 가능하다. 9.19합의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적대적 대립 형성과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치적 길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자고 합의하고 다른 한편에서 한국 사회 곳곳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한반도평화체제 형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남북한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남북한 상호군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미군사훈련 비용을 사회복지비로 전용해야 한다. 2008년부터 2006년까지 한미연합전시훈련/독수리 연습과 솔지포커스연스 훈련에 한국이 미국에 지불한 비용은 130억원에 달하고 있다.(한미연합연습 역사와 연습비용 관련 임종원 의원 질의에 대한 합참작전본부 답변자료, 2005.8.25) 국방부는 한미연합전시훈련/독

우리 훈련사 전사지원협정상의 계획소요의 실제동원훈련인 FTX 및 미계획 소요 지원연습을 통해 미국이 요청한 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비용을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안보협력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한반도평화체제 정착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적인 관계를 재조정 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국가의 상호 공존을 제도화하는 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구조는 한반도 내 군축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제도이다. 우리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군비증강과 군 현대화작업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통해 평화문화를 확산하는 다자 안보협력구조를 형성하는데 6자회담이 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우리 역성찰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없는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없는 다자 안보협력구조 형성을 향해 전진해 갈 것이다.

2007.3.22

대전여성회,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여성환경연대,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심록역상단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제주도의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칭하였다. 평화의 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즉 확정되기도 전에 정부는 해군기지가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 있다며 도민이 동의하면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 제주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왔다.

그간 해군은 주민들의 불만을 전제로 해군기지 건설 유무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라고 알려진 곳을 사전조사하고, 해군기지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무작별적 홍보를 해왔다. 그간 제주도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적군적 정보를 수차례 요청해왔으나 해군이 나 국방부는 이를 묵살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활동을 일으켜 왔다.

결국 지난 4월 13일 제주도지사를 방문한 국방부 장관은 당당한 제주도민의 땅인 알뜨르 비행장을 이용하여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그간 정부가 수차례 언급한 '주민동의' 입장을 완전히 묵시하려는 것으로 우리들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은 그간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는커녕 국방부의 논지를 보고 있다. 결국 제주도지사는 지난 4월 10일 대다수 시민사회단체, 해군기지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도민 1500명에 대한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충분한 정보제공도 없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여론조사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다자간협의체를 무시하고, 도의회 군사기지 특별위원회도 사전 조정 절차 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여왔다. 지난 4월 13일 제주도지사를 방문한 국방부장관에 항의하는 제주도민들을 성직자이건, 도의회 의원이건 막론하고 강제적으로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평화의 섬 제주도에 건설하겠다는 해군기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행보를 비판하며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반대하며, 4월 13일 무차별적인 도민 연행에 방관한 제주특별자치도정을 규탄한다.

우리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칭하고 대급모 군사기지가 평화의 섬과 양립한다고 입장을 밝힌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해군기지는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유지는 결국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평화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유지되는 것이며, 군사기지는 오히려 평화를 저해할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도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평화의 섬은 구호에 불과하며, 저대한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주민의 평화지향적인 정서는 고갈되고, 주민의 생활터전이며 후대에 물려줘야 할 자연과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다. 또 군주둔지를 중심으로 획일적 서열위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군사주의 문화가 확산되어 상생의 고유한 문화가 타물 이어 온 제주문화도 크게 왜곡될 것이다. 이렇게 지역사회 공동체가 변질되면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일상적인 폭력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국방부는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그동안 밝혀 온 '주민동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해군기지 로드업을 즉각 취소하고, 평화의 섬에 건설하는 해군기지를 반대해야 한다. 제주경찰청도 무차별적인 강제연행에 대해 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의 섬(평화 속의 함축된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평등하고 인권이 참유할 수 있는 곳을 지향)으로 도약하고자하는 제주도민들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는 제주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의 섬인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19일

경가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평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퇴직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서울여성지원회, 세계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세종대,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불안드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여성회총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해대문세계결혼유망한전국연대, 학교교육위한전국학부모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선언**  
**"여성, 고통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21세기를 만들자."**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7주년을 맞으며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분단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시대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적대와 대립 거듭했던 남북관계는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남북 사이에 화해와 공존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13 합의 이행과 더불어 6자회담의 진전을 촉구한다. 6자회담의 진전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평화와 협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전환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남북 인도차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핵실험을 통렬히 규탄할 수 있는 압박수단으로 어쩔어 여성, 임산모를 포함한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을 연기하는 것은 남북화해와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남북 사이의 부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전환기에 고통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여성들은 군사주의적 국가안보 모델이 아니라 공존과 화해 협력에 근거한 평화와 인간안보 담론을 추구한다. 정부는 군사적 억제력에 기반을 둔 안보 위구를 탈피하고 공동안보와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남북과 동북아시아 각국은 자신의 생존과 유지에 안보의 최고 목표로 삼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 "힘에 의한 정치"를 토대로 하는 군사주의적 모델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도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일방적 신뢰만으로 안보를 성취할 수 없다. 항구적 평화는 상호불신에 입각한 군비경쟁이 아닌 공동의 생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 여성들은 국가들 사이에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적,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가 아니라 평화, 환경보호, 인권존중, 민주주의 신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안보를 주장한다.

2. 여성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문제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한반도의 근본적 정상화가 불가능하며, 북미관계 정상화 없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미 사이에 적대관계 해소와 실질적인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이고 평화적인 해결과 대북한 인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상위권 평화체제 하에서 한미관계는 군사정쟁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고 파트너로 전환되어야 한

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재일조선인을 통해 겪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의 고통을 당한 우리가 이룩해야 할 절대적 과제이다. 북한과 미국의 핵 쉼 단어나 한반도에 어떠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질수, 보유, 저장, 배포, 사용을 허용치 않는다. 나아가 동북아시아 핵보유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뿐 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 6조에 따라 핵군축을 위한 협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3. 여성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상호군축과 더불어 군사비의 사회보장 및 교육비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군사비 무장과 군대의 집중이 심한 지역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65% 정도를 차지하면서 군사비 증가율도 8% 이상으로 세계 평균 3-4%보다 훨씬 높다. 2006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총액은 219억달러(약 23조3870억원)로 세계에서 11번째 규모이고 북한은 핵보유국가가 되었다.

여성들은 이처럼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수용할 수 없다. 2006년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44만여명의 여성인근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67.6%(435만 3천여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의 임금 수준은 남성정규직 대비 43%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도구인 군비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식량 증산, 환경 보호, 교육 및 사회복지 투자에 정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4. 여성들은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화해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여성들은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달성을 위해 지역 내의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단체, 공동체 조직, 비정부 기구, 정책 기구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과 동북아시아 분단사회에서 화해와 공동의 미래를 추구하는 것은 안내와 지력을 필요로 하는 매우 장기적인 과정이다. 여성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남북 그리고 동북아시아 여성들의 사고방식, 생활습관, 그리고 그 체계 내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상호이해와 인정을 가능케 하는 만남을 촉진하고 서로 의존하는 공동의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화해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5.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형성과정에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6자회담과 같은 평화와 안보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성은 평화형성과정에서 기획, 자문, 존중의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관공의 관리, 해결, 예방을 위한 평화·외교·국방 분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느 한 성에 의한 권파적이고 불평등한 흐름을 막고 남성과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정책의 수준과 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하며, 정부는 평화형성태이블과 외교, 통일, 국방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30% 이상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저항하는 동북아시아 여성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증진하고자 한다. 국경을 초월한 동북아시아 여성 연대는 고통과 타협의 동북아시아 분단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평화와 상생(相生)의 문화를 창출하는 동력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2007. 6.15

대연어민회, 평화물안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고조흥 의원의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장애인·여성 단체 의견서

장애인 권익·성평등 운동을 하고 있는 본 단체들은 한나라당 고조흥 국회의원이 지난 2007년 5월 28일 입법 발의한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1.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심판한 군 가산점제를 다시 입법 발의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처사입니다.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중에 응시할 때 군 경력을 가산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가 관여재판권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심판한 내용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심판 하였습니다.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은 민주주의의 핵심 및 법률에서 확고히 정립되어 있는 기본 권리이자, 민주사회의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특히 UN 등 국제사회는 이미 1979년 '여성에대한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관한협약(LIN)' 1983년 '직업생활과 고용에 관한 협약(LOF)'부터 최근 UN의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평등과 자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여 왔고, 우리 정부도 평등과 복지라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차별 금지 및 지원을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실질화 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8년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기반 하여 위헌 심판한 법안을 다시 무효시키려는 시도는 헌법의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자 역사를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 후 8년이 지난 지금,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을 논해야 한다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제대군인 보상방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것인가라는 방향에서 논의가 공론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고조흥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여성에 위헌입니다

(1) 고조흥 의원 병역법 개정안의 평등권 침해

본 개정안은 취업보호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에 대해 '과목별 득점의 2%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조흥 의원은 1999년 현재 판결은 군가산점제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과목별 만점의 5% 이내'라는 가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므로 가점 비율을 낮추면 위헌소지가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를 직결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 불과 '영점 및 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만점을 받고서도 불합격될 가능성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으로 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목당 2%의 군가산점은 여전히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인 자명합니다. 비록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가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더라도, 가산점으로 인해 20% 이내의 합격자가 불합격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아들의 평등권 침해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 부활에 관해서는 일감은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을 지나치게 경직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하나, 당 시 헌법재판소는 고용상의 남녀평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의 가치는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이며, 법익의 일면적, 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 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심각한 점을 보거나 가산점 제도는 법익 균형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고 결론 내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조흥 의원외의 개정안은 여전히 헌법의 기본정신인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2) 고조흥 의원 개정안의 공무원임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25조의 공무원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임권은 '역사·연소자 군포의 보호,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군포기회의 보장' 등과 같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일방 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무원임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고조흥 의원외의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여전히 공무원 시험에서 군가산점을 허용함으로써, 여성과 장애인의 공무원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3) 여성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군가산점

특히 고조흥 의원 개정안은 여성들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5년 48.3%에 비하여 2007년 4월 50.7% 올라 겨우 2.4%에 증가된 것에 반해,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급속도로 확대되어왔습니다. 2006년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44만 여 명의 여성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무려 67.6%(435만 5천 여 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의 임금 수준은 남성정규직 대비 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사 가운데 비교 가능한 50개 기업이 2000년과 2005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남녀 직원 임금격차는 2000년 상반기 월평균 106만1천원에서 2005년 상반기 월평균 162만1천원으로 52.80% 확대된 것으로 드러나,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대로 공무원 시험, 학교 교직원 시험, 20인 이상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 단체에 군 가산점제를 실시한다면, 이미 일자리 기회와 임금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더 큰 차별을 부과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경쟁시험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경 경쟁 영역으로,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공정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여성 및 장애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극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 3. 이제는 합리적인 제대군인 보상책, 군대 개선방안을 논의할 때입니다.

이제는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과 군대 개선방안을 논의할 때입니다. 고조흥 의원외의 개정안은 제대대군인에 대한 평등권과 공무원임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제 남성이 아닌 취업보호 실시기관 용사 제대군인만이 받을 수 있는 차별적인 보상입니다.

따라서 보다 평등하고 합리적인 군 보상책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첫째, 군 복무기간이 인생을 날벼락이 기

간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인 경향이 될 수 있도록 군대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군복무 기간 중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사회복응을 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군대내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임금 인상 등 복리 후생을 위한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또한 군대내 폭력을 근절하고 민주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군복무기간을 연금 산정 시 적용하는 병안 중 합리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단체들은 고준홍 의원의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2007. 6. 13

장애우편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성난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재세상천주교여성공동체 수원여성회 인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평화인권여성연대 충북여성인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회전화연합 한국여성장기인연합 한국여성화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아프간 피랍자 무사귀환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문

생명은 소중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매 순간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가족들의 아픔과 눈물은 이제 중지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랍사태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아프간정부는 한국인 석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 슬픈 소식만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러극화의 이어 심상민씨가 살해되었고, 이제 남은 피랍자와 한국 여성들도 언제 희생이 될지 모를 긴박한 상황과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슬픔에 감겨있는 가족들과 고인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조속히 이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평등합니다. 어떤 합당한 희생과 고통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고 그들의 생명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명분도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탈레반은 이제라도 남아 있는 피랍자들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3.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과격으로 치닫지 않고, 조속히 해결되어 피랍자 권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정부와 아프간 정부, 미국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피랍자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번 피랍자들의 석방을 위한 협상적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더 이상 방관자의 자세를 벗어나 탈레반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미국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테러세력과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무고한 민간인이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아프간의 비극에 커다란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 무엇보다도 여성들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인 두 명이 피랍되자, 아프간 정부 측에서 피랍자 구출을 위한 군사 작전이 개시되었다는 긴박한 뉴스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사작전과 같은 무력적 수단에 의한 문제해결은 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한국 정부 역시 군사작전을 통한 피랍자 구출 방법을 강력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작전에 의존하여 더 큰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피랍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지키는 평화적 해결 뿐입니다.

2007년 8월 2일

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기독교민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회,대전어민회,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백제상원주교여성공동체,새움터,성태대문제의정읍위한전국연대,수원여성회,안양여성회,여성사회교육원,여성환경연대,울산여성회,한국여성연대,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성회,제주여성인권연대,충북여성민우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교회중앙연합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외교연합회,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한국여성과학기술자협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원주교수녀중앙연합회,사회사목분과,함께하는주부모임 (이상 가나다 순)

## 아프간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한 한국 시민단체의 <호소문>

오늘 우리는 차마 말할 수 없이 창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프간에 한국인들이 피랍된 지 스무 날에 이르고 있지만 아프간에서 쓰러져간 값 백형규, 심성민 씨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지도 못한 채 한국인 인질 21명의 생명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생사의 기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간에서 벌어진 이 제임과도 깊은 상흔은 우리 시대가 당연한 대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려간 무장세력이 한국 민간인의 생명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아프간 평화재건을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는 결국 자국민을 석방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고, 대테러전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간에서 전쟁을 벌이고 한국군의 출전을 요구했던 미국 정부는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이 비극 앞에서 우리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말려간 무장단체에 인질 석방을 재차 촉구합니다.

민간인 생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 결코 정당한 저항의 수단이 아닙니다. 점령세력의 민간인 살상에 분노하라는 스스로 민간인들을 위해하는 것은 당신들이 싸우고 저항하는 이들의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또 다른 폭력과 분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인질로 삼고 있는 21명의 한국인을 조속히 풀어주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미국과 아프간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촉구합니다.

미국의 대테러전과 아프간 점령은 수많은 아프간 민간인들을 죽음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고 이것이 아프간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와 보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한국인 피랍사태가 발생했음을 미국 정부가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그 누구보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미국 정부의 진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또한 미국과 나토군 그리고 아프간 정부가 피랍자들의 구출을 포기하는 것과 다른없는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엔과 국제사회 양심적 세력에게 호소합니다.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의 악순환에 한국인 피랍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희망합니다. 특히 말려간 무장단체와 아프간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아가 아프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서 주길 바랍니다.

아프간 전쟁과 점령, 수많은 죽음에 대한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책임과 무관심을 돌아봅니다.

한국인 인질들에 대한 무사귀환을 호소하면서 지금의 아프간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를 돌아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테러전과 아프간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그 악명높은 바그람 기지에 주둔시켜 왔으면서 마치 아프간 재건자원을 위해 파병한 것인양 사실을 왜곡해왔습니다. 한국군이 일면적 미국의 대테러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그 곳에 주둔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한국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프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아프간 침공과 점령을 적극 지원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많은 아프간인들의 살상에 더불어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태를 맞아 한국 정부의 대테러전 부대 파견을 막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두고한 아프간 희생자들에게 깊이 사죄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프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그곳의 역사는 물론 아프간인들의 고통과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도 방관했던 것에 대해 자성해봅니다. 미국이 아프간을 점령했던 단 두 달 동안 천명의 아프간 민간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졌는데도, 지난 6년 동안의 정황으로 수만명의 아프간인들이 숨겨졌으며, 탈레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이 비그람 기지와 관타나모 기지 등에 불법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지도 한국 사회는 이러한 아프간인들의 고통과 아픔에 너무도 무지하거나 무관심했습니다. 어쩌면 지난 2월 비그람 기지 앞에서 순제간 당시 윤장호 병장의 죽음이 오늘날의 인권사태를 예고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인권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우리는 동시에 전쟁과 분쟁으로 죽어간 수많은 아프간인과 그들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프간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진정한 평화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의 전쟁과 정황에 동조하고 세계의 고통 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아프간 분쟁의 지옥한 현실에 대한 이해없이 저항세력들의 행위를 무조건 미국의 눈으로 보면서 테러리스트로 비난하거나 또는 그들을 포화시키려는데 너무 일개 동조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노란리본을 달아주시시오

그리기에 호소합니다.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노란 리본을 달아주시시오. 한국 시민들이 이들의 무사귀환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국제사회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얀 리본을 달아주시시오.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과 점령지원 그리고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프간 국민들 또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국제 사회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탈레반과 국제사회에 전파져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그리고 아프간의 분쟁해결에 국제사회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나서 주십시오. 특히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직접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주시시오.

우리들의 호소에 공의하신다면 언제, 어디에서든 관계없이 나서 주십시오. 광화문 가로수에 걸어준 줄에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길 앞 창문에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자동차창의경이에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택시 다니시는 가방에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찌적갈 것만 같은 21명의 목숨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선 안 될 가치 평화와 생명, 권유의 가치를 위해 '노란 리본 달기'에 나서 주십시오.

21명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지금, 이념적, 종교적, 정파적 고려를 떠나서 피랍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의 행보를 둘러싼 논쟁은 그들이 살아 돌아온 후 채도 늦지 않습니다. 수해소식에 여론 휴가도 기꺼이 반납하고 수해복구 지역으로 달려갈듯이 우리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있는 이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반성을 담아 생명을 구하는데 나서 주십시오. 피랍자들의 무사귀환과 두고하게 죽어간 아프간인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노란색, 하얀색이 넘치는 거리를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2007년 8월 7일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KYC(한국청년연합회)/ NCC 정의평화위원회/ 경기민주연문시민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광주여성단체연합/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독교한정연대/기독교여민회/녹색교통운동/녹색비행/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회/대

전여인회/문화연대/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구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연호시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  
 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불교환경연대/비폭력평화총결/살피/새세상민주교여  
 성공동체/새움터/장대지정연구소/상대대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수원민예총/수원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수원청년회/수원환경운동센터/수원환경운동연합/안양여성회/에너지나눔과평화/예교  
 붓다/여성사회교육원/우리민족서모듬기운동 평화나눔센터/울산여성회/원불교개벽교두반/이태진피스/전북  
 여성단체연합/경도회/제주여성회/제주여성인권연대/참여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평화센터 푸름/  
 초록정치연대/충북여성민우회/평화공간/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박물관준여위/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아나키텍스트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연우회/한국여성연  
 구소/한국여성회전화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성학자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함께하는주무모임/행동연대/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이  
 상 78개 단체)



## <제2차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관한 논평>

###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의 희망을 주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여성들은 2007년 8월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하기로 한 남북정부의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실현의 중요한 기회이다. 이 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에 희망을 안겨주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가 더 이상 지구상에 남아있는 냉전의 마지막 현상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의 발신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성들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현 정권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2차정상회담은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남북 당국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남북한 신뢰형성과 균속으로 이어져 동북아 평화실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 사이에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의 전 환경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에서 평양, 그리고 시베리아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평화와 번영의 밑거름이 되는 경제협력체를 가시화하여 남북의 균형적인 발전과 한반도와 동북아 주연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셋째,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추진·대표단 및 한반도평화체제 형성과정에 가시적인 여성참여 실현을 촉구한다. 한반도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중차대한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여성참여는 필수적이다. 남성과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여 평화롭고 평등한 한반도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2007.8.8

평화물안드느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환영논평>

2007 남북정상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오늘, 남과 북의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2007 남북정상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반영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밝혀 남북관계의 발전과 상호존중, 신뢰구축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

특히 이번 선언은 남과 북의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고, 11월 중 남북총리회담을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하여 남북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관계발전의 실천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선언은 남북이 적대적인 분단의 장벽에 갇혀 지 않고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평화적 상상력이 적극 발휘된 결과물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는 남북 사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오랜 대립과 갈등의 문화를 상호이해와 존중, 공생의 문화로 전환시켜 가는 새로운 지평의 길에 들어섰다. 구체적인 군비통제방안에 대한 합의가 빠진것등은 아쉽지만 이번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남북의 신뢰형성을 통한 상호군축으로 동북아 평화실현의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번 선언이 담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분단으로 인한 불신의 장벽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가고, 실질적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민간교류 활동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을 기대한다. 선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제기된 과제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루어져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지향적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남북의 모든 시민들의 실천의지를 모으는 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의 평화실현과 통일과정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선언을 계기로, 남북 사회문화협력분과위원회 여성분과를 개설하여,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사회를 건설하는데 여성의 관심과 경험이 통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대전환점이 될 이번 합의가 소중한 결실을 맺어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살맛나는 평화로운 미래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4일

사/평화포럼안드레아성희

## <자이론 파병 연장 반대를 위한 각계 선언문 및 선언자 명단>

### 자이론 부대 철군 촉구 및 반전 평화를 염원하는 각계인사 공동선언문

시대의 학술전쟁 불응하는 한국군 파병, 더 이상 안된다

우리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래 위험적이고 반평화적인 한국군 파병을 끝낸 반대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를 외교정책에 반영하기는커녕 파병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지일본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자이론 부대 임무종결계획서 발표를 두 번이나 연기한 데 이어 작년 국회와 국민에서 공인했던 연말 철수 약속을 함부로 폐기하고 나섰다.

우리는 시대의 학술 전쟁에 또 다시 파병 연장을 시도하려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깊이 절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반인륜적인 전쟁에 참전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노무현 정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국민과 의견에도 아무렇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한 톨군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뒤흔치면서 자지 미국을 의심한 이라크 파병을 계속하겠다는 말인가.

그 누구도 이라크에 평화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침공이후 이라크는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추락했고,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재앙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라크 민중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은 걷잡을 수없이 커져 이라크의 계급과 안정화는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처음에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했던 미국 시민들조차 이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실패적으로 인정하여, 조기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최우방국인 영국도 역시 이라크 점령의 수렁에서 발을 빼기 위해 이라크 철군에 이미 동참했을 정도이다. 그런데도 부시 행정부와 출범 공동체연합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여전히 파병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파병정책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가 없다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 많은 학살과 폭력에 처한 이라크인들과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을 진심으로 우려한 적이 있는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는가. 나아가 한국군 철수를 주장하는 현지 무장저항세력에 의한 한국인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해 국가의 부책임을 통렬히 성찰한 적은 있는가.

단일 정부가 건설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진지하게 고려했다면 미국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을 수년간 퇴물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이론 성과평가단’ 파견과 같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또 다시 파병 연장을 시도할 수 있었는가. 단언컨대 정부의 파병정책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가 없다. 또한 최상당한 자국민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책임도 없다. 오히려 미국을 의심한 파병과 이를 정당화하는 구호만이 있을 뿐이다.

무고려운 파병의 역사, 더 이상 파병 연장은 안된다

더 이상의 파병연장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7년, 이라크 파병 5년은 침략전쟁에

참전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며, 최근 태도는 특전사 위주와 파병 역시 마찬가지이다. 평화수호라는 역사적 책무를 지어낸 노무현 정부의 명백한 전범행위는 낱낱이 전해질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국민을 모욕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파병으로 일기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가 지금이라도 파병 연장이 아닌 한국군 즉각 철수라는 결단을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그것만이 역사의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회복시키는 길이다. 여기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익론을 또 다시 내세우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파병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수많은 이라크 민중들이 미국의 침공과 점령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영권과 국적이란이 난무하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비판해왔으며,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이 불러온 이 이반적 질서를 거부하는 평화의 힘을 지속적으로 모아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 점령 종식과 철군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인식하며, 평화를 따르는 양심적 국민들과 철군을 위한 평화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7년 10월 16일

자이론 부대 철군 촉구 및 반전 평화를 열망하는 각계인사 368인

자이론 파병 연장 반대 각계 선연 명단 (총 368명)

<시민사회>(81)

강형익(대한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근애(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김정미(평화네트워크 사무국장), 김기남(평화희원들 사무국장), 김대관(아시아의친구들),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도영(새사회연대 정책위원), 김도현(새사회연대 정책위원),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본겸(당선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사중(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성공회대 교수), 김선애(새사회연대 정책위원), 김수현(평화공간 상임연구위원), 김인경(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김유대(창당시민연대 대외협력 팀장), 김은수(보성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 김지현(평화인권연대 활동가), 김지현(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김지훈(아산시민도모 사무국장), 김환영(평화계향군인회 사무처장), 나와우리, 명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머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미니(골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박병남(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순정(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동국대 복원학과 교수), 박송진(천주교 인권위원회 운영위원), 박진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현진(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변호사), 박지영(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서보희(이화여대 연구교수), 손석환(세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손성훈(금산참여연대 상임위원장), 송은(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신수경(새사회연대 정책위원), 신대섭(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동의대 교수), 이철(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오영정(새사회연대 정책위원), 윤필달(평화희원들 사무국장), 윤영삼(평화공간 상임연구위원), 윤영진(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계명대 교수), 윤영철(새사회연대 정책위원), 이남주(성공회대 중앙승문학과), 이대훈(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성공회대 외래교수), 이상철(창당시민연대 대표), 이상수(새사회연대 정책위원), 이용성(민주언론시민연합 권 집행위원, 한서대 교수), 이장수(새사회연대 대표),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명숙(아시아의친구들), 임연수(아산시민도모 회장),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강영(새사회연대 정책위원), 전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전성환(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새명대 교수), 정옥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지은(새사회연대 정책위원), 조희연(성공회대 통합대학원장), 지현(함께하

는시인협동 공동대표, 청양사 주지, 차이정(아시아의 친구들), 천준호(한국청년연합회(KYC) 공동대표), 최사복(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최가수(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최미정(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최영철(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재훈(경제를넘어 활동가), 최현용(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제주대 사회학과 조교수), 표명일(평화재향군인회 상임 공동대표), 하승동(함께하는 시인협동 정책위원장), 한수진(경제를넘어 활동가), 한홍구(평화박물관 전임추진위원회 상임이사, 학상수(한국전장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허중환(달천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홍상대(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상지대 교수), 홍세화(‘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 홍창욱(평화인권연대 활동가), 황현익(보령시민참여연대 대표)

#### <환경>(3)

민민기(녹색교통 사무처장), 오성규(환경정의사무처장),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 <여성>(8)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필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남승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윤금순(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정경관(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정현택(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민중,통일>(39)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이사장),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 소장), 강희남(우리민족연방재통일추진회의 상임의장), 고민태(노동자의힘),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원), 권낙기(통일영상 공동대표), 권오창(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권오현(민가형양심수후원의회 회장), 김광일(‘다함께’ 운영위원), 김동진(민주노동자전국회의 회장), 김은주(민주노동 부위원장), 김중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김지희(민주노동 부위원장), 김장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김홍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김홍현(전국민민연합 의장),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규철(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문홍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원), 박석훈(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대표),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 박성민(노동자의힘), 박정근(민주노동 부위원장), 박종기(민족민주일사보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박하순(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백종열(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박승욱(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변연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신정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염성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원승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윤기진(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청년남측본부 의장), 이석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세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이순희(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이영식(민주노동 사무총장), 이종희(노동자의힘), 이현대(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임방기(통일영상 공동대표), 임종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두석(한민족생활문화연구소 대표), 전병덕(민주노동 부위원장), 정정훈(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정계돈(한국가톨릭노동회 의장), 조석원(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주봉희(민주노동 부위원장), 주종환(민족화합운동연합(사) 대표의장), 권 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권영욱(민주노동 수석부위원장), 최일봉(‘다함께’ 운영위원), 한영수(범민정신선전거버넌스대표), 한상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최영구(민주노동 부위원장), 홍근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 <보건의료>(42)

강이태(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홍관(부산청년 대표), 고영훈(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권대표), 곡경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김동근(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서울경인 대표), 김동수(참의료 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김룡구(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선영(건강사회를위한약사사회 부회장), 김성삼(참의료 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김승진(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김일환(참의료 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부회장), 김정범(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중명(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김진규(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박두남(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서울경인 사업국장), 박상태(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박성표(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대표), 박성환(참의료 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부회장, 시경대표), 박재민(참의료 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연대사업국장), 박남순(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조직국장), 송기을(전북청한 대표), 송기욱(건강사회를위한약사사회), 신이철(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신현경(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신형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사회 정책국장), 오민우(건강사회를위한약사사회), 우석균(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 송태원(대전청한 대표), 이경규(참의료 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이미진(건강사회를위한약사사회), 이상순(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임관(노동청강연대 공동대표), 장재혁(참의료 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조직국장), 전강호(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중앙사업국), 정동민(건강사회를위한약사사회), 정성국(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 대표), 정요경(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 조기홍(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주영수(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천문호(건강사회를위한약사사회 회장), 현수미(건강사회를위한약사사회), 황해영(건강사회를위한약사사회 부회장)

<문화, 예술>(29)

장재희 (중앙대 영문과 교수, 문화연대 공동대표), 강영환 (시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김성철(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김영기 (화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김영삼 (교사,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공동소장), 김영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부소장), 김용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 김정명신 (문화연대 공동대표,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 김해수 (작가, 민족문화학자회의 사무총장), 남요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도광환 (시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 박인태 (한국민족극운동연합 이사장), 곽윤지리요(인종가수), 선윤진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여 운 (화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이대벽 (국민대 체육학부 교수,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장),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임정희 (미학자,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임진덕 (연출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 권규환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권효관 (전남대 교수,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공동소장), 정민수 (사진가, 민족사관가협회 사무처장), 정희실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정희준 (동아대 체육학부 교수,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장), 허달용 (화가, 광주민예총 회장), 황정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지원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법조>(32)

장기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권혁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주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이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은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김학웅(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성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영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용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우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형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승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송상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호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처장), 염병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위대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민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상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경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장), 임재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

선(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사무차장), 최영도(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한경주(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한택근(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사무총장), 황필규(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심재환(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안영도(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김승교(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조병규(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윤석희(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학자>(37)

장내희(중앙대), 강영길(대구대), 강인순(경남대), 고철환(서울대), 라병효(경성대, 구모형(한국해양대), 김광철(동아대), 김광호(한철연), 김교연(호서대), 김귀옥(한신대), 김규경(충북대), 김중노(연세대), 김상관(한신대), 김상복(전남대), 김상희(부산예술대), 김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세균(서울대), 김승환(충북대), 김연각(서원대), 김영순(서울산업대), 김완철(한양사이버대), 김정인(춘천교대), 김평호(단국대), 남기대(서원대), 문현아(여성문화이론연구소), 민경희(충북대), 박기용(성명대), 박경(목원대), 박연희(국목대), 박구용(전남대), 박노영(경남대), 박성환(성균관대), 박준진(부산대), 배성인(한신대), 서권도(충북대), 손미아(장원대)

<종교>(46)

강명준(대전 고려훈교 담임목사), 극산(전주 고려훈교회), 김정호(들꽃 향린교회 담임목사), 김대원(성공회 신부), 김병규(나주 영신장교회 담임목사), 김영진(주문아울교회 담임목사), 김옥성(하늘비갓교회 담임목사), 김홍수(하늘광교회 담임목사), 김철호(마당교회 담임목사), 김혜성(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김현(잠사당교회 담임목사), 김홍순(여변교회 담임목사), 문태훈(가톨릭 평화문제 연구소 소장), 문홍근(예수살기 목사), 박덕신(전) 옥정평 공동의장, 박석중(예수살기 목사), 박순희(천주교경희구현천주교연합 대표), 박원(예수살기 목사), 박영관(한신교회 담임목사), 서일우(한 옥정평 공동의장), 신승현(경동포신임교회 총무), 양재성(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차장), 양진규(전주 새누리교회 담임목사), 여대권(용곡교회 담임목사), 우상열(리노협 사무차장), 이강실(전주 고려훈교회 담임목사), 이진환(대전 살림교회 담임목사), 이명익(하남 변영교회 담임목사), 이병일(강남 향린교회 담임목사), 이세우(가장 전북농촌목회자연합회장), 이철승(리노센터 대표), 이태영(가톨릭 농촌 개발원 원장), 임보라(향린교회 부목사), 임인수(예수살기 목사), 장관철(운동교회 담임목사), 장창원(오산 노동문화센터 소장), 장현권(운동교회 담임목사), 정현순(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조현정(향린교회 담임목사), 조희순(간리교 원도목사), 권진(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진광수(가톨릭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차동환(세한교회 담임목사), 최소영(예수살기 소속목사), 최재봉(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홍성현(전 사회선교연대회의 공동대표)

<정당>(16)

강기갑(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현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금인(한국사회당 대표), 김화정(한국사회당 부대표), 노희철(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문성현(민주노동당 대표), 손봉숙(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안효삼(한국사회당 부대표), 이영순(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임종인(무소속 국회의원), 정청래(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원명생(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현애지(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학생>(15)

김승은(대학생진보세력연합 사무차장), 김영태(대학생사담연대 대표), 김지선(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대연(2005년대법관대담신통지회), 대학생나눔문화, 유선인(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특가해(자본주의연구회 사무차장), 신나다(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 유승현(전국학생총연, 성신여대 사회대 학생회장), 이현경(한국대학생문화연대 대표), 정병호(대학생 더불어 정치위원회), 조양근(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 조현경(전국대학생 21세기 세계문화유적탐사회 '미담' 대표), 최진해(학계동지회 나눔 대표), 황선영(한양교육연구회 회장)

## <이라크 파병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연장 결정을 반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23일 이라크 파병 기간을 다시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라크에서 다국적군의 점령 속에서 지역적인 분쟁과 종교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고 터키 총리가 언제든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을 공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중동지역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이라크에서 한국군 주둔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 연장을 반대한다.

첫째, 정부의 이라크 파병 연장은 이라크 전쟁을 더욱 연장하는 것으로 중동지역의 불안정을 강화할 수 있다. 이라크전쟁은 주민들의 삶과 사회간접시설을 파괴했다. 전쟁과 정쟁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약탈, 폭력과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전기, 의료, 물, 음식 등의 부족으로 혼돈 속에서 살고 있다. 결핵균, 자살폭탄, 이라크 경찰, 급진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여성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살육과 강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기리를 걷는 것조차 힘든 가운데 이라크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혼돈 속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파병을 연장하겠다는 주장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이라크 주민은 '전쟁' 속에서 살기도 무방하다는 논리이다. 한반도에서는 6자회담과 같은 협상과 대화로 평화적인 갈등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에서는 수많은 다국적군의 총칼로 안정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평화와 안정은 총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당사자들이 마주 앉을 때 가능하다.

셋째, 이라크 파병 연장은 한미동맹 강화가 아니라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라크에서 식유 추구라는 국가적 탐욕을 위해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침략전쟁에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한국군의 지속적인 주둔은 미국 내 다수 국민이 전쟁을 반대하고 미국 의회도 조기 철군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여성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한국군 주둔 연장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우리는 더 이상의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동원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둘, 한국군은 이라크에서 즉시 철군하라.

셋, 이라크에서 평화를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넷, 평화협상과정에서 이라크 주민과 여성이 참여할 것을 보장하라.

다섯, 이라크 재건은 이라크인 손에 맡기고 이라크를 파괴한 국가들은 이라크 재건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라.

2007.10.24

평화유망하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군대 내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관련 기자회견문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사건의 조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등 동성애자 차별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지난 10월 24일, 군대의 끔찍한 인권유린 사건이 한국사회에 폭로되었다. 지속적으로 선임병, 간부들로부터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동성애자 병사의 면담요청과 문제 해결에 대하여 해당 부대 지휘관들은 피해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군 당국은 오히려 성징체성을 고백한 피해자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기 시작하였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 등에 대해서도 수차 질문을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기함으로써 깊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

피해자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폭력에 심한 절망감을 느껴 약을 과다 복용하여 자살기도까지 시도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해당 부대는 이러한 피해자의 절실한 외침을 외면한 채 정신병동과 비전원(군 부각을 자 절제)에 보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정신병동과 비전원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 벌어졌고 절망에 빠진 피해자는 다시 자해행위를 반복할 수 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불안,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식욕감퇴, 체중감소,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00대학병원 정신과 재해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위해 10월 23일(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였고 10월 29일 해당부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해당 부대는 이 사건에 대해 모르므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피해자가 당했을 고통을 외면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해당 부대에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에 국방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자를 구제할 절차가 부실하다는 것, 또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원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도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급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성징형 공개 강요, 신체 비하 및 욕설 등의 성희롱이 일상화되어 있고, 신체적 폭력 유형외의 경우 모욕, 가슴 및 엉덩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순으로 빈도수가 나타났다. 이번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해자가 이루어진 장소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성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 발생 이후 신고 및 처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의 신고율은 87건 중에서 4건에 그쳤다. 그 이유에 대해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가 16%를 차지해 공식적 해결 가능성을 피해자들이 거의 믿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비롯한 군형법 92조 제간금지, 정신장애(질병신체장애사유)의 성전호도, 성추행성 장애) 등의 동성애자 차별 조항을 즉각 폐기 혹은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 있어 인권단체들과의 공동의 노력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이듯 관리지침에서 정한 '상징형·상대방 인격사항 등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사고 발생시 엄중 처벌 (군형법 적용)'하겠다는 방침은 이번 사건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관리지침 중 '동성애자 병영 내 유입, 확산 차단 대책 미비'라는 조항은 군의 특수한 환경에 의해 일부 군인들이 동성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고 군대 내 동성애자가 존재하면 여타

의 군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동성애는 '유일, 확산'이라는 개념과 양립될 수 없고, 특히 확산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정적인 용어이자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는 동성애를 단지 성취로서의 접근하여 사고하고 있다는 것이 어실해 드러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방부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이 동성애자 병사를 관리할 수 없을 뿐더러 보호조치도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하며 조악한 동성애관을 가지고 인권을 침해하는 자정임을 더할여 알아야 한다. 국방부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의 전면 폐기, 인권단체들과의 공동의 인권지침 제정, 군행법 등 동성애자 차별 조항의 즉각 삭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군대에서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면 언제나 '성군기 문란 사고'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군대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개념으로 피해자의 인권 보호는 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나온 제도, 규칙 등은 어느 것 하나 '국가의 의무'이기에 할 여간 청년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 특히 국방부가 별도의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본다면 일선 병영에선 이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방부는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라!

국방부는 피해자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사건의 진상조사에 직접 나서야 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라!

국방부는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제도를 마련하라!

국방부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등 동성애자 차별 조항을 즉각 폐기, 삭제하고, 새로운 인권 지침을 세우기 인권단체들과 논의하라!

## 2007. 11. 1.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사건 대응 대책위(준)

군대 내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사건 의견서 제출 단체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광주인권운동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레즈비언문화협회 '열전/문화연대/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위원회)/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희찬 의원실/(사)한국성폭력상담소/성선환자인권연대/지영이/인내트워크/여성단체연합/인권단체연석회의/한국계이민노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인우회 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희생자지원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0개 단체)

\*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 37개 단체) (거장평화인권예술계지원회/구속노동자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형지구화평등/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회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민권피해발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 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인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권발파당생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불평등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통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전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계이민노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IP(한국장애인연결)/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 노무현 정부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임기 내 제정하라!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9월 12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법안의 차별 범위 조차 축소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법예고안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경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직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대상 차별범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경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이 누락되었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통의가 더 이상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안)'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가 제정한 7개 차별범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차별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항에 명시되어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미 '차별금지법(안)'은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전원위원회 의견을 거친 2006년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관련 부처별 의견수렴 및 공청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차별범위에 대한 사회적 통의를 얻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차별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한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단체, 종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며, '차별'에 대한 참여정부의 인식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법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계의 필요한 반대를 의식한 나머지 차별금지 사유에서 '고용형태'를 삭제하였고,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약의적 차별에 대한 강벌적 손해대상, 임금복합의 전환등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조치까지 삭제한 누더기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이제 법무부는 일부 기독교단체들과 보수단체들의 편대를 의식해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경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과 같은 대표적인 차별사유조차 정부안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인권국을 실현하면서 인권법무부로 거듭나겠다고 했지만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보여준 원칙 없는 행보는 '인권법무부'가 아니라 '논치법무부'라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제라도 법무부는 차별범위에서 누락된 7개 조항을 원래대로 살리고, 차별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해,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법무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법 제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가로막은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있기 내에 이행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출범 초기 향후 5년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목적으로 '다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밝힌 바 있다. 특권과 차별, 폐쇄의 강구조를 없애야만 국민이 하나가 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이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가 된 차별금지법(안) 보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예방 금지구제하고, 국민의 차별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법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초기의 문제의식을 되새겨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법무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기준을 대폭 반영한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참여정부 법제정 성과에만 연연하여 차별금지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고 있는 작태에 반대한다. 정부는 삭제된 차별금지사유를 다시 복원하고 필요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07. 11. 14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101개 시민사회·인권·여성·종교단체

KVC, 여성평화인권예술클ubs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장애여성단체연합, 장애여성단체연합, 장애여성회, 공익변호사그룹 공안,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유노동자후원회, 기독교연합회, 나라우리,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대청지구화생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사회정보연대, 새사회연대, 세세상을여는전주교여성공동체, 새을터, 상대배려체계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안양여성회, 에이즈인권모임나누다,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참여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외국인어부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임시재지 대학평화와 국민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연인국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실현연대, 장애인권회의사실추진시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지별철폐연대,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경쟁없는세상, 정의평화를위한기독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lightact.org), 참여연대, 참의요실현정당혁신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북여성인우회, 평화불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포항여성회,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민노동단체총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우회, 한국어성의진화연합, 한국어성장애인연합, 한국어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EFL(한국장애인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이상 가나다순)

## 제78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 수요시위 성명서

2007년 여름 미국 하원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라는 결의의 권고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아래 신조 전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잠깐 내내 문제 삼으면서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사임할 때까지 끝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우파들은 치욕을 견수하고 군위안부 동원의 실상을 밝힌 피해자 할머니들의 공개증언 내용을 입증 문서들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또 다시 모욕했다.

많은 여성들의 삶을 유린한 이 끔찍한 범죄가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치부되고 거짓이라고 부정당한다면,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여성들은 우리 할머니들과 같은 고통을 언제라도 겪을 수 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의 줄기가 되고,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노래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모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우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해온 수요시위는 오늘로 787차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현재 한국과 대만, 네덜란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유럽 각 지역을 순회하며 일본군성노예제 결의안 채택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향의 문을 이끌고 증언과 호소에 나선 피해자들의 호소에 힘입어 지난 8일, 네덜란드 하원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일본군이 '위안부'들에게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것과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 피해국들의 문제가 아님을, 전 세계인이 한마음으로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는 인권과 평화의 문제임을 일본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죄다." 라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정죄회복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피해자들 앞에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법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으로 할머니들의 존엄과 인권이 회복되고,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올바르게 후세에 교육하라
- 한국정부는 주체적이고 당당한 한일외교정책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2007년 11월 14일

정화불만드는여성회와 제78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 6.15공동선언실천 여성본부 총리회담 환영논평

남북총리회담을 환영한다

지난 10월 4일 남북의 두 정상은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7년 만에 이뤄진 회담은 새로운 단계의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기쁜 소식이 또 들려온다. 남북총리회담이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진행된다. 1992년 제8차 총리급 회담 종료 이후 15년 만에 총리회담이 재개되는 것이다. 이는 2007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11월 중 제3차 총리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남북총리회담의 의의는 그 동안 광범급으로 운영되어 온 남북대화 총괄 장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킨 것이 다 할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 대화 장구의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상선언 이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높이 평가한다.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앞으로 산하에 다양한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상시적인 남북 간 협의를 이어갈 수 있는 틀로서 기여하길 바라며 아울러 '서해경회협력특별지대' 등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가시화시키고 이렇 단계로 진일보하기를 바란다.

분단과 전쟁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우리 여성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며, 남북이 반세기 분단과 대결의 정체를 넘어 하루 빨리 평화와 번영으로 도약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남북총리회담을 뜨겁게 환영하며 부디 이번 회담이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되는 큰 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여성도 함께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지지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2007년 11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 <대국민호소문>

### 민주 정치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5년 운명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이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87년 6월 민주헌정으로부터 20년 우리는 국민의 신뢰가 신장되고,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며,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반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서 나타나듯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평등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건강한 사회통합 시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불평등과 무정이 고착되는 사회로 퇴보하느냐의 중요한 분수령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더욱 정착시켜야 할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는 오히려 민주정치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아닌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중요한 선거과정의 거짓과 부정 그리고 국민기만으로 일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가 연루된 BBK와 관련 의혹을 설마 하는 심정으로 지켜봐왔습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던 의혹이 마침내 이명박 후보 스스로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이 밝혀지면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그간 의혹과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모두 날조이자 근거 없는 비방이라 일축했으며, 단일 BBK 연루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선 이후라도 대통령직을 잃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욕성이 담겨있는 자료가 공개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있지만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 없듯이 진실은 드러나고 있으며, 이명박 후보는 이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가조작을 공모했는지 BBK의 실제 소유자임지의 법적 권위와 책임의 규명 이전에 이명박 후보는 BBK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했던 말에 대해 책임을 지야 합니다. 보통의 정치인도 아닌 국가지도자가 될 정치인의 말은 천금과 같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거짓으로 일관한 정치인을 어떻게 믿고 국가지도자의 대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위장전입과 위장취임, 탈세로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드러낸 이명박 후보에게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초연장담에도 불구하고,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만 한하여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의 수준을 넘어, 국가의 혼란으로 갈 것인가 진실의 규명과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정상적인 과정을 갈 것인가의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었습니다. 진실이 은폐된 채 선거가 치러지고 현재의 지지율대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는 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진실 규명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거짓의 정치, 국민기만의 정치로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을 용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민주주의의 역사를 진전시킬 것인지 이제 국민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반세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역량을 민주정치가 위기에 처한 오늘,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벌어질 촛불집회, 시국농성 등 48시간 비상 행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2. 12월 17일 저녁, 18일 정오와 저녁 전국 모든 시도에서 열릴 '88K 주카조작 사건을 비롯한 거짓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이명박 후보 사회 축구 병국연 캠페인, 촛불집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3. 국민을 기만한 이명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선 이후에도 진실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2007. 12. 17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비상 대책회의 참여자 일동



## 국제연대 성명서

### 아프가니스탄 여성혁명연합 (RAWA)의 선언문

"이 선언문은 아프가니스탄의 국회의원인 말라라이 조야 축에서 보내왔다. 말라라이 조야 역시 인질사건에 대해서 매우 역동하며, 피랍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특히 고인이 된 피랍자의 가족들에게 애도를 보낸다는 메시지와 함께 왔다. 한국인들이 무사히 곧 석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희망한다는 말도 남겼다. 아프간 여성들의 한국인 피랍사건 대한 심정과 의견을 함께 나누고 아프간 여성단체와 연대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쓴다. 아래 선언문은 심상연 씨의 축을 직후에 쓰여진 글이다.

"라와는 1977년 창립되어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과 아프간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독자적인 조직이다. 라와는 아프간 여성 지식인들에 의해 카불에 설립되었다. 주로 탈근본주의를 위해 투쟁하며 반여성적인 정책과 폭력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 집중되어왔다. 2001년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새 아프간 정부도 얼마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가에 대한 사례들을 발표한 바 있다. [www.rawa.org](http://www.rawa.org)

라와는 안전한 탈레반이 무고한 한국 인질들에게 자행한 범죄에 대해서 한국인들에게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의 곁에 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살인자와 악당자들이 우리의 땅에서 한국친구들을 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이 수십 년 동안 아프간 전역에서 인질들을 잡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테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그들이 아프간 사람들을 도우려고 온 한국자매와 형제들에게 고맙고 축하는 것을 지금 봐야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피랍자들의 가족과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한국인들과 깊은 심정이며, 함께 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테러규와 오늘 두 번째 인질(심상연)의 죽을 앞에서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나눕니다.

지저은 이 상황을 풀릴 만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데에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라와는 어떤 순간도 안심하지 않을 것이며, 아프간의 어떠한 근본주의에 대해서 도 계속 싸울 것을 한국친구들에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아프가니스탄을 설립할 때만이 테러규 죽음에 대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만이 아프간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으나 위협에 처하게 된 한국친구들이 가지 있게 기념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질들이 곧, 무사히 풀려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탈레반은 아프간을 결코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탈레반의 잔인함으로 인해 여러분이 겪을 슬픔과 비애, 통탄스러움을 함께 나눕니다.

RAWA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2007년 7월 30일

제공: Defense committee for Malalai Joya

**Korean Women's Statement for the safe return  
and peaceful resolution of Korean hostages kidnapped by the Taliban**

Life is precious.

No more innocent lives should be lost!

We must put a stop to the pain and tears of the family members who are agonizing every second that their loved ones are in captivity. We women oppose resolving the issue through arms measures in any situation. We urge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Korea and Afghanistan and the United Nations to place the highest priority on multilateral efforts for safe release of the hostages. Especially, we strongly urge the American government to resolve this issue peacefully through peaceful negotiations.

1. Sad news continues despite strong wishes for the safe release of those Korean hostages. Following the deaths of Bae Hyung-Kyu and Sim Sung-Min, tension and uncertainty loom, not knowing when the remaining women hostages would be murdered is agonizing and regrettable. We women want to express our heartfelt condolences to the deceased and their families. There should be no more tragic killing of innocent lives. We hope this situation will be resolved immediately and peacefully.

2. All lives are important and equal. There should be no more tragic killing and suffering. We should never allow any attempts to hold innocent people as hostages and use them as a threat to achieve political purposes. No political purpose justifies holding innocent lives. The Taliban should release the remaining hostages immediately.

3. We women do not want this stand-off to end tragically but sincerely hope for the safe return of all hostages as soon as possible. To achieve this goal, we women urge the Korean, Afghan, and American governments, along with the United Nations to place utmost efforts at the multilateral level. We especially urge the United States, who holds the decisive key, to negotiate with the Taliban for the safe release of the hostages. The United States has to keep in mind that the principle of life is more important than never negotiating with terrorists. The United States is largely responsible for the tragic situation in Afghanistan so it should stand up to resolve the issue of releasing the hostages peacefully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4. We women strongly urge those involved to resolve this tragic situation peacefully. It is being reported that the Afghan government is planning a military operation to save the hostages after the two innocent Korean men were killed. We strongly believe that any military attempts would worsen the situation. Thu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rongly oppose saving those hostages using military force.

What we need right now is not further tragedy through military attempts but to save those remaining hostages.

August 2, 2007

Gyeong-Gi Women's Associations United, Kyungnam Women's Associations United, Kyungnam Women's Association, Gwangju Jeongnam Women's Associations United, Christian Women for Glass Roots, Taegu-kyungbuk Women's Associations United, Taegu Housewives' Association,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Democracy, Pusan Counseling Center Against Sexual Violence, Pus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Pusan Women's Center for Social Research, The Korean Catholic Women's Community for a New World, Saewoomtuh for Prostituted Women, Korean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Suwon Women's Association, Anyang Women's Association, Social Education Center for Women,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Wolsan Women's Association, National Women's Solidarity, Jeonbuk Women's Associations United, Cheju Women's Association, Jeju Association for Women's Right, Chungbuk Women's Association, Women Making Peace, Pohang Women's Association, Korean Church Women United,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Women Workers' Associations United,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n Womenlink, Korean Women's Studies Institute, Korea Women's Hot Line, Korean Differently Abled Women's United,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ssociation of Major Superiors of Women Religious in Korea, Taegu Association of Housewives (39 women's groups)

[Public Appeal]

### Civil Society call for the safe return of Korean hostages in Afghanistan

(Seoul, 7 August 2007)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actors gather together in solidarity to call attention to the series of tragic events occurring in Afghanistan. While almost 20 days have passed since a group of Koreans have been held hostage in Afghanistan, we do not have enough time to fully grieve the death of two Korean civilians, Bae Hyung-kyu and Shim Sung-min as the remaining 21 lives of hostages still remain on the line.

This recent event in Afghanistan is a tragic as while Taliban forces are using civilian lives as a leveraging tool for negotiations,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dispatched troops for the reconstruction of peace in Afghanistan seems helpless in saving the lives of its own citizens and the US government which requested the continuous support of Korean troops for its 'war against terror' in Afghanistan is turning a blind eye towards the situation. We call in solidarity in hopes that this vicious cycle of violence will come to an end and there will be no more victims.

We urgently call on the Taliban to immediately release the remaining 21 Korean hostages. Taking the lives of innocent civilians can not be justified no matter what the cause. While you rage over the civilian killings by opposition forces, be reminded that your action of threatening the lives of other civilians is no different from of those that you fight against. Your actions will not only create more violence and conflict but cause much grief and pain among Koreans.

We, as Korean civil society, reflect on our responsibility and ignorance towards the war in Afghanistan and the thousands of deaths that has occurred from the conflict.

We reflect on the ignoranc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owards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as we call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the Korean hostages.

We reflect as to whether we have been negligent to the history as well as the pain and grief of the Afghan people while calling for peace in Afghanistan.

Korean society has been ignorant and insensitive to the pain and suffering of the Afghan people as four thousand Afghan civilians were killed during two months of the US invasion, thousands of civilians died during the past six years of US occupation and while not only the Taliban but civilians have lost their lives while being tortured and illegally held at the Bagram Air Force Base and Guantanamo Bay camps. Perhaps the death of the Korean Sgt. Yoon Jang-ho, who was killed by a suicide bomb attack at the Bagram base earlier this year, was a warning for the recent Korean hostage situation in Afghanistan.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sent troops to Afghanistan to support and assist the US occupation and its fight against terror and have stationing the troops at the infamous Bagram base, it has also attempted to distort the facts by pretending to be in Afghanistan for social reconstruction. Armed forces such as the Taliban are more than fully aware of what Korean civil society is not - the fact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this fight against terror by stationing troops in Afghanistan. The Korean government is in part responsible for the numerous civilian deaths occurring due to the US occupation of Afghanistan as its participating in the war and assisting the US

in its occupation of the territory. We, as Korean civil society reflect on our responsibility for not being able to prevent the dispatchment of Korean troops participating in this so-called 'war against terror.' We, not only hope for the safe return of the Korean hostages but remember the deaths of many Afghan civilians and the pain and grief of their families in the mist of war and conflict. We regret the fact that we have been participating in an unjust war rather than contributing to world peace by being sensitive to the suffering of many in Afghanistan. We have to consider whether we have categorized the actions of the resistant groups as simply 'terror' using a US perspective rather than fully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the Afghan conflict.

■ Please put on the yellow colored ribbons to pray for the safe return of the Korean hostages. Please le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ome aware of how much Korean civil society desire the safe return of the Korean hostages.

■ Also, please put on the white colored ribbons to le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 aware of how regretful and sorry we are for the pain and suffering that the assistance and dispatchment of the Korean troops as well as our ignorance has caused the Afghan people. Please pray that these actions will provok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ke action to resolve the conflict situation in Afghanistan as well as urge the Taliban to release the Korean hostages.

■ Please urge the UN and the US government to participate in direct talks to resolve this situation.

■ If you agree with our cause, please hang the ribbons anywhere anytime. It does not matter whether you hang them on the trees in Gwanghwamun area, on the windows in front of your house, in your car, or on your bag. Let the ribbons remind you of the 21 lives of the Korean hostages in Afghanistan and of peace, life and mercy. It is not too late to debate the actions of the 21 civilians after they have safely returned home. Political debates that state that calling on the participation of the US government which is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conflict in Afghanistan simply fuels the 'anti-American' segment is also useless when it comes to saving the lives of the Korean hostages.

■ As we have willingly sacrificed our summer vacations to help those in need in flooded areas, it is time for us as Korean civil society to take action to help the Korean hostages experiencing unbelievable pain and suffering at this very moment.

■ We call on you to make the streets filled with yellow and white colored ribbons remembering the deaths of innocent Afghan civilians and calling for the safe return of the Korean hostages.

Endorsed by 78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cluding Green Korea, Green Transport,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Korean Women Association United, Civil Network for a Peaceful Korea an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Women Making Peace, K.

## **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on the Situation of Burma/Myanmar**

9 October 2007

We, Northeast Asian members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are greatly concerned about the recent developments in Burma/Myanmar.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violent manner in which the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 has responded with armed forces to peaceful demonstrators, including monks and journalists.

We, in line with the recent statements issued by GPPAC Southeast Asia and by regional representatives and the global secretariat of GPPAC, would like to echo our support for the following demands of the people of Burma/Myanmar:

- 1) For the government of Burma/Myanmar to address the basic needs of the people.
- 2) Release without delay those arrested and detained as a result of the peaceful protests, as well as all political detainees.
- 3) For genuine national reconciliation to take place in Burma.

We welcome the fact th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RC) adopted by consensus a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on 2 October 2007. We urge all governments, particularly those of the HRC member countries, to work towards implementation of all the provisions of the resolution. We also call on the UN to establish a fact-finding mission and an independent monitoring team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Burma/Myanmar. We look forward to the UN Secretary General and Security Council taking more active roles in facilitating these measure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ime is ripe to directly engage the SPDC and convince the regime to initiate substantial and genuine reforms starting from genuine tri-partite dialogues in which all parties will be included. To this end, ASEAN and other key Asian countries should work together to promote such dialogue and reforms.

It is understood that the people of Burma/Myanmar are tired not just of their daily economic struggles but, even more so, of the way the ruling military regime govern their country. We strongly urge the regime to sit down to a dialogue with people and listen to their legitimate demands. We also urge them to employ peaceful means to promote reconciliation, improve people's standard of living and achieve democrac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watching and all States and people are closely monitoring the next move of the country. We look forward to positive steps being taken by the regime.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gppac@peaceboat.gr.jp](mailto:gppac@peaceboat.gr.jp)

Signed by

Beijing Focal Point HUANG Haoming (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Beijing)  
Hong Kong Focal Point AU Pak Kuen (Hong Kong Professional Teachers' Union, Hong Kong)  
Seoul Focal Point PARK Jungu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eoul)  
Shanghai Focal Point SHEN Dingli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Fudan University, Shanghai)  
Taipei Focal Point CHEN Jau-hwa (Dept. of Philosophy, Soochow University, Taipei)  
CHEN Hsih-chieh (Peacetime Foundation, Taipei) HSU Sen-Chien (Peacetime Foundation, Taipei)  
Tokyo Focal Point Kathy R. MATSUI (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 Tokyo)  
Ulaanbaatar Focal Point Jargalsaikhan ENKHSALKHAN (Blue Banner, Ulaanbaatar)  
Vladivostok Focal Point Vadim GAPONENKO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Maritime State University, Vladivostok)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Initiator YOSHIOKA Tatsuya (Peace Boat, Tokyo)  
GPPAC Northeast Asia Advisor Arselmo LEE (FORUM-ASIA, Bangkok)  
GPPAC Southeast Asia Gus MICLAT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Davao)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Secretariat KAWASAKI Akira (Peace Boat, Tokyo)

Signatories as of 11 October 2007:

GANBAT Damba(Academy of Political Education, Ulaanbaatar), Jung Gyoung-Lan(Center for Peaceful Future of Korea/Women Making Peace, Seoul),Viktor KONONOV (Charitable non-profit organization 'Club 'Raff', Vladivostok),Viktor KORSKOV (International Public Institute for Culture of Peace, Vladivostok),LEE Jae-Young(Korea Arabaptist Center, Seoul),LEE Jong-Moo(Kosian Sharing Movement, Seoul),LEE Mi-Hwa (Nonviolent Peaceforce Corea, Seoul),Dennis, Chen-Jeng, LIN(Soochow University, Taipei),PAN Mei-Lin (Peacetime Foundation, Taipei),SASAMOTO Jun(Japanese Lawyers International Solidarity Association, Tokyo),SHIM Young-Hee (Women Making Peace, Seoul),Olga SHBELKOVA (PTPSEAWA, Vladivostok),SUH Bo-hyuk (Fellow of Ewha Academy for Advanced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WU Chih-kuang(Peacetime Foundation and John Paul II Peace Institut, Taipei), Olga YACUCENKO (Primorskiy Regional Branch the Russian Peace Foundation, Vladivostok), Philip YANG(Taiwan University, Taipei)

\*Affiliation in brackets is for identification purpose only

아래의 문서는 평화플랜드는여성회가 주최하여 동북아 여성평화회의의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을 방문하여 전달한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의 입장문서와 제안서입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은 평화플랜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사업보고 참조)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입장문서>

### 1. 중국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의 제안  
"여성,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21세기를 만드자"

2007. 7. 16.

한국 여성들은 지금까지 식민지, 분단, 전쟁, 냉전을 경험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확인해왔다. 우리의 경험은 평화가 생명이며 또한 가장 기본적인 인류의 당연이자 보편적 인간권리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인간을 신장하며 민주주의를 성취해 여성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의 9.19성명서 2.13합의로 마지막 냉전시대인 한반도에서 냉전이 해체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6자회담의 전진은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는 새로운 평화와 협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전환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고통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 전환기에 고통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우리는 동북아시아 정부가 군사적 역지력에 기반을 둔 안보 위주를 탈피하고 공존과 화해협력에 근거한 평화담론을 추구하기를 촉구한다.

남북과 동북아시아 각국은 자신의 생존과 유지를 안보의 최고 목표로 삼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힘에 의한 정치"를 토대로 하는 군사주의적 모델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도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일방적 신뢰만으로 안보를 성취할 수 없다. 항구적 평화는 상호불신에 입각한 군비경쟁이 아닌 공동의 생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 여성들은 국가들 사이에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적,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현재를 드러내고 있는 군사적 중심의 국가안보가 아니라 평화, 환경보호, 인권존중, 민주주의 선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안보를 주장한다.



2. 여성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문제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핵문제에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한반도의 근본적 정상화가 불가능하며, 북미관계 정상화 없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미 사이에 적대관계 해소와 실질적인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에의 근본적이고 평화적인 해결과 대북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성취될 평화체제 하에서 정부가 군사동맹이나 군사력에 의한 갈등해결이 아니라 경제협력과 협상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평화적 방식에 의한 갈등해결을 신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재일조선인을 통해 겪은 핵고사,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의 고통을 당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집단적 과제이다. 북한과 미국의 핵 쉼 연이어나 한반도에 어떠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집수, 보유, 저장, 대용, 사용을 허용치 않는다. 나아가 동북아시아 핵보유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보강할 뿐 안 이 아니라 핵확산금지 조약(NPT) 6조에 따라 핵군축을 위한 협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3. 여성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상호군축과 더불어 군사비의 사회보장비 및 교육비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군사적 무장과 군대의 집중이 심한 지역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65% 정도를 차지하면서 군사비 증가율도 8% 이상으로 세계 평균 3-4%보다 훨씬 높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65% 정도를 차지하면서 군사비 증가율도 8% 이상으로서 세계 평균 3-4%보다 훨씬 높다. 2005년 현재 미국 4782억달러, 중국 1884억달러(추정치), 러시아 644억달러(추정치), 일본 349억달러 한국 234억달러(2005년 구매력 가격 기준)를 군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http://www.sipri.org/content/milap/miles/mex\\_trends.html](http://www.sipri.org/content/milap/miles/mex_trends.html) )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한반도 군축을 동반할 것이다. 한반도의 군축은 동북아시아 군축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군비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식량 증산, 환경 보호, 교육 및 사회복지 투자에 정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4. 여성들은 동북아시아 평화형성과정에 화해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정부는 평화형성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여성들은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달성을 위해 지역 내의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단체, 공동체 조직, 비정부 기구, 정파 기구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과 동북아시아 분단 사회에서 화해와 공동의 미래를 추구하는 것은 인내와 지혜를 필요로 하는 매우 장기적인 과정이다. 여성들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 그리고 동북아시아 여성들의 사고방식, 생활습관, 그리고 그 체제 내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상호이해와 인정을 가능케 하는 만남을 촉진하고 서로 의존하는 공동의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화해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6자회담과 같은 평화와 안보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성은 평화형성과정에서 기회, 자원, 존중의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갈등의 관리, 해결, 예방을 위한 평화,외교,국방 분야의 정보결정 과정에서 어느 한 성에 의한 편파적이고 불평등한 흐름을 막고 남성과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정책의 수반과 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하며, 정부는 평화협상태이블과 외교, 통일, 국방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30%이상 보장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이 전환기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해 중국여성들에게 아래와 같이 협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1. 중국여성이 평화와 여성의 권리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중국여성이 향후 평화, 환경보호,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더욱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
2.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연대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3. 중국여성들이 동북아 각국에서 상호근조과정을 위한 아시아 여성간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4. 우리는 여성, 평화, 인보에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실현을 위해 중국여성과 함께 활동하기를 요청한다.
5. 남북한 여성의 회색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중국 여성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증진하고자 한다. 국경을 초월한 동북아시아 여성 연대는 고통과 대립의 동북아시아 문단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평화와 상생(相生)의 문화를 창출하는 동력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omen striving for a 21st century of peace and coexistence through the overcoming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July 16, 2007

Korean women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of our experiences of Japanese colonial rule, national division, the Korean War and the Cold War. Our experiences confirmed that peace is life itself and the fundamental hope and universal right of humankind. We have placed our utmost efforts in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to women's development, by maintaining peace, developing human rights and achieving democracy.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and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3 February 2007) mark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very last place it existed, i.e.,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peace building. The six-party talks are a turning point in creating new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ow is the right time to establish peace

and achieve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overcoming all struggles and confrontations.

We, South Korean Women Peace Delegation, declare the following, towards the achievement of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 We urge the governments in Northeast Asia to develop peace policy based on coexistence and cooperation.

Permanent peace depends on a firm commitment to mutual existence and cooperation, rather than on an arms race based on mutual mistrust. We women urge that each government find methods t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interdependence with other countries. We pursu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promote peace,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omen's rights as an integrated whole, not military centered security which has some limitation on protection of social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 We dem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placement of armistice with peace agreement.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related to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o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eaceful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achieved until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In addition, the permanent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reached unti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normalized. Thus, North Korea's nuclear issues should be resolved fundamentally and peacefully, and security of North Korea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o resolve the hostile relations and establish truly norma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dem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s through diplomatic and peaceful means,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negotiations and dialogues under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goal we must achieve. Koreans know too well the suffering caused by nuclear weapons, through the experiences of Korean atomic bombing victims in Hiroshima and Nagasaki in 1945. Neither in North Korea, nor the United States, nor anywher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we test, manufacture, produce, register, own, store, distribute or use nuclear weapons. Furthermore, the nuclear weapons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must guarante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mmediately start negotiations to reduce nuclear weapons under article 6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3. We want disarma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nd the channelling of arms budgets into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sectors.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s a whole is a region of concentrated military build-up.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s responsible for 65% of the world's military spending, which is growing annually at a rate of more than 8%, higher than the world average of 3-4%. As of 2005, estimated military spending is \$ 478.2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 188.4 bil in China, \$ 64.4 bil in Russia, \$34.9 bil in Japan, and \$ 23.4 bil in Korea (based on 2003 purchasing prices).

([http://www.sipri.org/contents/milap/miles/miles\\_trends.html](http://www.sipri.org/contents/milap/miles/miles_trends.htm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lso means disarmament, which will lead to disarmament of Northeast Asia. We women want each government to divert military spending into the areas of human development, including food produ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4. We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Northeast Asia as facilitators, and want each government to guarante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the building of peace.

Women will play an active, cooperative role i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Northeast Peace Community, along with regional civil organizations, grassroots organizations, community groups, NGOs and policy institutions.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pursue mutual prosperity in the divided world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will be a long process, requiring patience and wisdom. Women can utilize our unique common bonds despite the fact that we have lived in different systems and have different thinking. In addition, we will play the role of moderators who can establish common visions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dialogue. Currently no women are participating in policy-making processes related to peace and security, even in such meetings as the six-party talks, which will decide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Women are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terms of opportunities, resources and respect. Women must be equal participants and have equal decision-making power at all level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Thereby, any favoritism or inequality toward one gender can be preven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fields of peace, diplomacy and defense, i.e., in the processes of managing, resolving and preventing conflicts. In addition, the interests and experiences of both men and women can be integrated. Thus affirmative action is needed to grant women an equal opportunity. Specifically, a 30% quota must be guaranteed for women's participation during peace talk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in foreign affairs, reunification and defense policy decisions.

We South Korean women ask for cooperation from Chinese women on the following items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 We appreciate Chinese women for their efforts to build peace and protect women's rights, and we hope that Chinese women further pursue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promotes peac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oman rights as an integrated whole in the future.

2. We request solidarity and active support from Chinese women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3. We want Chinese women to support Asian women's efforts for mutual disarmament process in each country of Northeast Asia.

4. We would like to work together with Chinese women for realiz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5. We ask Chinese women for your active support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efforts by women of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e want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peace-loving Chinese women and civil society. Women's solidarity in Northeast Asia transcends national borders. Through this solidarity, we women together can overcome the struggles and confrontations in Northeast Asia. Through this solidarity, we can accept and tolerate differences. This solidarity will be the engine for achieving the universal values of peace and coexistence.

## 2) 미국

###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omen striving for a 21st century of peace and coexistence through the overcoming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Korean women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of our experiences of Japanese colonial rule, national division, the Korean War and the Cold War. Our experiences confirmed that peace is life itself and the fundamental hope and universal right of humankind. We have placed our utmost efforts in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to women's development, by maintaining peace, developing human rights and achieving democracy.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and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3 February 2007) mark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very last place it existed, i.e.,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peace building. The six-party talks are a turning point in creating new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ow is the right time to establish peace and achieve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overcoming all struggles and confrontations.

We, South Korean Women Peace Delegation, declare the following, towards the achievement of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 We urge the governments in Northeast Asia to develop peace policy based on coexistence and cooperation.

Permanent peace depends on a firm commitment to mutual existence and cooperation, rather than on an arms race based on mutual mistrust. We women urge that each government find methods t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interdependence with other countries. We pursu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promote peace,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omen's rights as an integrated whole, not military centered security which has some limitation on protection of social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 We dem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placement of armistice with peace agreement.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related to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o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eaceful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achieved until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In addition, the permanent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reached unti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normalized. Thus, North Korea's nuclear issues should be resolved fundamentally and peacefully, and security of North Korea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o resolve the hostile relations and establish truly norma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dem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s through diplomatic and peaceful means,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negotiations and dialogues under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goal we must achieve. Koreans know too well the suffering caused by nuclear weapons, through the experiences of Korean atomic bombing victims in Hiroshima and Nagasaki in 1945. Neither in North Korea, nor the United States, nor anywher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we test, manufacture, produce, register, own, store, distribute or use nuclear weapons. Furthermore, the nuclear weapons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must guarante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mmediately start negotiations to reduce nuclear weapons under article 6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3. We want disarma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nd the channeling of arms budgets into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sectors.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s a whole is a region of concentrated military build-up.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s responsible for 65% of the world's military spending, which is growing annually at a rate of more than 8%, higher than the world average of 3-4%. As of 2005, estimated military spending is \$ 478.2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 188.4 bil in China, \$ 64.4 bil in Russia, \$34.9 bil in Japan, and \$ 23.4 bil in Korea (based on 2003 purchasing prices). ([http://www.sipri.org/contents/milap/milex/mex\\_trends.html](http://www.sipri.org/contents/milap/milex/mex_trends.htm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lso means disarmament, which will lead to disarmament of Northeast Asia. We women want each government to divert military spending into the areas of human development, including food produ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4. Women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Northeast Asia as facilitators. We want each government to guarante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building peace.

Women will play an active, cooperative role i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Northeast Peace Community, along with regional civil organizations, grassroots organizations, community groups, NGOs and policy institutions.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pursue mutual prosperity in the divided world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will be a long process, requiring patience and wisdom.

Currently few women are participating in policy-making processes related to peace and security, and none are in visible leadership position in the six-party talks, which will decide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Women are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terms of opportunities, resources and respect. Women must be equal participants and have equal decision-making power at all level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Favoritism or inequality toward one gender can be preven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fields of peace, diplomacy and defense, and the interests and experiences of both men and women can be integrated. Women must have an equal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outh Korea, we are demanding that a 30% quota be guaranteed for women's participation during peace talk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in foreign affairs, reunification and defense policy decisions. We are asking all countries that we visit to consider such a quota. We would like to ask you to promote the same quota in the United States.

We South Korean women ask for cooperation from American women on the following items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 We appreciate American women for their efforts to build peac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we work together with American women to further pursue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promotes peace,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s an integrated whole in the future.

2. We request cooperation and active support from American women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3. We want American women to support Asian women's efforts for mutual disarmament process in each country of Northeast Asia and to work for disarmament in the United States.

4. We would like to work together with American women for realiz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5. We ask American women for your active support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efforts by women of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6. We hope that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ll be normalized as soon as possible. We ask the American women to play active role to build reconciliation and tr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 want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rough cooperation with peace-loving American women and civil society. Women's cooperation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ranscends national borders. Through this cooperation, we women together can overcome the struggles and confrontations in Northeast Asia. Through this cooperation, we can accept and tolerate differences. This cooperation will be the engine for achieving the universal values of peace and coexistence.

### 목 록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의 제안

"여성, 분단과 태입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새시기를 만들자."

2007. 10. 24.

한국 여성들은 지금까지 식민지, 분단, 전쟁, 핍박을 경험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확인해왔다. 우리의 경험은 평화가 생명이며 또한 가장 기본적인 인류의 알 권리 보편적 인간권리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민주주의를 성취해 여성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의 9.19성명과 2.13합의로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 냉전이 해체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6자회담의 진전은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는 새로운 평화와 협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전황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고통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 전환기에 고통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우리는 동북아시아 정부가 군사적 억지력과 기반을 둔 안보 위주를 탈피하고 공존과 화해협력에 근거한 평화담론을 추구하기를 촉구한다.

남북과 동북아시아 각국은 자신의 생존과 유지를 안보의 최고 목표로 삼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사력에 의한 일방적 신뢰만으로 안보를 성취할 수 없다. 항구적 평화는 상호불신에 입각한 군비경쟁이 아닌 공동의 생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 여성들은 국가를 식이여 상호의존성을 신뢰시키기 위한 방안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차인적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군사적 중심의 국가안보가 아니라 평화, 환경보호, 인권존중, 민주주의 신장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안보를 주장한다.

2.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는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평화적인 해결과 대북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성취될 평화체제 하에서 정부는 군사동맹이나 군사력에 의한 갈등해결이 아니라 경제협력과 협상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평화적 방식에 의한 갈등해결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책임공산인을 통해 겪은 희로사마, 나가사키의 원폭 도해의 고통을 당한 우리가 기록해야 할 절대적 과제이다. 북한과 미국과 핵 싣 나라인 한반도에 어떠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검수, 보유, 저장, 재분, 사용을 허용치 않는다. 나아가 동북아시아 핵보유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뿐 만 아니라 핵확산금지 조약(NPT) 6조에 따라 핵군축을 위한 협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3. 여성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상호군축과 더불어 군사력의 사회보장적 및 교육적용도의 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군사적 무장과 군대의 집중이 심한 지역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65% 정도를 차지하면서 군사비 증가율도 8% 이상으로 세계 평균 3-4%보다 훨씬 높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65% 정도를 차지하면서 군사비 증가율도 8% 이상이어서 세계 평균 3-4%보다 훨씬 높다. 2005년 현재 미국 4782억달러, 중국 1884억달러(추정치), 러시아 644억달러(추정치), 일본 349억달러, 한국 234억달러 (2005년 구매력 가격 기준)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http://www.stpc.org/contents/mlap/mikes/mex\\_trends.html](http://www.stpc.org/contents/mlap/mikes/mex_trends.html))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한반도 군축을 동반할 것이다. 한반도의 군축은 동북아시아 군축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군비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식량 생산, 환경 보호, 교육 및 사회복지

지 투자에 정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4. 여성들은 동북아시아 평화형성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정부는 평화형성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라.

여성들은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달성을 위해 지역 내의 시민사회단체, 불우리 단체, 공동체 조직, 비정부 기구, 정책 기구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과 동북아시아 본단 사회에서 화해와 공동의 미래를 추구하는 것은 인내와 지혜를 필요로 하는 매우 장기적인 과정이다. 여성들은 서로 다른 체계에서 살아온 남북 그리고 동북아시아 여성들의 사고방식, 생활습관, 그리고 그 세계 내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상호이해와 인정을 가능케 하는 만남을 촉진하고 서로 의존하는 공동의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화해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6자회담과 같은 평화와 안보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성은 평화형성과정에서 기회, 자원, 존중의 측면에서 남성에게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갈등의 관리, 해결, 예방을 위한 평화, 외교, 국방 분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느 한 성에 의한 권위적이고 불평등한 흐름을 막고 남성과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정책의 수준과 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남성을 동등하지 대우하고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하며, 정부는 평화형성책임분과 외교, 통일, 국방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30%이상 보장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 전환기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해 러시아 여성들에게 아래와 같이 협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1. 우리는 러시아 여성들이 동북아시아 각국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평화, 환경보호, 인권존중, 민주주의 신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에 의해 동북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대해나갈 것을 기대한다.

2.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연대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3. 동북아시아 국가의 상호군축을 위한 아시아 여성들의 단결과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함께할 것을 희망한다.

4. 평화형성과정에서 여성참여를 촉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의 실현을 위해 6자회담을 포함한 평화협상과정에서 각국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러시아 여성들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한다.

5. 남북한 여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러시아 여성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증진하고자 한다. 국경을 초월한 동북아시아 여성 연대는 고통과 대립의 동북아시아 분단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평화와 상생(相生)의 문화를 창출하는 통일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 **Women striving for a 21st century of peace and coexistence through the overcoming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Korean women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of our experiences of Japanese colonial rule, national division, the Korean War and the Cold War. Our experiences confirmed that peace is life itself and the fundamental hope and universal right of humankind. We have placed our utmost efforts in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to women's development, by maintaining peace, developing human rights and achieving democracy.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and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3 February 2007) mark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very last place it existed, i.e.,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peace building. The six-party talks are a turning point in creating new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ow is the right time to establish peace and achieve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overcoming all struggles and confrontations.

We, South Korean Women Peace Delegation, declare the following, towards the achievement of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 We urge the governments in Northeast Asia to develop peace policy based on coexistence and cooperation.

Permanent peace depends on a firm commitment to mutual existence and cooperation, rather than on an arms race based on mutual mistrust. We women urge that each government find methods t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interdependence with other countries. We pursu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promote peace,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omen's rights as an integrated whole, not military centered security which has some limitation on protection of social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 We dem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placement of armistice with peace agreement.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related to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Peaceful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achieved until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North Korea's nuclear issues should be resolved fundamentally and peacefully, and security of North Korea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o resolve the hostile relations and establish truly normal relations among Northeast Asia countries.

We dem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s through diplomatic and peaceful means,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negotiations and dialogues under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goal we must achieve. Koreans know too well the suffering caused by nuclear weapons, through the experiences of Korean atomic bombing victims in Hiroshima and Nagasaki in 1945. Neither in North Korea, nor the United States, nor anywher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we test, manufacture, produce, register, own, store, distribute or use nuclear weapons. Furthermore, the nuclear weapons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must guarante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mmediately start negotiations to reduce nuclear weapons under article 6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3. We want disarma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nd the channeling of arms budgets into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sectors.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s a whole is a region of concentrated military build-up.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s responsible for 65% of the world's military spending, which is growing annually at a rate of more than 8%, higher than the world average of 3-4%. As of 2005, estimated military spending is \$ 478.2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 188.4 bill in China, \$ 61.4 bill in Russia, \$34.9 bill in Japan, and \$ 23.4 bill in South Korea (based on 2005 purchasing prices). ([http://www.sipri.org/contents/military/mile/mes\\_trends.html](http://www.sipri.org/contents/military/mile/mes_trends.htm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lso means disarmament, which will lead to disarmament of Northeast Asia. We women want each government to divert military spending into the areas of human development, including food produ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4. We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Northeast Asia as facilitators, and want each government to guarante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the building of peace.

Women will play an active, cooperative role i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Northeast Peace Community, along with regional civil organizations, grassroots organizations, community groups, NGOs and policy institutions.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pursue mutual prosperity in the divided world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will be a long process, requiring patience and wisdom. Women can utilize our unique common bonds despite the fact that we have lived in different systems and have different thinking. In addition, we will play the role of moderators who can establish common visions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dialogue. Currently no women are participating in policy-making processes related to peace and security, even in such meetings as the six-party talks, which will decide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Women are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terms of opportunities, resources and respect. Women must be equal participants and have equal decision-making power at all level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Thereby, any favoritism or inequality toward one gender can be preven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fields of peace, diplomacy and defense, i.e. in the processes of managing, resolving and preventing conflicts. In addition, the interests and experiences of both men and women can be integrated. Thus affirmative action is needed to grant women an equal opportunity. Specifically, a 30% quota must be guaranteed for women's participation during peace talk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in foreign affairs, reunification and defense policy decisions.

We South Korean women ask for cooperation from Russian women on the following item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 We appreciate Russian women for their efforts to build peac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we work together with Russian women to further pursue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promotes peace,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s an integrated whole in the future.

2. We request solidarity and active support from Russian women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3. We want Russian women to support Asian women's efforts for mutual disarmament process in each country of Northeast Asia.

4. We would like to work together with Russian women for realiz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5. We ask Russian women for your active support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efforts by women of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e want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peace-loving Russian women and civil society. Women's solidarity in South Korea and Russia transcends national borders. Through this cooperation, we women together can overcome the struggles and confrontations in Northeast Asia. Through this solidarity, we can accept and tolerate differences. Our cooperation will be the engine for achieving the universal values of peace and coexistence.

## 1. 여성6자회담이란?

### (1)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 및 동북아 평화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여성회의

7월 18일 중국에서 다시 열리는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안도체제 형성을 위한 원칙과 행동계획을 세우는 등 평화형성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평화협상 및 평화화의 이행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요구한 'UN인보의 결의안 1325'의 정신의 구현이 요철된다. 1999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베이징 행동강령에서는 '평화와 갈등의 금지·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에서 여성들이 확실하게 개입하는 것이 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필수적(중심영역 E 여성과 무장갈등)'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자국의 절반인 여성을 배제하고 실현될 수 없다. 동북아시아의 절반인 여성들이 평화형성의 파트너로서 남성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정책결정, 리더십,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는 길이며 평화형성과정에 여성들의 재능을 사용함으로써 여성 세력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동북아시아 평화 실현을 논의하기 위해 6개국(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 여성)이 모이는 회의이다.

### (2) 동아시아 식민지와 냉전의 경험, 그리고 체제·문화의 차이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완화하고, 상호이해와 신뢰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들의 만남의 장(場)

동북아시아 여성들은 식민지 경험, 냉전이후 긴영 갈 대립이라는 역사 속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 소통의 부재를 겪어왔다. 6자회담이라는 동북아시아 전환기에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차이를 인정하며, 이해와 신뢰, 자대역과 협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다. 여성6자회담은 여성들이 그동안 하지 못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 (3) 한반도/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의 비전(vision)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장(場)

한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 실현은 한반도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여성들의 공동의 목소리와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폭력과 평화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경험적 차이가 큰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평화형성 과정에 여성의 통찰력과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여성6자회담은 6개국 여성이 모여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한 여성의 공동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다. 여성6자회담은 각국 여성들이 관중이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며, 평화체제를 확대하고, 평화 능력을 향상해 적대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여성들이 따르는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도출해낸다.

## 2. 여성6자회담 일정

일시: 2008년 9월

장소: 대한민국 서울 또는 금강산

참가자: 6개국(남한,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여성활동가

+ 여성의원, 전문가, 정책결정자, 국제비정부기구, 유엔 등

### <Women's Six-Party Talks>

#### 1. What are the Women's Six-Party Talks?

##### 1) Women's Conference for Peace-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Six-Party Talks are essential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t the governmental level. The talks agreed on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and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3 February 2007). However, there are very few women involved in the process. More women should be involved in the peace negotiation process, on the basi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UNSC Res.1325 underlines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and post-conflict period according to the concept of gender mainstreaming. According to the Critical Areas of Concern 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in 1995, governments should take actions to strengthen the role and ensure the equal representation of women at all decision-making level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ich may make or influence policy with regard to matters related to peace-keeping, preventive diplomacy and related activities and in all stages of peace mediation and negotiations. Sustainable peace is based on the full participation of women. The participation of women, half the population of Northeast Asia, as partners in peace building with men, will give women decision-making, leadership,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Women should use their talents and promote gender empowerment in the peace process. Women's Six-Party Talks is a conference at which women from six countries—Chin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Republic of Kore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will gather and discuss denuclearization and the peace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 building in Northeast Asia.

2) Women's meeting places for the building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nfidence, and for the reduction of misunderstanding and mistrust caused by colonial and cold-war experiences and by differences in political-economic systems and cultures in Northeast Asia.

Women in Northeast Asia have experienced misunderstanding, mistrust and lack of communication as a result of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Women need meeting places where they can listen to others actively, recognize mutual differences, and build understanding, confidence, sisterhood and cooperation in the transition period related to the Six-Party Talks. Women's Six-Party Talks will be a venue for

communication among the six countries' women, to open their eyes and hearts to others.

3) Starting point to discover women's vision and action plan to build peace in Korea and Northeast Asia

Peace building in Korea and Northeast Asia will be accomplished by joint women's voices and actions in this region. The great experienti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with regard to violence and peace should be considered, and opportunities for women to use their talents should be guaranteed. Women's Six-Party Talks are to find women's vision and action plan for denuclearization and the building of a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xpected that the Women's Six-Party Talks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the six countries' women to respond to conflicts in nonviolent ways, expand spaces for peace, promote peace culture, and finally transform antagonistic relations into cooperative relations in Northeast Asia.

2. When and where will the Women's Six-Party Talks be held?

When: August 2008

Where: Seoul, South Korea or Mountain Keumkang (special tourist zone in North Korea)

3. Who will attend the Women's Six-Party Talks?

- Women activists, women parliamentarians, specialists, and decision makers in Chin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Republic of Kore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 2007년 평화여성회 발간자료 목록

1. 청소년을 위한 갈등해결교육교안집 / 2007년 5월
2. 월례평화마당 자료집(월례평화마당) / 2007년 11월
3. 평생교육차원에서 대국민 평화교육 실시방안 / 2007년 12월







